



6

주체 101 (2012)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101(2012)년 제6호

(루계 제776호)

차례

영원한 그 부름속에 (시) 리 창 식(3)

김정일동지는 우리 당(시) 최 영 화(4)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5)

시
장군님과 새벽 박 근 원(5)
선군찬가 김 형 준(6)
축원의 밤 불멸의 불보라 문 정 남(7)
붉은기 날리는 언덕 서 봉 제(8)
과원의 봄날에 심 복 실(8)
세계를 안은 집 김 석 주(9)

단편소설 **대홍단의 아침노을** 조 상 호(10)

주체문학의 대강 (23)

《발걸음》의 메아리는 우렁차고 환희롭다(평론) 권 선 철(24)

장군님은 저폐를 안고사시였다(단시초) 김 경 남(27)

하나를 위한 심장에서 고통치는 충정의 메아리(평론) 김 학(42)

① 만날수 없었던 사연 기 경 호(40)

한 의학자의 모습에서 리 룡 문(77)

② 죽음의 피할수 없다 리 수 정(78)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경축

전국문학축전 입선결과 (63)

전당과 온 사회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경도체 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자!

— 공동구호에서 —

단
소
편
설

비날론을 사랑한다	석 남 진(29)
준마기수	한 철 순(50)
형제반장	박 경 철(66)

◇ 시 ◇

금골광부	서 진 명(41)
우리 사람들	리 진 협(28)
백두산총대의 선언	김 길 성(45)
영원한 병사의 노래(시묵음)	
나는 저격수	황 승 명(46)
도하장의 밤	권 래 여(46)
파편 나무	박 래 설(47)
이삭편지	조 래 현(47)
조국이여 나에게도 명령을 달라(시초)	모원혁, 김성희(64)
나의 병사시절에!	김 철 희(62)
선군시대에 다시 일떠선 세검정(기행)	백 위 영(48)
레오노브의 생애와 창작(자료)	리 순 옥(79)
상식	(26) (39)
조선속담	(49)

표지2면: 《한마음 따르렵니다》(노래)

3면: 《백두산총대는 대답하리라》(노래)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을 변함없이 우리 당의 총비서로 높이 모셔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는것은 장군님의 사상과 로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우리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기 위한 원칙적요구입니다.》

김 정 은

영원한 그 부름속에

리 창 식

영광으로 빛날 천만년세월속에
무궁토록 받들어모시고싶어
우리는 4월의 봄날
우리 당 최고수위에 변함없이 모시였어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 **김정일**동지

한평생
행복의 모든 날과 날을
우리 당과 조국 인민을 위해
다 안겨주시고
자신은 이 부름 안으시고
선군길을 헤쳐가신 아버지

다함없는 마음과 마음이
받들어올린 부름을
충복이란 말로 소중히 안으시고
인민을 위해 못 가신 험한 길이 있었던가
병사들 찾아 못 넘으신 령이 있었던가

못 잊어라
눈덮인 고지와 외진 섬초소
우리가 사는 일터와 집집에
소문없이 들어서시는 그이의 발자욱소리
우리 눈물속에 뵈웁던
눈비에 젖고 땀에 젖은 그이의 야전복

조국과 인민을 위해
우리 당의 강화발전을 위해 바치신
불멸의 생애 더듬으며 목메이나니

조선로동당의 총비서
삼가 불러온 위대한 그 부름
그이에겐 크나큰 헌신의 무게였구나

없어라 그이처럼
우러러 높이 받들어모신 그 부름을
천만자식을 위해 깡그리 불태우시며
언제나 인민의 아버지로 사신분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분

오늘도 높뛰는 천만심장속에
그 부름 변함없이 울리고있어라
내 조국의 영원한 승리와 함께
그 부름 숭엄히 빛나고있어라

아, 부르면 부를수록 성스러운 부름
선군조선의 존엄으로 영원한 그 부름
우리 장군님의 존함과 더불어
무궁한 세월속에 빛내여주신
혁명적도덕과 의리의 최고화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숭고한 충정의 그 마음에 받들려
위대한 부름과 함께
오늘도 래일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분
천만의 심장속에 태양으로 빛나시는분
그이가 바로 우리 삶의 전부이신
영원한 우리 당의 총비서
위대한 **김정일**동지이시여라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받들어모시자!

김정일동지는 우리 당

최영화

내 가슴속에는 언제나
우리 장군님과
우리 당이
한모습으로 간직되어있어

구름 한점없이 개인
저 푸른 하늘아래
당중앙청사에 붉게 나뭇기는
당기만 바라보아도
거룩하신 장군님의 영상이
눈에 송엄히 어려오고

때없이 받아안은
당의 결정들과 지시들
당의 목소리에서도
친근하신 그이의 음성이
귀에 들리는듯 울려와
가슴은 그이의 생각으로 부푸나니

그것은
내 지금껏 장군님슬하에서
당을 그이로 생각하며
오래도록 일해온 그 나날에
나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려진것

생각하면
당이 하는 모든 일 모든것
그 어느것이고
장군님의 위대한 사색에서
태어나지 않은것
그이의 위대한 손길아래
이룩되지 않은것
하나도 없어라

우리 당의 그 모든 활동은
장군님의 하루하루의
첫 사색에서부터 시작되고

그이의 하루하루의
첫 일에서부터 걸음을 떼노니

진정 우리 당의 빛나는 력사는
한평생
그이 보내시는 귀중한 한초한초가
그대로 이어져 찬란히 수놓아지고
한평생
그이 걸으시는 한걸음한걸음이
그대로 이어져 우리 당의 영원한 길이 되거니

하기에 우리 당의 모든 세포들은
그이의 사상으로 사고하고
그이의 심장으로 피를 끓이고
그이의 숨결로 숨을 쉬고
그이의 의도대로 일하는것 아니냐

오로지 장군님의 존함으로만 존재하고
그이의 모습으로만 빛나고
그이의 령도와 인덕으로만 전진하는
주체의 위대한 당이어

내 오늘
환희와 긍지에 넘쳐 노래하노라
김정일동지 그이는
우리 당의 뇌수이시고
우리 당의 심장이시고
우리 당의 운명이시고
아, **김정일**동지는 곧 우리 당이라고!

그것은
우리 당 빛나는 력사가 새긴
가장 위대한 총화
그 총화가 천만리로 억만리로 열어놓은
조선로동당의 찬란한 미래여라

주체84(1995)년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 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자력갱생, 간고분투는 비단 병기생산과 수리분야뿐아니라 항일혁명의 모든 분야를 관통하는 기본정신으로 되었으며 혁명에 대한 충실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되었다.》

《자력갱생은 이처럼 기나긴 항일전쟁의 나날에 혁명군의 존망을 좌우한 생명선으로 되었다. 자력갱생하면 살고 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인식은 만사람의 머리를 지배하는 사고방식으로 되고 좌우명으로 되었다.》

《유격구의 병기창에서 울리던 자력갱생의 마치소리는 로동당시대의 맥박으로 되고 이 시대를 출달음치게 하는 위력한 원동력으로 되었다.》

장군님과 새벽

박 근 원

피어나는 새벽노을을 안고
내 출근길에 오르는데
한껏 향기를 풍기며 반기여라
백살구나무잎 설레이는
정든 당중앙프락길

언제부터였더냐
6월의 그날이 오면
의례히 새벽에 걷는 이 프락길
이날엔 어이 이리도
이 마음 뜨거움에 젖는것이나

타오르는 노을 더 붉게 태우며
펼 펼 날리는 붉은 당기
그 기발의 펄럭임에서 뿌러지는가
못 잊을 추억을 안은
청신한 새벽공기 새벽공기

그 새벽공기에 실려 울려오는듯
못 잊을 6월의 그날
우리 장군님 당중앙청사에서
첫 새벽을 맞으시며 하시던 말씀
이 가슴에 뜨겁게 안겨와라

—나는 어제 밤을
사무실에서 새웠습니다
새벽공기는 혁명가들이
남먼저 마시게 됩니다

이 행성이 생겨 수십억년
그때부터 있는 새벽
천하제일위인을 기다려
세월의 모진 풍파속에서도
네 청신함을 고이 간직해왔더냐

그래서 너 새벽
날마다 반겨모시는 첫분은
우리 장군님이시고
장군님께선 또 너를

그리도 즐기시며
네 안고있는 새벽공기를 그리도 소중해하시리

포근한 잠자리에서 일어나
어쩌다 새벽을 맞는 사람은 있어도
한해 삼백여순댓새 그 모든 새벽을
헌신의 밤을 이어 맞으시는분은
세상에 우리 장군님뿐이시여라

참으로
우리 장군님 수습성상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밤을 지새우고 맞으신 새벽
그 얼마이던가

수령님의 안녕을 지켜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철령의 전선길 새벽
판문점초소길의 새벽
발전소언제길 새벽
대흥단삼천리 포전길 새벽...
우리 장군님의 그 하많은 헌신의 새벽
어이 다 전할수 있으랴

장군님의 그 새벽에서 솟아났거니
일심단결의 정치사상강국도
당당한 군사강국도
그 새벽에서 또한
강성국가의 려명이 밝아왔고
사회주의경제강국이 되성치며 일어서나니

정녕 우리 장군님은
헌신으로 시련을 밀어내고
창조의 새벽을 안아오신
우리의 태양

아, 그 태양 빛발쳐
아침의 내 나라는 영원히 빛나고
선군조선의 앞날은 창창하여라

선 군 찬 가

— 조선인민군무장장비관 개관날에 —

김 형 준

이름 못할 아—
너무도 크나큰 감격에
내 머리속여 감사드리노라
선군 내 한생 안겨산 그대의 품에
선군 내 한생 누려온 그대의 복에
선군 내 한생 부르고부를 선군의 노래에

선군은
한없이 숭고한 애국애족
당과 조국 인민을 한품에 안아
찬바람 비바람 다 막아주고
철비 불비도 맞받아 막아주며
승리와 영광만을 안겨주는 숭고한 애국애족

선군은
한없이 인자하고 다심한 사랑
바다바람에 탄 한 녀병사의 얼굴을 두고
병사숨옷의 바늘구멍자리를 두고
천만의 병사들 맞을 찬바람 다 맞아보는
다심하고 자애로운 사랑

하여 선군 그대를
우리의 생명이라 운명이라
시와 노래에 담아 불렀어도
그 속깊은 마음 다 알았던가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줘도 몰라준대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가리라던 피어린 선
군길을...

...여기
조선인민군무장장비관에
선군령장 어버이장군님 계시여라
총과 맺은 인연 그리도 귀중하시여
총을 잡고 환히 웃으시는 모습앞에
쏟아지는 눈물 건잡을수 없구나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여
총포성을 자장가로 들으며 성장하신 그이
총은 자기의 주인을 배반하지 않는다 하시며
한생을 다해 그리도 사랑하신 총
그 총에 그이께선 새겨주셨어라
군대이자 당이고 국가이고 인민이라는 진리!

그것으로 하여
마치와 낫우에 있어야 할 총대
총대는
나라와 민족의 힘
총대는

선군의 만능보검

보라 선군령장 **김정일**장군님
그이께서 들어취신 총대따라
숨을 이룬 총검과 강철의 포신
무엇이 두려우랴 저 총검이 있는데야
누가 우리 앞길 막을수 있다더냐
산악도 단숨에 넘을 무쇠철갑의 앞길을

내 오늘 무장장비관
무쇠철갑에 비긴 모습을 보노라
새 교복을 입은 아이들의 고운 얼굴...
백살장수자의 하얀 머리
태여날 새생명을 위해
하늘을 날으는 비행기의 은빛날개

얼마나 옳았던가 선군이여
총대로 개척한 그 길만이
우리가 가야 할 혁명의 곧바른 길임을
총포탄처럼 탈선도 에둘도 없는
우리가 끝까지 가야 할 선군의 길임을

내 고백하노라
검은머리 희도록 누리며 산 선군복을
내 오늘 더 잘 알았노라
원썬들의 온갖 제재와 봉쇄앞에
머리숙인적 없는 그 신념과 배짱은
무진막강한 무장이 있었기때문

두자루의 권총으로 시작하여
오랜 세월 시련과 난관을 헤치며
다지고다쳐온 우리의 무진막강한 힘
얼마나 옳았는가 우리의 생명 선군이여!
얼마나 위력한가 정의의 무장 선군의 힘이여!

여기서 우리는 보았노라
하늘이 무너진대도 끄떡하지 않으리
그 하늘 떠받들 무적필승의 총대가 여기 있고
이 세상 끝까지 영원히 빛날
김일성, 김정일 선군대양이
우리의 앞길을 휘황히 밝히려니

오, 선군 선군을 사랑하라 그리고 지키라
선군은 수령님과 장군님의 최대의 유산
선군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만능보검
그이만을 따르는 선군길에 승리만이 있음을
너는 인류앞에 력사앞에 말해주고있구나
조선인민군무장장비관이여!

축원의 밤 불멸의 불보라

문 정 남

경사스러운 봄명절 4월 15일
100년세월우에 펼쳐진
환희로운 경축의 밤
수도의 하늘가에
축포의 황홀경 불멸의 불보라

너무도 황홀하여 바라보니
하늘가득 어려오는
아,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
그 영상 눈물에 젖어 우러르니
하늘가득 어려오는
아, 어버이장군님의 태양의 모습

어찌 황홀하지 않으랴
우리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
조국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바쳐오신
그 위대한 한평생의 력사가
저 축포의 불보라에 어려
하늘가득 펼쳐져 빛나고있지 않느냐

어찌 저 불보라의 불꽃
눈물에 젖은 우리 가슴에 뜨겁지 않으랴
오늘의 이 행복 위해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 헤치신 혈전의 천만리가
우리 장군님 꺾어오신 천만로고가
불멸의 글발되어 말해주고있지 않느냐

황홀한 이밤 저 하늘의 불꽃보라는
100년전 만경봉하늘가에 솟은
조선의 태양과 그밤의 별무리들
경축의 이밤 저 하늘의 불꽃보라는
70년전 정일봉하늘가에 솟아오른
광명성 찬란하던 그밤 별무리들 아니냐

이 땅에 넘치는 불멸의 위업
하늘가에 새긴들 어찌 다 노래하라
만경대초가집 사립문을 나서신 그날부터
해방의 개선문과 잇닿은
이 나라 인민들의 집집의 뜨락에 남기신
별처럼 많은 수령님의 자욱자욱...

이 땅에 불멸할 선군의 피어린 력사
하늘에도 모자라 바다에 새긴들
어찌 다 노래하며 전하라
외진 섬 병사들을 찾아가시던 풍랑세찬 바다길
그날의 불보라가 하늘에 비껴
불보라로 전하는 장군님의 사랑의 전설

가슴에 차넘치는 걱정과 그리움을
끝없이 솟구치게 하는 축포의 불보라엔
어려있구나 강선의 봉화 함남의 불길
주체비날론 주체비로
어려있구나 원흥과 고산의 파원의 꽃바다
새로 일떠선 살림집 불밝은 창문들...

어제날 억압의 죄사슬에 얹매였던 조선
노예의 멍에가 숙명이었던 민족을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주체의 조국으로
가장 존엄있는 민족으로 내세워주신
우리의 수령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그 영상 빛나는 하늘가에
불멸의 력사를 새긴 축포의 불보라에
흘러간 승리의 력사가 빛나고있고
흘러올 영광의 세월이 웃고있는
경사로운 경축의 이밤은 가지 않으리
이밤 축포의 불보라는 꺼지지 않으리니

땅우엔 흘러 끝없는 그리움의 대하
하늘엔 빛나 황홀한 그리움의 은하
하늘땅에 차넘치는 그리움과 그리움이
조선의 영원한 노래가 되고
조선의 영원한 불멸의 력사가 되어
무궁세월로 전해질 경축의 밤이어

오, 영원하리 이밤 경축의 밤
오, 불멸하리 이밤 축포의 불보라는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께
무궁세월에도 지지 않을 불꽃으로 엮어드린
영생축원의 꽃바구니여라!

붉은기 날리는 언덕

서 봉 제

붉은 대리석기발이 치솟아
푸른 창공을 붉게 물들이는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전설적빨찌산영웅 **김일성** 장군님의 영상을
우리 장군님 숭엄히 우러르시던 언덕

기슭의 진달래는
그리움에 젖어 더욱 붉게 피고
잎잎에 맺힌 새벽이슬은
못 잊을 그 아침 불러 이 가슴 적시느냐
너 북변의 패궁정마루여

발아래 출렁이며 흐르는
압록강너머 저편
신록이 짙은 동북산야를 바라보시던
어버이장군님마음속에
수령님 항일의 옛 시절이 어려와
그리도 후더우시였던가

세월은 압록에 실려 멀리도 흘러갔건만
대오를 이끄시고 조국에 진군하신
위대한 수령님 군화엔
아직도 백두의 흰눈 묻어있는듯
어깨우에 날리는 백포자락엔
오늘도 항일전의 눈보라 회오리치는듯

동상앞을 조용히 걸으시던 장군님
우리 수령님은 하늘이 낸 희세의 위인
총대로 이룩하신 조국해방업적은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라고
새벽대기를 올리시던 그 음성

오늘도 붉은기 이 언덕을 흔들어라

이 땅에 천지풍파 밀려와도
우리가 끝까지 가야 할 길은
수령님 행진을 풀지 못하신
붉은기 휘날리는 한길뿐이라고
선군혁명의 철리를 깊이 깨우쳐주시던
천출명장 우리의 **김정일**동지

누리를 향해
예지로 빛나시던 안팎
수령님 드신 쌍안경 마음속에 드시고
조국변영의 그날을 바라보시며
저력있게 걸으시던 장군님의 발자국소리
이 강산에 메아리로 울리나니

항일의 령장 우리 수령님
짓밟힌 조국땅에 해방의 총성 올리시고
선군령장 우리 장군님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해
백두의 준령 헤쳐온 저 붉은기앞에서
대고조총진군의 보폭을 짊으시던
압록강기슭 붉은기 날리는 언덕이며!

아, 세대와 세대를 이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고파를
이 나라의 천만심장들에
붉은기의 녋을 만대로 이어주며
어버이장군님 오르셨던 이 언덕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은 만리대공에 불길로 타
번진다
백두의 정신을 온 누리에 물들이며

과 원 의 봄 날 에

심 복 실

꽃송인가
눈송인가
목메이는 과원의 향기속으로
끝없이 걷고싶은 이 봄날

어찌하여 가슴속엔
눈이 내리는것인가
꽃향기 짙은 과원길을

정녕 나 홀로 걸을수 없구나

장군님과 함께라면
고난의 천리도 지척이더니
봄노래를 안은 사과처녀
가슴속 사무치는 이 그리움
꽃길 한자욱한자욱에 만리로 비졌어라

락원의 봄언덕으로 인민을 앞세우고
자신계선 할일이 그리도 많으시여
12월의 강행군길에 그냥 계시는가
분초를 쪼개고 또 쪼개시며
눈발속으로 끝없이 렬차행군 하시는가

기적소리 들려오네
언땅에 우등불을 지펴올리고
거름짐을 지어나른 겨울 그밤부터
꽃이 필 때까지
한시도 귀전에서 떠날줄 모르던
장군님 타신 야전렬차의 바퀴소리

눈송이 내리네
오늘의 이 화창한 봄이 펼쳐진
이 나라의 전야와 일터마다에
조국의 초소들과 대고조선투장마다에
12월의 눈송이가 어찌 녹으랴

피워서 우리 안겨드린 꽃보다도
오시여 장군님 피워주신 꽃이 더 많은 세월
가꾸어 우리 안겨드린 열매보다
품에 안아 장군님 무르익혀주신
열매가 더 많은 땅에
눈송이마저 꽃이 되고
꽃은 사랑의 축복이 되었구나

한평생 조국의 눈송이 많이도 맞으신
아버이의 끝나지 않은 12월의 강행군길
멈춤없는 사랑의 기적소리와 더불어
그 길에 이어진 락원의 꽃길로
사무치는 그리움의 대하가 흐르나니

아, 햇빛도 따사로운 파원의 봄날
소중한 사과꽃 한송이 한송이에서
천만송이 어려있는 눈송이를 안아본다
가슴속 사무치는 그리움의 만리에
열매주렁진 내 조국의 가을을 나는 본다

세 계 를 안 은 집

김 석 주

내 며칠전에 세계를 일주했노라
해쏜는 동방에서 해지는 서방
상록수의 나라
사막의 나라 백설의 나라
각이한 이름으로 부르는 나라들을

세계를 돌아보며 보았노라
수천년전 상형문자를 새긴 국보중 국보
온 가정 대를 이어가며 마련한 정성품
사막에서 피어난 신기한 모래꽃...

머나먼 대륙의 한끝에서
비행기를 몇번이나 갈아타면서도
가슴속 심장마냥 안고왔다는 조각이며
사나운 파도와 파도를 넘어
대양을 건너 갖고온 박제품...

국제친선전람관
내 하루에
지구상의 대양과 대륙을 다 지나온듯
수십억 인류의 마음을 다 안아본듯
걸음걸음 깊어지던 생각이여

수령님께 올린 선물 그 하나하나
이 세상 그 어디에 비길수 있으랴

거기에 깃든 인간의 지성의 아름다움을
그 순결함을
그 열렬함을

운명의 밝은 빛을 안겨주신
아버이수령님께 대한
흙모의 마음 얼마나 열렬했으면
인간의 지성이 이렇듯
아름다움의 절정에 이른것이라

나라마다의 력사와 문화 풍습이 있고
민족들의 슬기와 지혜 재능이 깃든것
자연이 수수천만년
햇빛과 바람 눈비로 깎고 다듬어온것...

그 진귀하고 희귀하고 신비한
이 세상 보화와 재부가 다 모여있고
온갖 정성을 다해 올린
만민의 깨끗한 마음이 모여있는 집

내 여기서 생각하노라
세계안에 조선이 있지만
인류의 태양 이 땅에 계시여
이 조선이 세계를 안고있는것이라고
세계가 수령님품에 안겨있는것이라고!

대홍단의 아침노을



조 상 호
그림 김광석

《엄마, 이젠 자자.》

온종일 얼음판에 나가 썰매를 타다 돌아온 덕삼은 뜨개질을 하는 엄마의 무릎을 베고 누워 이제는 들을대로 들은 《호랑이가 말을 하고 황소가 담배를 피우던 멀고도 먼 옛날옛적에...》를 또 듣다가 잠내나는 소리로 투정을 했다.

《먼저 자거라. 나야 장갑을 마저 떠야지.》

무명실로 부지런히 장갑을 뜨는 엄마의 눈에도 졸음이 실렸다. 낮에는 샷썰래, 샷바느질로 잠시도 쉴새 없었던 엄마지만 이밤엔 또 아들이 래일 나가 놀 때 손이 얼가봐 장갑을 떠야 하는 것이다.

《그럼 래일은 나도 장갑이 생기나?》

《생기잖구. 어서 자기나 하거라.》

《응.》

덕삼은 어느새 잠에 폴아떨어졌다. 온밤 꿈나라에서 헤매다가 《애 덕삼아, 어서 일어나거라. 순제가 놀자고 찾아왔다.》하는 소리에야 눈을 비비며 겨우 일어났다.

머리맡에는 장갑 한켠레가 놓여있고 밥상우에서는 이 빠진 사발에 골숨히 담긴 강낭죽이 김을 문문 피워올리고있었다.

《야, 좋네. 내 장갑...》

덕삼은 환성을 올렸다. 그 장갑을 뜨느라 엄마가 밤에 한잠도 자지 못했다는것쯤은 알려고도 안했다.

그 수고를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나이가 어렸다. 엄마는 응당 그래야 하는것으로 생각하는데 습관된 덕삼이었다.

...

갑자기 승용차가 들추었는지 몸이 들썩하는 느낌에 리덕삼은 깊은 상념에서 깨어났다. 아득히 흘러가버린 60여년전의 그 젖내 풍기는 추억이 어떻게 되어 이밤 번거로운 상념속으로 불쑥 뛰어들었는지 알수가 없었다. ...

리덕삼은 시무룩이 웃으며 승용차의 전자시계를 보았다. 밤 한시다. 승용차들은 지금 굽이굽이 령길을 따라 달리고있다. 량강도와 함경남도를 뒀결하는 령길이다. 아직도 평양까지는 아득히 멀다. 길우에서 꼬박 밤을 새울것 같다.

리덕삼은 앞차를 바라보았다. 빨간 뒤등을 켜고 달리는 저 앞차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신다. 대홍단군과 삼지연을 비롯한 량강도의 여러곳을 현지지도하시고 평양으로 돌아가시는 길이다.

리덕삼은 자기도 모르게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다. 희속희속 흰서리가 내리고 굽고 가는 주름살이 얼기설기 얹힌 그의 얼굴엔 어느덧 죄책의 어두운 그늘이 드리우기 시작했다. 장군님의 평양길이 이처럼 늦어진것이 바로 대홍단을 자진하여 맡고 내려갔던 자기가 일을 잘못하였기때문이라는 자책감이 다시금 마음을 괴롭혔던것이다. 나이 70이 다 돼오는 오늘까지도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일하지 못하고있는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자꾸만 명치끝을 지쳐댄다. 것처럼 민고 내세워주시는 장군님께서 비록 말씀은 안하시었지만 지금 이 전사를 두고 몹시 실망하고계시리라 생각하니 능력없는 자신이 원망스럽고 지어 서글프기까지 했

다. 어느 책엔가 《인생은 우리들이 인생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 벌써 절반이 지나간다.》고 써여 있더니 정말 자기야말로 일군이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알기도 전에 벌써 인생의 저녁길에 들어선 것이 아닌가.

리덕삼은 후 하고 긴숨을 몰아쉬며 물끄러미 차창밖으로 흘러가는 어둡던 산천을 내다보았다. (그런데 장군님께서는 무엇때문에 평양으로 함께 가야겠다고 하시였을가. 아침에 협의회가 있다고 하시더니 그때문은 아닌지...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리덕삼은 그 인상적인 두툽한 입술을 꼭 깨물고 앉아 지금까지 대홍단에서 해온 일들을 더듬어보았다. 그러자 자기가 지금껏 해온 일 가운데서 어 느 것 하나 만족스럽다고 할수 없다는 기막힌 사실이 또다시 마음을 무겁게 해주었다.

사실 리덕삼은 대홍단에 장군님을 모시기 전 까지만 해도 자기 사업에서 그렇게 빈구석이 많을 줄은 생각도 못했었다. 그것을 깨닫기 시작한것은 장군님을 모시고 체대군인마을로 가던 승용차안에서였다. 그때 장군님께서 《여기 대홍단에 탄원 해온 체대군인들과 처녀들 가운데서 지금까지 시집 장가간 동무가 몇명이나 되는가?》고 물으시었는데 덕삼은 한참이나 머뭇거리다가 《지금까지...》가 아닌 《한달전에 장악한데 의하면...》하고 여 물지 못한 대답을 올리였던것이다. 장군님께 드리는 보고는 언제나 정확하면서도 구체적이어야 한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리덕삼은 그렇게밖에 대답 할수 없는 자기를 두고 자못 심각해졌었다. 뻥뻥 하게 자기 사업을 돌이켜보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과연 그때부터 대홍단에서는 걸음마다 빈구석이 나타났었다....

어둡던 차창밖을 물끄러미 내다보는 덕삼의 눈 앞에는 어제 있었던 일들이 삼삼히 떠올랐다.

×

한낮무렵.

장군님을 모신 승용차는 아름다리 이깔나무들이 랑옆으로 줄을 지어 키높이 솟아오른 등판의 큰길을 따라 미끄러지듯 체대군인마을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길 왼쪽에서는 금빛으로 무르익은 밀보리가 파도치며 밀려오고 오른쪽에서는 하얀 꽃, 보라꽃들을 구름처럼 떠인 푸른 감자숲이 해별에 달 아오른 드넓은 밭을 빈구석없이 깔고앉아 침착하 게 감자알들을 살찌우고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승용차 뒤좌석에 앉아 차창유리를 내려놓고 만족한 눈길로 감자밭을 내 다보고계시였다. 승용차의 록음기에서는 흥겨운 민요가락이 흘러나오고있었다.

홍단수물결우에 황금빛 물들고
밀보리 설레이네 감자꽃 춤추네
...

그러나 장군님의 옆자리에 앉은 리덕삼은 방금전에 바로 그런(대홍단에 온 체대군인들과 처녀 들이 시집장가간 문제) 미흡한 대답을 드린것으로 하여 괴로운 마음을 안고 자기 사업을 돌이켜보고 있었다.

랑강도당에서 내부사업을 하다가 감자농사혁명방침이 나오자 이 어려운 때에 일군들부터 앞장 서서 장군님을 받들어야 한다면 자진하여 대홍단을 맡아나선 리덕삼이였다.

리덕삼이 대홍단으로 떠나려고 배낭을 꾸릴 때 마침 실습차로 내려왔던 손자(그는 지금 평양 연극영화대학 촬영학부에 다닌다.)는 감심해서 《그러니 대홍단이 할아버지의 졸업작품이 될 수 있겠구만요. 좋아요. 내 지원포를 싸줄게 한번 잘해보세요.》 하고 고무해주었다. 아닌게 아니라 손자는 그길로 장군님께서 전국의 모범으로 내세워주신 자강도의 곳곳을 찾아다니며 대홍단을 꾸리는데 참고로 될만 한것들을 죄다 사진찍어 보내주었다.

리덕삼은 대홍단에 배낭을 내려놓은 그날부터 사무실에 붙어있을새가 없이 발전소건설장으로, 감자연구소로, 포전으로 찾아다니며 걸린 문제를 토론해주고 방조도 주었다. 때로는 살림집건설장에 가 혼합물도 이겼고 체대군인들과 함께 거름을 나르기도 했으며 감자파종기에 올라 손수 운전도 해보았다. 전쟁때 입은 총상자리가 때없이 말썽을 부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자기도 모르게 앓음소리가 나가군 했지만 이른아침이면 언제 그랬던가싶게 찬 이슬을 차며 남먼저 포전으로 나가 군 했다. 쓰러져도 장군님의 뜻을 받들다가 밭고 랑에서 쓰러지겠다는것이 리덕삼의 드림없는 신조 였다.

그런데 이제 보니 가장 중요한 문제, 바로 감자 농사혁명의 직접적담당자인 체대군인을 비롯한 이 곳 인민들의 생활문제에 낮을 적게 돌려왔다는것을 자인하지 않을수가 없었던것이다.

《여기도 지금까지는 작황이 팬치 않구만. 다른

분장들보다 못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감자꽃이 늪실대는 밭에서 눈길을 떼지 않은채 하시는 말씀이었다.

제 생각에 움해있던 리덕삼은 그제서야 얼핏 감자밭을 내다보고나서 어쭙은 미소를 지으며 조심스러운 어조로 말씀드렸다.

《여기 분장에서든 제대군인들이 앞장서서 지난 해보다 거름을 정보당 10톤씩은 더 뺐습니다.》

장군님께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이번에는 앞좌석운전사 옆에 앉아있는 수행일군에게 말씀하시였다.

《그것 보오. 성국동무, 우리 제대군인들이 그렇게 일 잘한다는데 아무리 바쁘다 해도 만나보구 가야 옳은거야. 더구나 그 동무들이 새살림을 펴기 시작했다는데 집구경이라도 하고 가야지.》

아까 장군님께서 제대군인마을에 가보자고 하실때 그러지 않아도 시간을 너무 지체하셨다고, 다음번에 가보시면 어떤가고 간절히 말씀드렸던 윤성국은 몸을 뒤로 돌리며 또다시 안타까운 소리를 했다.

《장군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가셔야 할길이 2천리도 넘습니다. 게다가 길이 좋지 못해속력도 내지 못합니다.》

《2천리가 아니라 2만리라 해도 그래... 협의회는 래일 아침 9시에 하기로 되어있으니까... 그때까지는 도착하겠지?》

《글쎄 그러시면 또 로상에서 밤을... 여기 길은... 승용차가 들추어서 쪽잠도 주무시기 힘듭니다.》

《피곤하면야 차가 들춘다고 못 자겠나? 허허허, 너무 걱정마오.》

윤성국은 어쩔수 없는듯 나직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리다가 리덕삼에게 원망의 눈길을 던졌다. 그 눈길은 끝날처럼 덕삼의 가슴에 날아와 박혔다. 리덕삼은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찢어짐을 느끼며 슬며시 고개를 돌리고말았다.

(역시 내가 일을 잘못하고있기때문이다. 다 나 때문이야. ...)

장군님께서도 대흥단에 오신 그 순간부터 8월의 북더위(오늘따라 대흥단이 생겨 보기 드문 무더위였다.)도 마다하지 않고 밀보리밭, 감자밭들을 돌아보시였으며 따가운 해볕속에서 오래동안 포전에서 서서 감자파종기며 감자순치는기계, 감자수확기 등 각종 농기계들의 작업모습까지 일일이 보아주면서 이것은 이걸 고쳐라, 저것은 무엇을 고쳐라 하고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하시였다. 통알감자를

심은 포기를 뽑아 알수와 크기, 무게를 가늠해보시며 감자농사법도 하나하나 배워주고 앞으로 감자농사혁명을 일으키는데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문제 등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까지 세세히 밝혀주시였다. 그러다나니 예정보다 시간이 퍼그나 더 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대군인들을 만나보지 않고 가면 되겠는가고 하면서 또다시 이렇게 제대군인마을로 향하신것이다.

사실 이 리덕삼이가 일을 잘하였다면 장군님께서 이렇게까지 시간을 지체하시지는 않았을것이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일만 일이라고 뛰어다니면서 장군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대흥단사람들의 생활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리지 못했다는 바로 그것이었다.

윤성국이 무슨 지적을 해도 할말이 없었다. 아니, 이 사실을 알면 그뿐이 아니라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욕을 할것이다. 머리 허연 사람까지도 일을 제대로 못해 장군님께서 이렇게 로고를 바치시게 하면 어찌는가고...

손자는 격분해서 《할아버진 무슨 일을 그렇게 해요. 아직두 정신을 못 차렸어요?》 하고 대들지도 모른다. ...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합니까?》

장군님께서 덕삼의 손을 따듯이 잡아쥐며 물으시였다.

사실 지금까지 덕삼의 얼굴표정에 은근히 원심을 써오신 장군님이시였다. 덕삼이 당황한듯 얼굴을 붉히며 말끝을 얼버무렸다.

《뭐 별루...》

《힘이 들지요? 이제는 나이도 있는데...》

덕삼은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푹 떨구며 눈을 숨버거렸다.

《장군님,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일을 쓰게 못해서... 바쁘신 장군님께서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장군님께서도 생각깊은 눈길로 리덕삼을 바라보시였다.

리덕삼의 주름 깊은 얼굴에 자책의 그림자가 짙게 어려있었던것이다.

문득 리덕삼의 왼쪽눈확가까이에 생긴 팔알만한 검버섯이 눈에 띄이였다. 그러자 (덕삼동무도 이제 늙었구나.) 하는 생각이 새삼스레 들어 장군님께서도 가슴이 아릿해지는것을 어찌할수 없으시였다. 몇해전 그의 집을 찾아가시였을 때에는 이런 검버섯이 없었었다.

그것은 온 나라가 고난의 행군을 하던 때 있던

일이였다.

량강도당사업을 료해하시던 장군님께서는 도당에서 일하다 처벌을 받고 로동현장에 내려간 리덕삼이 다시 소생하지 못했다는데 주의를 돌리시였다.

리덕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아시는 일군이였다. 수령님께서는 언제인가 량강도의 리덕삼이가 일을 잘한다고 하시였었다. 그런 그가 주석단에만 앉다보니 점차 교만해져서 군중과 리탈되고 점점 안하무인격으로 놀다가 돌이킬수 없는 파오를 범하게 되였다. 그가 담당했던 군에서 큰 공장을 하나 건설하고있었는데 나이많은 주민들속에서 내가에 제방부터 든든히 쌓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지만 제품생산이 바쁘다면서 공장건설만 내밀다가 큰물이 나는통에 인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던것이다. 인민생활과 관련한 문제에는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할수가 없었다. 그래서 처벌을 받았는데 인차 년로보장나이가 되여 집에 들어간것이다.

장군님께서는 그의 운명이 걱정되어 어떻게 생활하고있는지 알아보라고 윤성국을 내려보내시였다. 윤성국은 기분이 좋지 않아서 돌아왔다.

리덕삼이 요즈음 낚시질이나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것이였다. 고기는 못 잡으면서도 매일 아침 낚시대를 메고 나갔다가 어두워져야 들어온다고 했다.

일부 신념이 없는 사람들이 고난의 행군길에서 떨어져나가기도 하던 준엄한 시기였다.

장군님께서는 가슴이 아프시였다. 그가 고기나 잡으려 낚시대를 메고 다닌다고는 생각되지 않으시였다.

장군님께서는 량강도를 현지도하실 때 시간을 내여 예고도 없이 그의 집을 찾으시였다.

집안에서는 늙은 어머니가 혼자 한되박 되나 마나한 강냉이를 땅에 타개다가 놀라 일어서며 어쩔줄 몰라했다. 인사를 하시는 장군님의 두손을 부여잡고 어깨를 떨며 울기 시작했다.

《장군님, 이 배은망덕한 로친을… 꾸짖어주시오다. 이 늙은게… 자식 하나 똑똑한걸 두지 못해서… 우리같이 불효막심한것들때문에… 우리 수령님께서… 그렇게 일찍 가신것만 같아서… 열백번 죽는다 한들 이 죄를… 어떻게 씻을수 있겠습니까. 립산에서랑 이 마을에서랑… 수령님을 뵈겠다구 평양으루, 금수산기념궁전(당시)으루 갈 때에두… 우리만은… 우리만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수령님 뵈오려두 못 가구… 어허이구, 장군님! 이

죄를 어찌하면 좋겠소다?》

장군님께서는 눈물을 찼찼 흘리는 늙은이의 잔약한 어깨를 꼭 안고 솟구치는 걱정을 애써 누르다가 이윽해서야 갈린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어머니, 우리 꼭 덕삼동무를 수령님앞에 몇몇이 내세웁시다.》

일군들이 리덕삼이를 데려왔다. 낚시대를 들고 후줄근히 서있는 그를 보며 장군님께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였던지 모른다. 남들이 수령님을 뵈오려 갈 때 함께 갈수 없는 자신을 두고 텅 빈 강변에 홀로 앉아 피눈물을 쏟으며 몸부림을 쳤을 그의 처절한 모습이 망막을 파고들어 가슴이 미여지시는듯 하였다.

리덕삼은 고개를 들념을 못했다. 수그린, 거뭇게 질린 얼굴에서 쏟아지는 눈물이 그의 흠뻑물은 로동화교송이에 똑똑 떨어져내렸다.

장군님께서는 솟구쳐오르는 련민의 정을 애써 누르시며 안타까이 말씀하시였다.

《덕삼동무! 동무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동무는 수령님께서 일 잘한다고 치하하신 일군이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마지막까지 일 잘하는 일군이 되어야지 어찌면 그렇게 배은망덕할수가 있습니까. 수령님께서 이렇게 낚시대나 들고다니는 동무를 보신다면 얼마나 가슴아파하시겠습니까?》

리덕삼은 풀썩 무릎을 꿇었다.

《장군님, 저는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전 이미 죽었어야 할 놈이었습니다. 저같은 놈이 어떻게 감히… 이 땅에서… 머리를 들구…》

리덕삼은 종내 말끝을 맺지 못하고 꼭— 하는 소리를 내더니 고개를 떨군채 와들와들 어깨를 떨기 시작했다.

장군님께서는 아픈 눈길로 그를 내려다보다가 결연히 머리를 가로저으시였다.

《아니, 동무는 다시 일어나 기어이 수령님께서 아시는 그런 일 잘하는 일군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시다. 어서 일어서시오. 수령님께서 아시는 리덕삼인 이런 참회나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장군님!》

리덕삼은 마침내 이렇게 목메여 부르며 장군님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

리덕삼은 그후 자기가 파오를 범하였던 군에 찾아가 큰물피해를 가시고 제방을 새로 쌓는 일에 뛰어들어 메질도 하고 목고도 하였다. 제방이 완성되는 날 그는 사람들앞에서 눈물을 머금고 사죄를 하였다. 그가 돌격대원들과 함께 한가마밥을

먹으며 아글타글 노력하는것을 보니 정말 달라졌다고, 그를 용서해주면 좋겠다고 하면서 인민들이 당조직을 찾아왔다.

그 소식을 듣고 장군님께서 정말 기쁘시였었다. 그리하여 리덕삼은 다시 본래의 자기 직무에서 일하게 되었다....

장군님께서는 그런 리덕삼이가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을 관철하자고 대흥단으로 달려나와 제대군인들과 함께 거름집까지 진다는 보고를 받으시었을 때 자신의 믿음과 기대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시였다. 그러면서 이젠 나이가 적지 않은 그가 그러다 쓰러지면 어쩌랴 하는 걱정이 크시였었다.

그런데 리덕삼은 지금 대흥단에서 일하는 과정에 나타난 결함들을 두고 이리도 피로와하고있는 것이다.

장군님께서는 미더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다가 알릴듯말듯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자기 사업에서 결함을 찾을 줄 안다는것은 벌써 발전했다는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전쟁때 입은 총상자리는 좀 어떻습니까?》

리덕삼은 일도 변변히 못하는 전사의 총상자리까지 잊지 않고 걱정해주시는 장군님의 그 세심한 보살핌에 눈곱이 시큰해움을 느끼며 물먹은 소리를 했다.

《장군님, 총상자리는 이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덕삼동무는 건강에 특별히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리덕삼은 목이 메어왔다. 이런 각별한 사랑과 믿음속에 살면서도 보답 못하고있는 자기였다.

승용차는 어느덧 제대군인마을로 가는 갈림길에 들어섰다.

《그래 아들과 손자에게서는 편지가 자주 옵니까? 손자는 평양연극영화대학에 다닌다고 했던것 같은데?...》

리덕삼은 감심한 어조로 전연에서 부대장을 하는 아들한테서는 한달전에 경애하는 장군님을 부대에 모시였었다는 편지를 받았고 손자에게서는 얼마전에 이런 사진까지 보내왔다면서 품속에서 두툼한 편지봉투채로 꺼내어 장군님께 드렸다. 장군님께서는 봉투에서 사진들을 꺼내보다가 의아한 표정을 지으시였다.

《이건 자강도의 띄우개식발전소가 아닙니까? 이건 희천려관... 강계의 뽕밭... 이건 장강의 살림집...》

리덕삼은 어쭙게 웃으며 대흥단으로 떠나올 때 손자와 나눈 이야기를 말씀드렸다.

《허허허, 졸업작품에 지원포라... 그러니 이게 그 지원포로구만. 생각이 기특합니다. 재간도 있고... 꼭 예술사진같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사진들을 도로 넘겨주며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정말 좋은 인민입니다.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오늘의 강행군을 어떻게 이겨내겠는가 이 한가지 생각에만 집념하며 투쟁하고있습니다.》

그랬다. 모두가 다 힘차게 강행군을 하고있다. 자강도사람들도 대흥단사람들도... 온 나라가 다...

하지만 이 리덕삼이만은...

리덕삼은 또다시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제대군인마을에서는 또 어떤 결함들이 나타나겠는지 모른다. 제대군인들이 새집들이를 한 다음에는 이젠 한시를 놓았다고 하면서 한번도 가보지 못했던것이다.

승용차는 제대군인마을앞에서 벗어났다.

백두대지의 풍치에 맞게 뽕죽지붕을 얹은 알뜰한 살림집들이 나지막한 산기슭에 두줄로 늘어서 있었다. 리덕삼이 직접 설계를 보아주고 앞장에서 지은, 말하자면 그 역시 리덕삼의 졸업작품의 한페이지라고 할수 있는 살림집들이였다. 리덕삼은 이 졸업작품에 대해서는 장군님께서 어떤 점수를 주시겠는지 하는 조바심을 안고 승용차에서 내렸다.

장군님께서 먼저 2층으로 지은 살림집마당에 들어서시는데 포전에서 일하다가 연락을 받았는지 젊은 부부가 땀을 흘리며 뛰어왔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특무상사 최남철...》

장군님께 손을 번쩍 들어 거수경례를 하던 청년은 그제야 자기가 군복을 벗은 제대군인이라는것을 깨달았는지 얼굴을 붉히며 꾸벅 허리를 굽혀 절을 했다.

《장군님, 안녕하십니까?》

덕삼이 민망해서 쳐다보는데 장군님께서는 껄껄 웃으시며 그의 어깨를 두드리주시였다.

《괜찮아. 자기를 아직 군인처럼 생각하는데 습관된 그것이 마음에 든단 말이요. 허허허... 그런데 낮이 익은것 같다. ... 이름이 뭐라구?》

그러자 청년이 기름한 얼굴에 벙글벙글 웃음을 가득 담으며 말씀드렸다.

《최남철입니다. 장군님께서 우리 전대에 오

졌을 때 얼굴에 기름이 묻었다고 손수 손수건으로 닦아주시던…》

《아! 갑판장… 맞아, 함의 전투준비를 완성하는데서 공로가 컸다고 했지. 군복을 벗으니 몰라보겠구만.》

덕삼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정말 장군님의 기억력은 비상하시였다. 것처럼 수많은 전사들을 매일처럼 만나보시면서도 인제인가 얼핏 만났을 한 전사를 잊지 않고계시는 장군님이시였다.

《장군님, 저의 안해입니다.》

최남철이 자기뒤에 섰던 안해를 소개해드렸다. 머리수건을 벗어주고 눈물이 글썽해서 장군님을 우러르던 그의 안해가 한결음 나서며 깊숙이 허리를 굽혔다.

《장군님, 것처럼 바쁘신데 저의 집까지 찾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장군님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인사를 받으시였다.

《고맙다는 말이야 내가 해야지. 동무들은 당의 뜻을 받들자고 조국땅 한끝인 여기 대흥단에까지 오지 않았나. 장해… 아주 좋아.》

만면에 함뿍 미소를 담으며 대견해서 그들의 어깨를 두드리주시던 장군님께서는 이제 집구경을 좀 하자면서 부부를 앞세우고 방안으로 향하시였다. 아래방 정면에는 어버이수령님과 장군님의 초상화 그리고 어느 대회에서 찍은듯 한 기념사진 한상이 모셔져있고 그 왼쪽벽에는 해군복이 걸려있었다. 장군님께서는 기념사진을 더욱도록 올려다보다가 남철에게 어디에 서서 사진을 찍었는가 물으시였다.

남철이 흥분해서 중간어름을 가리켜드렸다.

《어디? 어디라구? 아! 있구만… 음, 그만하면 알아보겠어.》

사진에서 그의 얼굴을 알아볼수 있는것이 기쁘시여 웃으시는 장군님을 우러르던 리덕삼은 가슴이 뭉클해와 얼른 고개를 수그렸다. 자기는 언제한번 이들과 그런 기쁨을 나누어본적이 없었던 것이다.

장군님께서는 이번엔 벽에 걸어놓은 해군복의 하얀 가림천을 들고 웃웃에 달아놓은 훈장을 하나 하나 세여보시였다.

《훈장을 많이 탔구만, 대단해. 정말 군사복무를 잘했소.》

그러시고는 리덕삼이네를 돌아보며 최남철이를 자랑하시였다.

《이 동무가 바로 함대의 싸움준비를 완성하는데 큰 기여를 한 동무요. 이번엔 또 당에서 부르는 이 대흥단으로 달려왔소. 얼마나 훌륭한 동무요. 이런 동무들이 이제 여기 대흥단에서 한몫하게 될거요.》

리덕삼이 감심한 표정을 지으며 말씀드렸다.

《정말 제대군인동무들이 일을 잘합니다. 올해 봄 진눈까비가 너무 내려 수송기재들이 움직일수 없게 되자 병사시절 본때로 붉은기를 날리고 나팔을 불면서 거름을 지구 안구 달려 며칠사이에 1 000톤을 모두 밭에 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장한 일을 한 친자식들의 자랑을 듣는 어버이처럼 환하게 웃으시며 《아주 잘했소. 그런 군인정신이 온 나라에 꼭 차넘치게 하라고 이 동무들을 보낸거요.》 하고 만족해하시였다.

그러던 장군님께서는 벽지문양을 보다가 구석에 얼룩이 간것 같은데 비가 새지 않는가고 물으시였다.

덕삼은 바짝 긴장해져서 남철을 돌아보았다. 그런것까지는 알아볼 생각도 못했던 덕삼이였다. 남철이 비가 새지 않는다고 하자 장군님께서는 불을 한번 켜보라고 하시였다. 불을 켜고 자세히 보고서야 《비는 새지 않는것 같구만.》 하며 마음을 놓으시였다. 그러시고는 방바닥을 짚어보며 전기난방이 이런 정도면 대흥단의 추위를 막을수 있겠는가 재삼 알아보고나서 부엌으로 나가시였다. 첫살림에 부족한것은 없는지 녀려되어 찬장의 그릇들도 세여보고 가마뚜정과 단지들까지 일일이 열여보시였다.

《간장, 된장은 일없는것 같은데… 기름과 소금이 부족한것 같구만. 기름과 소금을 언제 공급했소?》

리덕삼은 또 대답을 못했다.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그것 역시 빈구석이었던것이다.

《제가 미쳐… 관심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서운한 어조로 나직이 뇌이시였다.

《감자를 많이 먹는 곳인데… 다른건 몰라도 소금이 부족해서야 안되지. …》

리덕삼이 눈을 습벅이며 조심히 말씀드렸다.

《인차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주오. 당장 해결하기 힘들면 군대에 정제소금공장을 세워주었는데 거기서 한 1 000톤 먼저 돌려쓰도록 하오.》

장군님께서는 무엇이 더 부족한게 없겠는가 해서 두손을 허리에 얹고 부엌을 둘러보다가 다시 웃방으로 향하시였다.

윤성국이 얼른 따라들어서며 이젠 그만 떠나서야겠다고 나직이 말씀드렸다.

장군님께서는 민망한 눈길로 그를 돌아보시었다.

《좀 가만있소.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이야기라도 몇마디 나누고 가야지.》

그러시고는 옷방 침대에 걸터앉으며 남철이네 부부보고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시었다.

《어쩡소. 남철동무, 집이 마음에 드나?》

《마음에 듭니다.》 남철의 씩씩한 대답이었다.

《내아이니까 그저 마음에 든다누만, 허허허.》

장군님께서는 웃으며 덕삼을 돌아보시었다.

《덕삼동무, 다른 집들도 다 이렇게 한방씩만 전기난방을 하였습니까?》

덕삼은 송구스러운 어조로 아직 전기가 풍족치 못해 그렇게 하였다고 말씀드렸다.

장군님께서는 고개를 가로저으시었다.

《그러면 추울 때에는 다른 방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빨리 중소형발전소들을 더 건설해서 모든 방들을 다 전기난방하여야겠습니까.》

장군님께서는 수첩에 부지런히 가르치심을 적는 덕삼에게서 남철에게로 눈길을 돌리시었다.

《남철동무 고향이 평양이라고 했지? 안해는 장령의 딸이구... 부부가 다 농사일은 처음일텐데... 어때, 일이 힘들지?》

《장군님, 힘들어도 이겨낼수 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었다.

《웁소, 힘들어도 이겨내야 하오. 동무들은 이 대흥단을 꾸리구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는데서 선구자가 되어야 해. 그래서 동무들을 보낸거요.》

그래 출퇴근은 어떻게 하오?》

최남철이 쑥스러운듯 손을 뒤더수기로 가져가는데 리덕삼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드렸다.

《일하러도 쌍쌍이 나가고 들어올 때도 쌍쌍이 들어옵니다.》

그러자 모여섰던 사람들이 모두 가볍게 웃었다.

장군님께서도 《쌍쌍이라.》 하며 웃으시다가 도리머리를 하시었다.

《그렇게 되면 녀성들은 바쁘겠는데... 녀성들은 좀 먼저 들어와야 밥도 짓구 찬도 한가지라도 더 만들수 있을게 아니겠소. 남자들이란 집에 들어서자마자 밥상을 척 받쳐주어야 제 안해를 더 고와한단 말이요. 그렇지 않소? 남철동무.》

남철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볼을 슬슬 긁었다.

《사실 그렇기는 한데...》

그러자 사람들이 또 즐겁게 웃었다.

《그것 보란 말이요.》 하며 장군님께서도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리덕삼은 더운것을 삼키며 이제부터는 녀성들을 한 30분 먼저 들여보내게 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아니, 30분은 작소. 한시간은 먼저 들여보내야 합니다.》

장군님께서는 다시 남철을 보며 언제 결혼했는가고 물으시었다.

《여기 대흥단으로 오기 며칠전에 했습니다.》

《그러니 몇달동안은 합숙에서 서로 떨어져 살았겠구만. 잔치한 다음엔 제격 새집에 들어가 첫살림을 펴야 사는 재미가 있는데... 집이 그리웠겠소.》

장군님의 다심한 녀려의 말씀에 남철은 눈곱이 축축해져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사실 그런 생각도 좀 있었지만... 하지만 이렇게 멋있는 새집이 일떠서고있는걸 보니 힘이 더 생기군 했습니다.》

《그래...》

장군님께서는 미더운 눈길로 남철을 여겨보다가 정녀에게 고개를 돌리며 누가 들을세라 속삭이듯 물으시었다.

《어때, 이젠 애기를 가졌나?》

《예?》

처음엔 미처 영문을 모르고 의아한 눈길을 들었던 정녀는 그제서야 말씀의 뜻을 알아차리고 《어머어마.》 하며 얼른 손등으로 입을 가리웠다. 순간에 귀밀이 빨개진 정녀는 부끄러워 어쩔바를 몰라했다.

장군님께서는 그러는 정녀가 더욱 사랑스러워 만면에 가득 미소를 담고 보시다가 다시 남들이 듣지 못하게 은근한 어조로 《일없어. 어려워 말구 다 말하라구. 다른 녀동무들도 애기를 가진 동무들이 많지?》 하고 물으시었다.

《예, 우리 분장에만도 한 절반은...》

장군님께서는 수줍음과 행복감으로 얼굴전체가 익은 고추처럼 빨개진 정녀의 어깨를 다정히 두드려주시며 리덕삼에게 시선을 돌리시었다.

《잊지 말고 미역도 충분히 실어다놓아야겠습니까. 꼴파 닭알도 넉넉히 준비해놓고... 당장은 과일과... 잉어 같은 물고기를 보내주고 앞으로는 애기옷과 포단, 팔랭이 같은 장난감들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애기들이 많이 태어날텐데 군병원의 산부인과도 크게 확장해야겠습니까. 제대군인만도 1 000명이 넘지 않습니다. 출잡아도 인차 천명은 태어날텐데... 서둘러야겠습니까. 평양산원

못지 않게 설비도 좋은것으로 보내주고… 조산원들도 보내주고… 당장은 평양산원에서 이동치료봉사대를 보내줄시다.》

덕삼은 그만 가슴이 쿵하고 울리면서 불몽치 같은것이 울걱 목구멍을 지지며 솟구쳐오르는것을 어찌할수가 없었다. 눈굽이 시큰하고 코안이 매워났다. 세상에 친어머니인들 이보다 더 세심하고 뜨거우라싶었다. 정녕 우리 장군님이시야말로 이 세상 그 어느 어머니도 못 따를 세상에 한분밖에 없는 위대한 어버이이신것이다.

리덕삼은 불몽치같은것을 애써 삼키며 장군님의 말씀을 마디마디 심장에 조각처럼 새겨넣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일군들이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일할것을 바라고계시는지 그리고 주관적으로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한다고 해온 자기가 왜서 오늘같은 결함들을 또 범하게 되었는지 어렴풋하게나마 느끼게 되는듯싶었다. 그러나 아직은 이것때문이다 하고 딱히 짚어 말할수가 없었다. 덕삼이 자기로서는 전혀 상상도 못해본 보다 크고 심원한 세계가 분명했다.

장군님께서 다시 남철이네 부부에게 고개를 돌리며 애로되는것이라든가 부탁할것이 없는가 다정히 물으시었다. 남철이와 정녀가 없다고 말씀드리자 오히려 서운한듯 한 안색으로 《자꾸 없다구만 하지 말구… 다 말하라우. 동무들의 요구라면 내 다 풀어주겠어. 그 어떤것이라도 다…》 하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자 최남철이 경건히 간절한 어조로 말씀드렸다.

《장군님, 우리의 소원은 장군님의 안녕뿐입니다. 장군님만 건강하시면 우린… 우린 더 바랄게 없습니다.》

장군님께서 미더운 눈길로 남철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시었다.

《고맙소. 그렇다면 내가 좀 부탁을 하자구. 난 수령님의 유훈대로 이 대홍단을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사회주의리상촌으로 꾸리자고 하오. 그래서 온 나라가 대홍단을 따라배우게 하자는거요. 그러니 동무들은 강성국가건설의 기본전선을 담당한 혁명가들이고 선봉투사들이요. 내 지원포를 아낌없이 팡팡 쏘줄테니 동무들은 병사시절처럼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일당백의 그 기백으로 이 땅위에 하루빨리 본보기농장을 꾸려놓아야 하오. 어떻소, 할수 있겠소?》

《할수 있습니다. 장군님의 믿음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최남철이 후더운 열기를 뿜으며 힘있게 대답드렸다.

《좋소, 아주 좋아. 이제 태여날 후대들은 동무들의 청춘시절을 두고두고 아름답게 추억하게 될것이요.》

장군님께서 남철의 어깨를 두드려주시며 이 동무들에게 무엇을 더 해줄것이 없겠는가 해서 세심한 눈길로 다시한번 방안을 둘러보고나서야 자리에서 일어서시었다. 그런데 어느새 무릅없어진 정녀가 친아버지인듯 장군님의 팔을 끼고 계단을 내리다가 웅석기어린 어조로 《장군님, 한가지 청이 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장군님께서 그 말이 반가와 《글쎄 그러면 그럴것지. 없을수가 있나. 그래 그 청이 뭐요?》 하며 대견해서 정녀를 내려다보시었다.

《장군님, 우리가 이렇게 좋은 집에 새집들이를 했는데 아직 시부모님도 친정에서도 못 왔었습니다.》

그러던 정녀의 목소리가 급기야 젖어들었다. 그러자 장군님께서 가슴이 아릿해움을 느끼시며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따듯이 위로해주시었다.

《섭섭해말라우, 어찌겠나. 집이 멀리 떨어져있으니 그랬겠지.》

정녀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러는 그의 크고 검은 눈에 또다시 눈물이 가득 실려오르더니 량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다. 정녀는 울먹울먹하면서 울음에 짝 잠긴 젖은 소리로 떠듬떠듬 말씀드렸다.

《장군님, 섭섭한게 아니라… 장군님을 이렇게 모신것이 너무도 기쁘구… 너무도 행복스러워서… 지금두 꼭… 꿈을 꾸는것 같습니다. 시부모님도 저의 어머님도… 다 못 왔는데… 아버지장군님께서 제일먼저… 이 먼곳까지 오셔서 첫살림을 편 우리를… 축복해주시구 이렇게 살림살이를 보살펴주시구… 장군님, 저희들과 함께 사진을 한장 찍어주십시오. 정말… 장군님은… 우리 친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장군님을 모시고… 가족사진을… 찍고싶…》

정녀는 뜨거운것을 삼키다가 끝내 말을 잊지 못하고 흐읍— 하고 흐느끼며 장군님의 팔에 얼굴을 묻었다.

장군님께서 가슴이 후터워지시었다. 정말 사랑이 가고 정이 가는 아들딸 같은 이 청년들과 사진을 찍고싶으시었다. 이 훌륭한 젊은이들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된다면 무슨 일이라도 다 해주고

싶으시었다.

《그래, 찍어야지. 가족사진을 찍자구.… 가만, 그런데 정너는 자꾸 울기만 하누만. 울지 말라구. 울면 사진이 잘 안돼.…》

장군님께서는 감격과 행복으로 흐느끼는 남철이네 부부를 달래이며 집을 배경으로 마당가에 서시었다. 마당가에는 해바라기가 활짝 피어 행복에 겨워 웃고있었다. 장군님을 친아버지처럼 가운데 모시고 가족사진을 찍는 부부를 축복하는듯 하늘에서는 산새가 빙쭈쭈 하고 노래를 부르 고있었다.

리덕삼은 가슴이 달아오름을 느끼며 사진을 찍는 모습을 이윽도록 우러르고있었다. 자기도 모르게 숨소리가 높아졌다. 정녕 저 모습이야말로 친아버이를 모신 한가정, 한식술의 숭엄한 화폭이 아닌가.

사진을 찍으신 장군님께서는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시며 건강해서 일을 잘하라고 부부의 어깨를 두드려주시고나서 곧장 그앞의 단층집으로 향하시었다. 그 집은 땅크병출신네 집이였다.

윤성국이 당황해서 황황히 따라서며 안타까이 말썸드렸다.

《장군님, 이젠 정말 시간이… 사실 여기 살림 집들은 구조가 다 어슷비슷하다고 합니다.》

리덕삼이도 그제서야 자기 위치를 새삼스레 자각하며 간절히 아뢰었다.

《장군님, 우리 제대군인동무들은 장군님께서 남철동무네 집을 찾아주신것을 모두 자기네 집을 찾아주신것으로 생각할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여기 살림집들은 구조가 다 같습니다.》

그러자 장군님께서는 저으기 섭섭한 표정을 지으시었다.

《뭐가 같고 뭐가 엇비슷합니까. 이 집은 2층이고 저 집은 단층이 아닙니까. 그리고 제대군인동무들은 그렇게 리해한다 해도 난 다르오. 보고감시다. 저런 단층집은 또 어떤지 아무리 바빠도 난 보고가야 마음이 놓이겠소.》

장군님께서는 결연히 그 땅크병네 집으로 향하시었다. 이웃해서 서있는 집들인데 웃집만 보고 아래집에 가보지 않으면 땅크병네가 섭섭해할것 같기도 했고 또 한집만 보고서는 제대군인들의 생활을 다 알수가 없다고 생각하시였기때문이었다.

장군님께서는 땅크병출신네 집에 들어서자 품을 놓고 살림살이형편을 알아보시면서 고향이야기며 군사복무하던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이제 프락

포르랑 현대적농기계를 더 많이 보내줄테니 땅크병의 솜씨를 보이라고 고무해주기도 하시었다. 그리고는 환하게 웃으시며 그들과도 또 가족사진을 찍으시었다.

덕삼은 불시에 가슴이 뭉클해왔다.

그들이 부러웠다. 그에게는 아직 저처럼 장군님을 직접 모시고 찍은 사진이 한상도 없었던것이다. 하지만 일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하는 생각으로 감히 장군님께 청을 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부러운 눈길로 바라만 보던 덕삼은 갑자기 눈이 둥그래졌다. 사진을 찍은 땅크병출신의 안해가 장군님의 손을 자기쪽으로 살며시 잡아끌며 무엇이랴 소곤소곤 속삭이기 시작했던것이다. 그러는 그의 얼굴은 활짝 붉어져있었다. 허리를 굽히고 귀속말을 들으시는 장군님의 안팡에 대뜸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 녀성은 지어 저의 남편도 듣지 못하게 자기쪽으로 장군님의 팔을 더 바짝 잡아당기고 소곤소곤거린다.

《그래… 그래…》 하며 고개를 끄덕이시던 장군님께서 어정쩡해서있는 남편을 얼핏 보고 웃으시더니 그에게 다시 귀속말로 무어라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는 장군님의 팔을 잡아 흔들기까지 하며 또 무어라 속살거렸다. 마치 친아버지에게 무엇인가 해내라고 떼를 쓰며 응석을 부리는 친딸 같았다. 사람들은 모두 눈들이 커졌다. 가족사진을 찍느라 사람들과 거리가 있었던데다가 제 남편도 못 듣게 속삭인 귀속말이라 그 내용은 누구도 알수 없었다.

덕삼이도 그 모습에 어쩐지 가슴이 후터워지면서도 호기심이 가득해지는것을 어찌할수가 없었다.

장군님께서는 마침내 허리를 펴며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장군님께서는 이윽하여 땅크병출신네 집을 나서시며 덕삼에게 말씀하시었다.

《이 집에 와보기 잘했소. 앞으로는 이 동무네 집처럼 살림집들을 단층집으로 지어야 하겠소. 대홍단은 바람이 세찬 곳이기때문에 2층짜리보다 단층짜리 집을 많이 지어야 합니다. 집은 보기에든 좋을뿐아니라 기본은… 살기가 좋게 지어야 합니다.》

덕삼은 심각한 자책속에 장군님의 말씀을 받아안았다. 제대군인들에 대한 장군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가를 느끼면 느낄수록 자신에 대한 한결이 더더욱 커지는 덕삼이었다.

사실 리덕삼은 1 000명도 넘는 제대군인들과 수

백명의 처녀들이 대홍단을 쫓피우자고 달려왔을 때 이들에게 살림집을 잘 지어주고 하루빨리 새 살림을 펴수 있게 해주는것만도 큰것이라고 하면서 기본은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을 관철하고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는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이들이 정말 내 아들딸이라면 새집이나 지어주는것으로 만족할수 있었겠는가.

덕삼은 아래입술을 피나게 깨물었다.

나는 역시 일군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고통스러운 감정이 가슴 한복판을 찢 가르며 밀려들었다. 오늘 제대군인들의 집들을 돌아보시며 장군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은 그대로 일군 리덕삼 자신에 대한 준절한 깨우침이기도 했다. 아, 말로는 어머니심정으로 사람들을 돌보겠다고 하면서 스스로 자신에게 채찍을 들기도 하였지만 왜 자꾸 이렇게 되는것인가. 왜? 왜?...

덕삼은 피로왔다.

더구나 무심히 스칠수 없는것은 장군님께서 땅 크병출신의 집을 나서신 그 순간부터 때없이 깊은 사색에 잠기곤 하시는데였다. 무엇때문인지 도저히 알수 없었다. 혹시 나의 사업에서 생긴 그 미흡한 점들때문은 아닌지...

×

승용차가 갑자기 멈춰서는 바람에 리덕삼은 다시 생각에서 깨어났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30분이다. 차창밖은 벌써 푸름푸름 밝아오고있었다.

앞뒤에서 차문 여닫기는 소리가 나는것 같았다. 어렴풋한 젖빛대기속에 사람들이 움직이는것이 보이는듯 했다. 덕삼이도 의아해서 차에서 내렸다.

물안개가 굵실대며 피어오르는 내가에서 장군님께서 세면을 하고계셨다. 장군님의 차옆에는 윤성국이가 서서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나직한 어조로 속삭이듯 말하고있었다.

《모두 자기 차로 돌아가십시오. 장군님께서 차행군에 피곤하겠는데 잠간이라도 눈을 좀 붙이라고 하시였습니다. 이런 속도면 능히 자기 시간에 평양에 가낼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러는 그의 음성은 펍 갈려있었다. 수원들은 선뜻 자리를 뜰념을 못했다. 장군님께서 또 한밤을 지새우시었구나 하는 가슴아픈 생각에서였다.

덕삼은 더욱 그랬다. 더구나 지금껏 궁금했던 문제들중에 자기의 평양행내막만은 윤성국이 알고 있을것 같아 주춤주춤 그앞으로 다가갔다.

《덕삼동무는 왜 가서 쉬지 않습니까?》

《전 좀... 생각되는것이 있어서... 성국동무... 내가 알면 안되는 일입니까? 장군님께서 저를 보고 왜 함께 가자고 하시였는지... 혹시 회의때문이라면 제가 이제라도 무슨 자료들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는지 해서...》

윤성국이 머뭇거리는 덕삼을 흘끗 쳐다보더니 긴숨을 내그었다.

《준비할것은 없습니다. 사실 장군님께서는 덕삼동무의 건강이 걱정되시여 평양의 큰 병원에 데리고가 종합검진을 해보아야겠다고...》

덕삼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예? 아니, 그럼 그때문에 이렇게...》

《장군님께서 얼마나 심려하시였는지 모릅니다, 얼굴이 몹시 축갔다고... 얼굴에 검버섯이 생긴걸 보니 가슴이 아프다고 하시면서...》

덕삼은 멍하니 그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콧 솟아올라 급기야 입술을 깨물며 황황히 고개를 외로 꺾었다. 불물같은것을 애써 삼키다가 와락 그의 손을 잡아쥐며 목메인 소리를 했다.

《그런걸 모르구 난... 윤성국동무, 난 돌아가겠소. 난 아무렇지도 않소. 정말이요. 내 이제 이 몸이 뭐 아깝겠소. 장군님께 그렇게 말씀드려주. 내야 빛이 많은 사람이 아니요. 제발 장군님께 그렇게...》

윤성국이 그의 손을 뿌리쳤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장군님께서 마음 놓으실것 같습니까? 제발 좀 그러지 마십시오. 장군님께서 그런 문제에까지 다시는 마음쓰시게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마음쓰실 일이 많은데... 장군님께서 밤새 휴식 한번 하신줄 압니까. 지금껏 문건들을 보시느라구... 쪽잠마저도 못 드시구...》

이때 장군님께서 수건으로 얼굴을 훔치며 다가오시였다. 밤을 꼬박 새우시였는데도 그이의 온몸에서는 새벽대기와 같은 청신한 기운이 풍겼다. 젖빛안개가 그이의 아래도리에 휘감기며 따라왔다.

《덕삼동무는 왜 쉬지 않고 나왔습니까?》

덕삼은 코안이 매워움을 느끼며 떠듬떠듬 말씀드렸다.

《장군님, 제... 정말 면목이...》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장군님께서는 의아해서 윤성국이와 덕삼을 갈라보다가 짐작이 되신듯 웃으며 그럼 새벽공기도 좋은데 이야기나 좀 하고 가자고 하시였다.

《그래 무엇때문에 면목이 없다는겁니까?》

장군님께서는 길옆 자그마한 돌우에 앉으시며 자리를 권하시였다. 덕삼은 앉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장군님, 전 확실히 사람들의 생활문제에는 관심을 깊이 돌리지 못했습니다.…》

《어서 앉아 말하십시오. 그래 그걸 말하자고 이렇게 찾아왔습니까?》

《저…》

장군님께서는 미더운 눈길로 덕삼을 보시다가 고개를 돌려 새벽안개가 굽실대는 내가에 시선을 주시며 생각깊은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나도 어제 대홍단의 그 녀동무가 한 말을 두고 생각이 많았습니다. 새살림을 시작했는데 시집에서도 친정에서도 아직 오지 못했다고 하는 말을 말입니다.

예로부터 부모들은 자식들이 가정을 이루고 새살림을 떠면 의례히 찾아가 축복해주고 살림을 보살펴주는것을 웅당한 의무로, 권리로 여겨왔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고상한 도덕률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 부족한것은 무엇인지, 당장 도와주어야 할것은 무엇인지… 보고싶고 알고싶은것이 오죽 많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민은 지금 그 모든것을 가슴깊이 묻어두고 오직 시대앞에 지닌 자기 의무를 리행하려고 아글타글하고있습니다. 우리 당을 따라 이 땅에 기어이 강성국가를 일떠세우자고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있습니다. 귀한 자식들의 운명도 미래도 다 우리에게 맡기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모구실을 해야 할게 아닙니까. 자기가 데리고 일하는 사람들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돌보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것은 강행군길을 가는 오늘 더더욱 심각한 문제로 나서고있습니다.》

리덕삼은 고개를 떨군채 자책에 잠겨 말했다.

《저는… 그런 심정으로 일하지 못하였습니다.》

장군님께서는 그의 마음이 가늠되시여 알릴락말락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사실 부모의 심정을 가진다는게 말처럼 쉬운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민이 어머니당이라 부르는 당의 일군들인것만큼 웅당 그것이 체질화되고 본능화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자기 친아들딸로 생각하는데 습관되고 거기서 한치도 리탈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아까 인민군부대장들에게도 체대군인들이 어디에 가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아는가고 물어보았는데… 사실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그 어딜 가도 관심이 깊은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엇 하나 색다른게 생겨도 멀리 가있

는 자식들부터 생각하고…》

리덕삼은 머리를 들수가 없었다. 장군님께서 우리 일군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뜨거운 인정의 세계에서 너무도 뒤떨어져 살고있는 자신을 통절히 느꼈다. 리덕삼은 두주먹을 짹 움켜쥐며 새로운 맹세가 담긴 어조로 말씀드렸다.

《알겠습니다. 장군님, 제 이제 돌아가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명심하고 정말 일을 잘하겠습니다. 장군님, 전 이길로 대홍단에 돌아가겠습니다. 허락해주십시오.》

장군님께서는 의아한 눈길로 덕삼을 돌아보시였다.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그러지 마시오. 동무는 이제 평양에 가 종합검진을 받고 료양을 가야 합니다.》

《장군님!》

리덕삼은 목이 자꾸 메여움을 느끼며 간절한 어조로 말씀드렸다.

《장군님, 전… 제몸은 정말… 일없습니다. 제가 이제 몇년을 더 일하겠습니다. 장군님, 소원입니다. 전 쓰러져도 장군님의 뜻을 받들다가 발머리에 쓰러지고 싶습니다.》

장군님께서는 놀란 표정으로 덕삼을 주시하다가 《음…》 하며 자리에서 일어서시였다. 뒤집을 지고 안개가 피어오르는 내가를 잠시 거니시다가 약간 갈린 음성으로 혼자말씀처럼 뇌이시였다.

《그러니 졸업작품이란 소리도 공연한 말이 아니었구만. 졸업이라…》

어쩐지 허전해하시는듯 한 그 말씀에 덕삼은 가슴이 빠근해져서 눈을 내리깔았다. 그러면서도 이제 돌아가면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순직하는 그 순간까지 온몸을 깡그리 불태우며 일해야겠다는 그 한가지 생각에 몰두하고있었다. 장군님의 이 사랑에 보답하지 못한다면 그 무슨 인간이라…

장군님께서는 몇걸음 더 거닐다가 멈춰서며 덕삼에게 돌아서시였다.

《덕삼동무가 그렇게 쓰러지겠다는 말을 하니 어쩐지 마음이 좋지 않구만요. 덕삼동무는 지금 늙은 어머니가 아들의 총상자리때문에 몹시 걱정하고있다는걸 알고있습니까?》

장군님의 뜻밖의 말씀에 덕삼은 눈이 커졌다.

《예? 어머니가… 말입니까?》

《놀랄건 없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사람 한명이 가서 어머니를 만나보았습니다. 덕삼동무가 몇달째 집을 떠나 대홍단에 내려가 사는데 집

소식도 들려줄걸 해서... 어머니는 아직 정정한 데... 그저 덕삼동무의 총상자리가 어떤지 그게 좀 걱정스럽다고 하더랍니다. 우리 사람앞에서 그런 말을 할 때에야 어머니의 근심이 어느 정도라는걸 알수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도 참...》

리덕삼은 코허리가 시큰해와 얼른 눈을 내리 깔았다. 어머니가 근심했다는 말쯤보다 이 불민한 전사를 위해 그렇게까지 마음쓰시는 장군님의 그 은정에 목이 메였다. 정말 장군님앞에서 어리광이라도 부리고싶었다.

리덕삼은 눈을 습벅이면서도 장군님을 안심시켜 드리려고 이런 소리를 했다.

《전 정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어머니는 괜히 잔근심이 많아서... 늙으면 다 그런것 같습니다.》

《늙으면 다 그렇다?》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닌 내가 이젠 나이 70이 다되고 대학에 간 손자까지 있는데도 아직 아이취급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저의 처는 물론 손자며느리, 증손자가 옆에 있는데도 피춤에 쫓겨서 전사했던 사랑을 몰래 쥐여주며 <애 덕삼아, 자꾸 담배만 피우지 말구 담배생각날 때마다 이 달달한걸 한알씩 입에 넣군 해라. 남 보기 전에 얼른 호주머니에 넣으래두...> 하군 해서 난처할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하하하.》

장군님께서는 덕삼의 말이 어이가 없어 웃뭍을 뒤로 젖히며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닙니다.》

윤성국이도 웃고 승용차를 타고있던 운전사도 병긋거렸다. 누기찬 숲에서 잠을 깬 새들이 활기를 띠고 즐거이 지저귀기 시작했다.

《정말 덕삼동무가 부럽습니다. 나에게도 그렇게 불러줄 어머님이 아직 살아계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 시샘이 날 정도입니다, 허허허.》

장군님께서는 웃으며 말씀하시였지만...

덕삼은 그 순간 불뭉치같은것이 울컥 목젖을 지지며 솟구쳐오르는것을 어찌할수가 없었다.

장군님의 눈가에는 어머니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이 짙게 어려있었다.

덕삼은 그만 눈물이 왈칵 솟아올라 급기야 고개를 외로 꺾었다. 금시 울음이 터져나올것만 같았다.

아- 너무도 일찌기 세상을 떠나신 우리의 김정숙어머님, 햇빛같이 환하게 웃으시는 그 모습...

어머님께서 32살, 너무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시였고 우리 장군님께서 너무도 어리신 그 시절부터 어머니의 그 하늘같은 사랑을 잃고... 오히려 어린 동생의 어머니가 되셔야 했던것이 아닌가.

정말 장군님의 그 아픈 마음은 이 세상 그 어떤 말로도 위로해드릴수 없는것이다.

《장군님, 제가 그만...》

리덕삼은 눈물에 목이 짝 잠겨 더 말을 못했다.

장군님께서는 오히려 그러는 덕삼의 손을 다시금 꼭 잡아주시며 약간 갈린듯 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동무들은 그저 내가 어머님말만 하면... 내가 공연히 그 말을 한것 같습니다. 덕삼동무, 사실 난 그래서 더더욱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이 건강해서 오래오래 살도록 해주고 싶습니다. 덕삼동무도 어머니를 잘 모셔야 합니다. 어머니가 더 근심하지 않도록 건강에도 특별히 관심을 돌리고...》

장군님께서는 잠시 말씀을 끊고 아직도 여기저기 새벽별이 깜박이는 높고도 파르스름한 하늘을 이윽도록 바라보다가 간곡한 어조로 이으시였다.

《난 이번에 동무의 얼굴이 축간것을 보고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할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우기 여기 대흥단은 아버지수령님과 어머니의 발자취가 어린 력사의 땅입니다. 수령님께서는 생존시기 지난날 세상에서 제일 못살던 이곳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잘살게 해주려고 그리고 심혈을 기울여오시였습니다. 때문에 대흥단은 웅당 제일 살기 좋은 사회주의리상촌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대흥단을 종합적기계화의 본보기농장으로 꾸려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대집단경리의 우월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난 어제 사진을 찍을 때 동무의 부러워하는 눈빛을 보고 생각이 많았습니다. 당장 사진을 함께 찍고싶기도 했지만... 지금처럼 얼굴에 검버섯이 돋고 수척해진 모습을 보니 사진을 찍는다 해도 마음이 편할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건강부터 추켜 세워야겠다고... 건강한 몸으로 일을 더 잘해서 대흥단에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고 우리 제대군인들에게 문화휴식을 할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줄수 있게 되었을 때, 감자농사에서 혁명을 일으켜 먹고살 근심걱정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 백두산을 배경으로 멋있게 한장 찍어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동무가 수령님앞에 땀땀이 설수 있게 해주자고 말입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또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순간 리덕삼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도는 것을 어찌지 못했다. 건잡을새없이 두눈에 가득 고여올랐던 눈물이 마침내 랑불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다. 장군님의 사랑의 그 폭과 깊이를 자기로서는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었다. 더구나 어제 제대군인부부들과 사진을 찍을 때 얼핏 얼굴에 스쳤을 자기의 그 마음까지 다 헤아려보시며 것처럼 웅심깊은 생각을 하시었을 줄은 상상도 못했던 덕삼이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이 나 많은 전사에게 청춘을 다시 안겨주고 계시는 것이다.

장군님께서서는 자기를 주체 못해 자꾸만 어깨를 떨며 눈물을 흘리는 리덕삼의 손을 뜨겁게 잡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었다.

《우리에게겐 절대로 쓰러질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기어이 강성국가를 건설해서 인민들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 수령님께서 한평생 단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하고 로고를 바쳐오신것은 바로 우리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생전에 그리도 마음쓰신것도 우리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였습니다. 산에서 싸우실 때 조국땅에 나왔다가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을 보신것이 가슴에 맺혀 두고두고 말씀하곤 하시던 어머니이시였습니다. 해방된 직후에는 나라살림살이가 펴지지 못하여 사람들이 아직 옷도 변변히 못 입고 짚신도 벗지 못하고있는것이 너무 가슴아프시여 우리 어머니는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곤 했습니다. 오죽하면 평양방직공장에 나가시었을 때 인민들이 입을 옷감천이 폭도처럼 쏟아져내리는것을 보면 평생소원이 풀릴것 같다고 그렇게도 절절히 말씀하시였겠습니까. 전우들이 옷감을 가져다주어도 우리 인민들이 다 잘살게 될 때 같이 해입자고 하시면서... 도로 인민들에게 돌려주시고 자신께서는 돌아가실 때까지... 새옷 한벌 입지 못하시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신 우리 인민인데... 우리 수령님의 그 사랑까지, 우리 어머니의 그 사랑까지 다 합쳐 우리 인민을 사랑해주고 우리 인민을 행복하게 해주고싶은것이 나의 심정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정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나를 동무들이 아니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사람은 너무도 승엄하고 너무도 위대하고 너무도 뜨거운 사랑의 세계앞에서는 할말도 잇는 모양이었다. 덕삼은 그저 《장군님!》 이 한마디를

목메여불렀을뿐이었다. 이 세상 모든것을 다 합친대도 비기지 못할 장군님의 그 사랑이 어디에 시원을 둔것인지 이제야 어렵듯하게나마 알게 되었던것이다. 장군님사랑의 그 폭과 깊이, 그 뜨거움과 위대함을 알기에는 자기의 심장이 너무도 작았다.

문득 어제 대홍단에서 이제 가야 할 길이 천리가 아니라 만리라 해도 제대군인들을 만나보고가야 한다고 하시던 말씀이 새로운 의미를 안고 가슴속으로 파도쳐들어와 달아오를대로 달아오른 심장을 황황 울려주었다.

그렇다, 바로 그런 위대한 사랑을 지닌분이시기에 우리 인민을 위해서라면 이런 밤길 수천수만리라도 마다하지 않고 몇천, 몇만밤을 꼬박 새우시면서도 웃으며 가시는것이 아니겠는가.

아, 복받은 인민이여! 복받은 조국이여!

덕삼이 심장이 터져나갈듯 한 흥분을 억제할수 없어 몸을 궁싹거리는데 장군님께서 다시 손을 꼭 잡아주시었다.

《덕삼동무, 다른 생각 말고 함께 갑시다.

그리고... 참, 덕삼동무와 한가지 토론할것이 있는데... 내 어제 땅크병네 집에 갔다가 그 녀동무에게서 아주 심중한 부탁을 하나 받았 습니다.》

장군님의 이 뜻밖의 말씀에 덕삼은 놀라서 격정으로 한껏 붉어진 얼굴을 들었다. 그러는 덕삼의 눈앞에 어제 가족사진을 찍고나서 장군님께 귀속 말로 제 남편도 못 듣게 소곤거리던 그 녀성의 모습이 불쑥 떠올랐다. 수집어하면서도 행복감으로 빨개졌던 그 얼굴...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도 호탕하게 웃으시였지만... 그이후부터 장군님께서 없이 깊은 사색에 잠기곤 하시던 모습도...

그처럼 궁금했던 귀속말사언이 그럼 그렇게도 심중한 부탁이었던 말인가.

어쩌면 무엄하게도... 장군님께 그런...

덕삼은 순간에 얼굴빛이 굳어졌다. 바짝 긴장해졌다.

그런데 심중한 부탁이란 과연 어떤것인가.

장군님께서서는 긴장해진 덕삼을 보며 빙그레 웃으시었다.

《그렇게 긴장할것까지는 없습니다.

어제 그 동무가 부끄러워하면서 귀속말로 소곤소곤하는 말이 글썽 녀달만 있으면 애기를 낳게 되는데 이름을 하나 지어달라는겁니다. 남편이 땅크병출신이어서 그런지 안해도 걸작이더라는 말입니다, 허허허. 내 그래서 이름이야 애기아버지가

주 체 문 학 의 대 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으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은 조선민족의 위대성을 실감있게 형상하여 우리 인민으로 하여금 조선사람으로 태어난 긍지와 자부심, 자기 민족의 훌륭한 창조물과 자기 민족의 힘과 지혜에 대한 긍지와 믿음, 민족의 장래에 대한 굳은 확신을 가지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더 잘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문학이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는데 이바지하게 하는것은 그 사상교양적기능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문학작품에서는 우리 인민이 위대한 사상과 우수한 전통,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있는 존엄 있는 민족이라는것을 깊이있게 그려내야 한다.》

지어야지 하고 말하니까 눈물까지 글썽해서 조르는데… 허허허, 아무래도 하나 지어주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 좀 생각해보았는데… 아들을 낳으면 〈대흥〉이라 짓구 딸을 낳으면 〈홍단〉이라 하는게 어떻가 하구… 좋기는 아들딸쌍둥이를 낳으면 더 리상적인데… 허허허, 덕삼동무 생각엔 어떻습니까? 그 이름이…》

덕삼은 너무도 큰 충격에 아무 말씀도 드릴수가 없었다. 그저 끄— 하는 소리를 내며 고개를 외로 돌리고말았다. 이럴 때 자기 감정을 표현할수 있는 말을 그는 70이 다 돼오도록 아직 배워두지 못했던것이다. 배워둘수도 없었다. 세상에는 이처럼 위대하고 이처럼 뜨겁고 이처럼 세심한 사랑을 칭송할만 한 그런 말이 없었던것이다.

그래서… 그래서 장군님께서 그때부터 때없이 깊은 사색에 잠기곤 하시였구나. 어쩌면 한 이름 없는 녀성의 그런 무엄한 부탁을 그리도 깊이 새겨안으시고… 하는 생각만이 입안 가득 불물같은것을 자꾸 퍼올릴뿐이였다.

장군님께서 자신께서도 흥분하신듯 자리에서 일어서시어 몇걸음 거닐다가 두손을 허리에 얹고 멀리 대흥단쪽하늘을 바라보시였다.

《얼마나 좋습니까. 대흥단에 우리 애기들이, 우리 대흥단의 미래가 태어난다는게… 난 지금 그 애들이 캐드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리는것만 같습니다. 덕삼동무, 어떻습니까,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도 만족하시어 환하게 웃으시는 장군님을 우러르는 순간 덕삼은 자기가 금시 갱소년한듯 한 환희의 감정을 억제 못하며 흥분해서 말씀드렸다.

《그렇습니다. 장군님, 미래가 눈에 선합니다. 저도 막… 20년은 젊어진것 같습니다.》

장군님께서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아주 좋습니다. 덕삼동무가 그렇다니 정말 기쁩니다. 덕삼동무, 우리 힘을 합쳐 대흥단을 본때있게 꾸려봅시다. 백두대지에 기계소리, 노래소리, 웃음소리가 짝 차흐르게 합시다. 대흥단벌엔 감자가 폭포처럼 쏟아지게 하고 산기슭마다엔 멧쟁이살림집들과… 산원도 짓고… 감자가공공장을 비롯한 현대적인 식료공장들과 발전소, 목장들도 더 건설하고 철길도 놓고…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락원으로 꾸립시다. 그렇게 대흥단을 앞세우면서 온 나라를 대흥단처럼 만듭시다.…

이제 태어나는 애들은 바로 그런 사회주의리상촌에서 살게 될것입니다.》

아아, 우리 장군님은 바로 이런분이시다. 우리 수령님과 어머니의 사랑까지 한몸에 다 지니신 우리 장군님의 마음속엔 정녕 얼마나 밝고 창창한 우리의 앞날이 펼쳐져있는가.

(그렇습니다, 장군님. 장군님께서 계시기에 우리 인민은 머지않아 그런 사회주의리상촌에서 살게 될것입니다. 저에겐 벌써 그날이 보입니다. 그 휘황찬란한 래일이…)

덕삼은 이렇게 목청껏 웨치고싶은 충동을 가까스로 누르며 장군님께서 바라보시는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순간 덕삼은 그만 황홀경에 휩싸이고말았다. 저 멀리 백두대지, 대흥단쪽하늘에서 피여오른 아침노을은 점점 아름답게, 장엄하게 불타면서 온 누리에 퍼져가고있었다.

《발걸음》의 메아리는 우렁차고 환희롭다

권선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김정은**동지를 잘 받들어나가는 여기에 주체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습니다.》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시며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크나큰 영광과 긍지를 안고 노래 《발걸음》이 온 강산에 메아리치며 울려 퍼지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하늘땅 끝까지, 세월의 끝까지 믿고 따르려는 온 나라 천만군민의 심장의 메아리로 울려 퍼지고 그이의 령도따라 세기를 주름잡으며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으로 펼쳐지고 그이 가리키시는 찬란한 미래를 앞당겨 마중해가는 력사의 환희로 빛발치는 노래 《발걸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높이 추켜드신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따라 승리와 영광을 펼쳐며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새로운 100년대진군을 힘차게 다그쳐가고있는 천만군민의 장엄한 기상이 《발걸음》의 힘찬 곡조속에 용융히 굽이치고 있다.

《발걸음》에 실려오는 력사의 진폭

걸음새는 인간에게 고유한 특징의 하나이다. 사람마다 자기의 걸음새와 보폭을 가진다.

하지만 오늘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새로운 100년대를 힘있게 열어가는 우리의 천만군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팔을 끼고 어깨를 결고 하늘땅을 울리는 그이의 발걸음에 보폭을 맞추며 사상도 뜻도 신념도 의지도 숨결도 오직 하나가 되어 모든 고난과 시련을 박차고 도도히 전진하는 일심단결의 모습을 력사우에 새겨가고 있다.

가사 《발걸음》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따라 력사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며 승리와 영광을 펼쳐온 우리 혁명의 자랑스런 모습이 있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천만군민의 장

엄한 진군의 기상이 어려있으며 강산을 울리고 시대를 울리는 력사의 발걸음에 실린 우리 혁명 력사의 거창한 진폭이 있다.

척척척척척 발걸음 우리 김대장 발걸음
2월의 정기 뿌리며 앞으로 척척척
발걸음 발걸음 힘차게 한번 구르면
온 나라 강산이 반기여 척척척

척척척척척 발걸음 우리 김대장 발걸음
2월의 기상 펼치며 앞으로 척척척
발걸음 발걸음 힘차게 한번 구르면
온 나라 인민이 따라서 척척척

척척척척척 발걸음 우리 김대장 발걸음
2월의 위업 받들어 앞으로 척척척
발걸음 발걸음 더 높이 울려 퍼져라
찬란한 미래를 앞당겨 척척척

가사의 《2월의 정기 뿌리며》, 《2월의 기상 펼치며》, 《2월의 위업 받들어》라는 구절들은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새시대가 무엇을 계승하여나감에 무엇을 기치로 하여 전진할것인가를 형상적으로 집약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조국광복의 원대한 뜻을 품으시고 눈보라치는 천리길에 나서시며 우리 수령님 만경대고향집 프락에서 내짚으신 발걸음.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내 나라, 내 조국을 세상에 펼치실 억척의 의지를 안으시고 경애하는 장군님 백두밀영고향집 프락에서 내짚으신 발걸음.

만경대에서 시작되어 백두산으로 이어진 절세의 위인들의 그 발걸음따라 락후와 빈궁속에서 헤매이던 우리 조국은 세계에 그 위용 펼치는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우뚝 솟아올랐고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의 발걸음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고 전진의 보폭을 맞추며 세기를 주름잡아 달리고 또 달려 **김일성**민족의 100년대를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아왔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력사의 그 발걸음을 이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쳐주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한마음한뜻이 되어, 그이와 팔을 끼고 어깨를 견고 발걸음 맞추어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2월의 정기 뿌리며 앞으로 척척척》, 이것은 백두령장들의 천품을 그대로 이으시여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탁월한 정도력으로 우리 조국과 혁명, 우리 군대와 인민을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대성에 대한 열화와 같은 칭송의 감정의 분출이다.

《2월의 기상 떨치며 앞으로 척척척》, 이것은 백두의 담력과 기상, 배짱으로 원수들의 도전을 짓눌러버리시며 선군의 길, 승리의 길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이끄시는 천출명장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신 끝없는 영광과 환희의 표현이다.

《2월의 위업 받들어 앞으로 척척척》,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위업, 위대한 장군님의 위업인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시여 한치의 드립도,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오직 수령님식, 장군님식대로 이끌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더치는 천만군민의 심장의 환호이다.

가사 《발걸음》에는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발걸음드높이 전진해온 우리 혁명의 년대기들이 집약되어있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고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새로운 100년대의 대문을 활짝 열고 선군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강성국가의 령마루에로 도도히 나아가는 우리 조국과 혁명의 오늘과 찬란한 래일이 비껴있다.

가사에는 또한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로 높이 모시고 주체의 한길, 선군의 한길을 끝까지 걸어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높은 결의와 억척같은 신념과 의지가 반영되어있다.

《은 나라 강산이 반기여 척척척》, 《은 나라 인민이 따라서 척척척》, 이 구절들에는 대를 이어 태양복, 수령복, 최고사령관복을 받아안은 천만군민의 환희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자기의 모든 운명과 미래를 전적으로 맡기고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하늘땅 끝까지, 세월의 끝까지 영원히 가고갈 신념과 의지가 어려있다.

《찬란한 미래를 앞당겨 척척척》, 이 구절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최후승리의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만한다는 확신,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사회주의승리의 만년토대우에 **김정은**동지의 정도따라 주체의 강성국가를 기어이 일떠세우리라는 드팀없는 의지가 담겨져있다.

가사에서 《찬란한 미래》의 서정은 결코 그 미래를 바라고 소원하는 갈망의 서정이 아니며 다가오는 미래를 기다리는 서정은 더욱 아니다. 가사에서는 《힘차게 한번 구르》어 천하를 뒤흔들고 세계를 휘어잡으며 나아가는 백두의 천출명장의 힘찬 발걸음따라 《찬란한 미래를 앞당겨》가는 확신과 전진의 서정이 맥박치고있다.

가사에서 반복되는 《척척척》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의성의태어의 형상적표현력을 초월하여 무한대한 힘과 열정을 지니시고 우리 조국과 혁명을 이끌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담대한 기상과 배짱, 그이를 따라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억센 신념과 의지를 박동적으로 무게있게 보여주고있다.

정령 가사 《발걸음》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대를 이어 받아안은 태양복에 대한 환희의 송가이며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새로운 100년대진군의 장엄한 행진곡이다.

거창한 력사의 진폭을 안고 승리의 뒤흔성으로 울려퍼지는 《발걸음》의 우렁찬 울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부르심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천만군민의 심장을 그 거세찬 박동으로 세차게 울려주고있으며 찬란한 미래를 앞당기며 나아가는 우리 대고조진군대오에 힘과 맥박을 더해주고있다.

형상의 매력과 여운

가사 《발걸음》은 비상한 매력으로 천만군민의 심장에 불을 달고 매혹시킨다.

백두의 천출위인과 함께 씩씩하게 발걸음 맞추어 력사의 새시대를 창조해가는 벅찬 희열과 흥분을 느끼게 하는 《발걸음》의 형상적매력과 여운은 어디에 있는가.

가장 평범하고도 통속적인 언어형상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니고계시는 위인적풍모를 높은 예술적경지에서 주체혁명위업계승완성이라는 폭넓은 의미로 승화시킨 여기에 가사 《발걸음》의 형상적매력과 강렬한 여운이 있다.

《척척척척척》 발걸음소리로 시작되어 《척척척》 발걸음소리로 끝나는 매절의 가사는 씩씩하고 박력있는 행진곡조로서 약동하는 전투적기백과 신심드높은 락관으로 일관되어있다.

가사에서는 천하를 뒤흔들며 앞으로 나아가는 천출위인의 우렁찬 발걸음소리가 들려오는듯싶고 그 발걸음에 따라서고싶은 강렬한 충동을 느끼게 된다.

보폭과 힘, 속도와 전진성은 발걸음의 기본속성이다. 앞으로 힘있게, 씩씩 씩씩하게 내짚는 발걸

음은 그 인간의 신념과 의지력, 성격과 기질을 충분히 가늠할수 있게 한다.

가사에서는 천출위인의 발걸음이 주는 힘과 기백이 매절마다에서 여러번 반복되는 《발걸음》과 《척척척》이라는 시어를 통하여 집약적으로 형상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발걸음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쳐주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오직 곧바로 앞으로만 나아가는 절대불변의 신념이 비껴있고 그 길에서 그 어떤 불가능도 있을수 없으며 그 어떤 도전도 허용치 않는 천하무적의 강대한 힘이 어러있으며 그 어떤 최첨단목표도 한달음에 도약하여 정복하는 《단숨에》기상의 거대한 보폭과 높은 속도가 비껴있다.

지구를 통채로 울리는 거대한 힘과 한걸음에 10년, 20년을 주름잡아나가는 높은 속도, 바로 이것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발걸음따라 나아가며 강성부흥의 전성기를 펼쳐여나가는 우리 조국의 모습이고 우리 군대와 인민의 기상이다.

이것을 발걸음이라는 집약적인 형상속에 담아 펼쳐보인데 가사 《발걸음》의 높은 형상적기교가 있는것이다.

가사 《발걸음》은 력사의 발걸음에 실린 철학적으로 무게있는 형상과 함께 시어형상과 운물조직에서도 전진의 기백과 운동성을 강조하여 힘있는 박력을 주고있는데서도 새로운 형상세계를 개척하였다.

가사에서는 발걸음에 대한 형상을 《척척척》이라는 간결한 시어를 통하여 보여주고있다.

《척척척》은 발걸음소리를 나타내는 단어로서 발걸음의 개성적속성만을 보여주는것이 아니라 고난을 박차고 시련을 이겨내며 과감히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감과 반드시 승리를 이룩하려는 전투적기백과 억척의 신념을 보여주고있다. 매절의 앞과 마지막에서 반복되는 《척척척》은 박력있는 속도감과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강조해주고있다.

시행과 시련을 구성함에 있어서도 가사형상의 정교한 시적구조를 완벽하게 갖추고 매절을 구조적으로 통일시켜 그 정서적흐름이 하나의 사상정서적해명에로 관통되도록 하고있으며 《발걸음》, 《척척척》이라는 시어를 반복리용하여 기백있고 박력있는 운물조직을 담보해주고있다.

통속적이며 인민적인 어휘를 적극 살려쓴것도 가사의 형상에서 이룩한 주되는 성과의 하나이다.

비상한 감화력을 가지고 이 땅우에 끝없이 울려갈 노래 《발걸음》은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그이와 팔을 끼고 어깨를 결고 노도와 같이 전진해나아가는 우리 천만군민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앞으로도 《발걸음》과 같이 천만군민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위업완성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도록 적극 고무추동하는 시대의 명작, 명가사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창작하여야 한다.

하어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새로운 100년대를 수령흥모, 수령칭송의 송가로 더욱 빛내이는데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상 식

공 업 도 안

산업미술의 한 형태로서의 공업도안은 공업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제품의 외형을 모양, 장식, 색깔 혹은 그것들의 결합으로써 새롭게 미학적으로 구성하여 묘사한것을 말한다.

공업도안의 특징은 첫째로, 반드시 일정한 제품과만 관계된다는것이다.

우선 구체적인 제품이 없는 외형설계인 경우 그것은 일종의 미술저작물로만 인정되며 공업도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공업도안은 제품의 형태, 색깔 등을 요소로 하여 제품외형의 미감을 살리는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둘째로, 공업적으로 도입할수 있어야 한다는것이다.

즉 그 공업도안이 공업적방법을 통하여 구체적인 제품에 대량 복제될수 있어야 한다는것이다.

공업도안은 제품도안과 장식도안으로 구분하며 구체적으로는 기계설비와 운수수단, 방직제품, 생활 및 문화용품, 의장품, 가구류, 건구류, 포장용기 등과 같은 대상들의 도안들이 포함된다.

공업도안은 공업도안권으로 등록되어 법적보호를 받는다.

단시초

장군님은 저를 안고사시였다

—남녘의 한 정치인을 대신하여—

김 경 남

통일이 언제 옵니까

아버지앞이런듯 스승의 앞이런듯
장군님을 한자리에 모신 남녘의 언론인들
홍금털어 속생각들 터놓는데
은연중 누군가 말씀올리었네
—장군님 통일이 언제쯤 옵니까?—

겨울이 가면 봄이 오지만
더우기 통일은 계절은 아니어서
통일이 오는 날은 과연 언제일까
좌중은 장군님만 우러르는데

장내를 흔드는 확신에 넘친 장군님말씀
—북과 남이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면
통일은 당장에 실현될수 있습니다

아, 어버이의 심장의 웨침이여
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는
바로 그날이거니
통일시간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통일된 다음에 찾아봅시다

남녘땅 남녘겨레 그러볼 때면
심중에 울려오는 한편의 노래
장군님은 언론인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네

…남녘에 통일주체의 좋은 노래가 있소
《홀로아리랑》이라고
주체는 독도를 지키는 내용ियो
반일을 주장하고 민족공조를 주장했소

동해 저 멀리 홀로 선 독도
제 살점인양 제 심장인양 안고사는 작가

그의 애국의 마음 귀중히 여기시여
장군님 하신 말씀이여

…조국이 통일된 다음
그런 훌륭한 노래를 작사 작곡한
그 사람들을 다 찾아보자고 하오

장벽은 이 나라와
민족의 혈맥을 끊어놓았어도
한평생 하나의 강토 온 겨레를 안고사신
민족의 어버이장군님이시여!

칠보산 송이버섯

추석을 하루 앞둔 9월
장군님께서 남녘동포들에게 보내시는
칠보산 송이버섯을 싣고
한대의 비행기가 날고있었다

만리창공 하늘길에도 가득
제주도 한끝 산야에도 가득
넘쳐 다함없는 향취여
칠보산 송이버섯이 풍기는 민족의 향취여

그날의 그 향취 남녘의 산천에
남녘겨레의 피줄에 스배여
넋이 되고 숨결이 되었거니

외색외풍이 휩쓴다고
화약내 감돈다고
6.15가 심어준
그 넋을 잃으랴
그 숨결 끊기랴

날아 난 신변각서

외세가 그어놓은 분렬장벽 허물자고
반세기도 더 넘게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가고온이 그 얼마더나

그때마다 마치
적국의 적진으로 들어가듯
신변안전을 담보한다는 각서
그것은 법처럼 굳어진것

허나 남녘의 특사일행

어버이장군님품을 찾아왔거니
장군님 연회장 들썩하게 말씀하셨네
...신변각서없어 걱정하는 아낙네들을 위해
축배잔을 듬시다!...

아, 신변담보의 징표보다
신의와 믿음을 더 중시하시는
장군님의 호탕한 말씀이여
반세기 쌓인 불신이 날아나는 순간이여!
남녘겨레가 그이 품에 안기는 순간이여!

우 리 사 람 들

리 진 협

이들에 할일을 한것에 해놓고도
또다시 밤작업의 우등불결에 모이는
그런 대오속에서 그 말은 울리더라
일하는 맛이 있어!
만만치를 앓아 우리 사람들!

그런 대오엔 자랑이 되는이들도 많아
마을과 거리들에 그 이름 울려도
그 사람들은 우리 직장 우리 사람들이라고
힘겨운 일감을 놓고 일손을 고를 때에도
한생의 길동무를 택하는 혼사말속에서도
그는 우리 작업반 우리 사람이라고

아늑한 온돌방과 혈육들의 곁을 떠나
한겹 천막을 지고 먼 개척지로 가는
그런 대오속에 그대 서본 일 없고
목숨 내대야 하는 돌격조
그 명단에 우리 이름 오른적 없었다면
어이 투쟁하는 대오의 우리 사람으로
대고조의 대오에 섰다 말할수 있으랴

거창한 변혁의 새시대가 펼쳐지는 땅
투쟁하는 대오의 숨결이 높뛰는 곳에서
대비약의 설계도면에 최첨단기계의 도면에
점 하나 선 하나라도 보태일줄 알고
종자혁명 두벌농사로 풍작이룬 기쁨
완공된 언제우에서 축배잔도 높이 든
투쟁의 그 맛을 생활로 아는 우리 사람들

사색과 탐구로 눈에는 피발이 젖어도
그처럼 뭉클한 언어로 말할줄 알고
땀으로 로동복과 얼굴은 얼룩졌어도
그 장쾌한 로동미로 단장할줄 알아
그런 매력에 서로가 반하는 우리 사람들
그런 생활로 멋부릴줄 알아
온 나라에 소문도 나는 우리 사람들

자기를 위해 혼자 숨쉬는
그런 생활속에서는 들을수 없어
아버지 어머니 오빠 언니로 불리워도
대오와 떨어져선 불리울수 없는 부름
투쟁하는 대오와 함께만이 불리워 그 부름은
그대 대고조의 대오에 당당히 서있다는
영예와 명예 인격과 존엄으로 되는 부름

행복하리라
투쟁하는 대오가 우리 사람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속에 부모와 자식
애인과 벗들을 두고있다면
말할수 있으리
참으로 자신들의 행복에 대하여
가정과 우정과 사랑...
참으로 생활의 만족에 대하여...

순간의 향락은 삶과 함께 끝나도
그런 행복과 생활은 끝나지 않거니
강선과 락원 홍남과 룡성...
오늘도 그 많은 고장들에서
우리 작업반 우리 사람들이라
정답아 불러주는 천리마시대 사람들
그 바통을 틀어쥔 이 거창한 투쟁에서
선군시대 우리 사람들로
우리 또한 일터와 마을들에서 불리우려니

그 사람들이다!
우리 사람들의 투쟁기질을 믿고
강성대국건설대전도 통채로 내맡겼다고
우리 장군님 정답아불러주신 우리 사람들
그이 부름속에 사는 영광을
행복이라 말하고 긍지로 여기는 우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천우로 살며
투쟁하는 대오의 우리 사람들!



석 남 진

비날론지구의 단층살림집마을에 저녁어스름이 서서히 찾아들었다. 이무렵이면 공장에서 퇴근해오는 노동자들의 보람과 랑만이 넘치는 웃음소리가 길우에 울려 퍼진다. 지금 2.8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는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벗어난 생산공정들을 건설하는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었다. 10년나마 생산이 중지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안겨주던 비날론이 다시 살아난다는 희열과 밝은 희망이 불빛비낀 창가마다에서 빛나고있었다. 세대주들을 반갑게 맞아들이는 녀인들과 아이들의 활기찬 목소리들에도, 집집의 굴뚝들마다에서 모락모락 피어나는 흰 연기속에도 그 희열과 희망이 어려있는것만 같았다.

그러나 인간생활은 역시 단순치 않은것이니 2카바이드직장 수리작업반장 김준선의 가정에서처럼 때로 불협화음이 생길 때도 있다. 하여 집의 안주인인 박선미는 어둠이 깃드는 마당에서 야속한 빛이 어린 눈으로 방금전에 퇴근해온 남편을 쳐다보고있다.

남편은 쭈그리고앉아 개의 목덜미를 쓸어주고있었다. 그의 투박한 손놀림에는 애뜻한 정이 어려있었다.

《나도 이놈과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알알해지는구만.》

남편이 혼자소리처럼 하는 말이였다.

《그럼 그만두지 그래요.》 하고 말하는 선미의 목소리는 새침하였다.

자기와 딸애가 정들여 기르던 개를 서슴없이 남을 위해 바치겠다고 하니 이거야 너무하지 않는가. 혹시 이 사람에겐 나와 가정이 전혀 안중에도 없는것이 아닐가?

중년나이에 이르러 젊음의 탄력을 잃고 실주

름이 잡히기 시작한 박선미의 얼굴이 의혹과 불안으로 찌프러졌다.

선미는 체구가 크고 이목구비도 큼직큼직했다.

성격도 너자치고는 보기드문 대들인데 그때문인지 남편을 이해하고 남편의 일을 도와주는것도 적극적이였다.

아무리 다정한 부부간일지라도 때로 의견충돌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그들의 부부다툼이 크게 격화되지 않은것은 박선미가 매사에 남편에게 양보하고 자기를 자제하였기때문일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참기가 힘들었다.

남편은 딸 금선이가 손을 잡고 흔들며 간절하게 하소연하는것도 들은채 하지 않았다. 그러자 금선은 《아버진 정말...》 하고 서러운 눈물이 글썽한 눈으로 아버지를 쳐다보다가 앵돌아져서 집안으로 들어가버렸다. 만약 남편에게 아버지로서의 정이 조금이나마 있다면 저렇게 목석처럼 행동할수가 있을까?

선미는 도저히 남편의 처사를 이해할수가 없었다.

그 녀자는 남편이 단고기로 몸보신을 시키겠다고 하는 리성산이란 사람을 잘 알고있었다.

30대 중반의 몸이 좀 허약해보이는 청년인데 2년전에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딸 금선이를 들이받았던적이 있었다. 그때 금선이는 넘어지면서 왼쪽볼편에 상처가 생겼다. 리성산이가 거둬 사죄를 했고 남편도 그 사람이 실수를 한것이니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고 했지만 선미는 쉽사리 잊을수가 없었다.

아직도 금선이의 볼편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상처자리를 볼 때마다 가슴속에서 흉두께같은것이 치밀어오르는것이였다.

그 당시 성산은 다른 직장 수리작업반에서 일하였는데 그후 운명의 희롱인지는 알수 없으나 기업소에서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일부 직장들을 해산하고 합치는 조치를 취하게 되면서 남편이 반장으로 있는 2카바이드직장 수리작업반으로 옮겨오게 되었다. 족제비도 낮짜이 있다고 남편과 한작업반에서 일하는것이 웅색했던지 그는 다른 직장으로 가려고 부지런히 로동과결음을 하였다.

하지만 남편은 그러한 성산을 작업반에 안착시키기 위해 애를 썼다. 그러나 성미가 거친데가 있는 남편은 사근사근하지 못하였고 직통배기여서 결코 성산을 어루만지기만 하지 않았다.

선미는 바로 며칠전에 남편이 호되게 성산을 꾸짖었다는것을 알고있었다. 집에 들어와서 남편이 후회하는 소리를 하였던것이다. 남편이 한숨을 쉬며 속을 썩이기에 무슨 일인가 물었더니 작업반총화에서 성산이를 너무 모질게 비판하였다는것이였다. 그때문인지 성산이가 집에 가서 술을 파음했는데 위경련이 와서 출근하지 못했다고 한다.

《언제면 이 못된 성미를 고쳐내겠는지, 도무지 참을성이 부족하단 말이요.》 하고 스스로 자신을 질책하는 남편의 얼굴에 괴로움이 짙게 어려있었다. 비록 성이 나면 앞뒤를 가림없이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는 욕을 마구 하는 남편이지만 인차 후회하고 자기를 반성한다. 그는 마음이 고운 사람이였고 분별이 명백한 사람이였다.

선미는 저도 모르게 가늘게 한숨을 내쉬었다. (아무리 사람이 좋기로써니 나나 애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지를 않으니...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어.)

남편에 대한 불만을 묵새기노라니 지난날의 일들이 피끗피끗 떠올랐다.

...

수직방사직장의 하조장에 비날론띠섬유가 날마다 가득 차고넘치던 시절, 방사공이였던 선미가 한창 혁신자로 이름을 날리던 그 시절의 어느 날이였다.

선미는 아침출근길에 올라 경쾌하게 걸음을 옮기고있었다. 하늘에선 짜락눈이 흩날리고 땅바닥에는 살풋이 흰눈이 깔리였다. 빠드득빠드득 눈을 밟는 털구두소리가 기분 좋게 귀전을 울리였다.

기업소정문을 통과하니 대형속보판들이 늘어섰는데 한쪽면에 혁신자들의 사진이 붙어있었다. 그 사진들속에는 선미의 모습이 찍힌 사진도 있었다. 쭉스러우면서 자랑스럽기도 하여 이 속보판결을 지날 때면 자신의 사진이 붙어있는 곳을

로 저절로 눈이 가는것을 어찌할수가 없었다.

(빨리 직장에 가서 작업준비를 잘해야지.)

이때 선미의 결을 지나쳐 달리던 한대의 자전거가 속도를 늦추더니 스르르 그에게로 다가왔다.

《누군가 했더니 수직방사직장의 혁신자 박선미 동무로구만.》

선미가 놀라서 바라보니 2카바이드직장의 수리공 김준선이 웃고있었다. 선미는 깔끔하게 눈을 치며보면서 말하였다.

《무슨 일이에요?》

《일이야 무슨 일이 있겠소. 처녀혁신자동무를 만나니 반가와서 그러지.》

준선은 선미의 걸음에 맞추어 천천히 자전거를 몰았다.

(참 비위가 딱판같은 동무로구나.) 선미는 얼굴을 옆으로 돌리며 입을 삐죽했다.

얼마전에 있는 일인데 선미는 2카바이드직장 교대부직장장을 하는 아버지를 찾아갔다가 그리 크지 않은 키에 다부진 체격의 청년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아버지에게 대드는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다 잘되었는데 뭘 그러니까?》 청년은 무엇이 불만스러운지 씩씩거리였다.

아버지는 선미가 빠금히 문을 열고 들여다보는것을 띠여보고 그만두자는듯 손을 휘저었다.

《됐소, 어서 가보라구. 다음부터 그렇게 자의대로 물덤병술덤병하면 안돼.》

청년은 맞가지 않다는듯 성급하게 출입문을 잡아당기면서 나가다가 선미와 부딪치게 되었고 선미는 손에 들고있던 밥통을 떨어뜨리고말았다.

《미안하오.》

청년은 당황하여 밥통을 들어주면서 어쩔바를 몰라하였다.

청년이 가버린 다음 선미는 뽀로통하여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참 버릇없는 사람이예요. 저런 사람은 혼쌀내주어야 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느슨한 미소를 짓고있었다.

《팬찮아, 사내가 그만한 뽈은 있어야 하는거야.》 하면서 아버지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직장의 잔사뽈프 출구변에 잔사가 너무 들어차는 바람에 제대로 동작하지 않아 김준선이라는 청년이 수리하게 되었다고 한다.

준선은 수리해보다가 15분간만 5개나 되는 뽈프를 동시에 세우자고 어린 운전공처녀를 구슬렀다. ...잔사가 뽈프안에서 굳어졌는데 뽈을 방

법이 없다, 수리하자면 문제의 뿔프를 세워야 하는데 그러면 카바이드로를 다 세워야 한다, 5대의 뿔프를 동시에 세우면 관성의 힘을 리용하여 잔사를 다 뽑아던질수가 있다, 15분간 세웠다가 다시 돌리면 로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고 뿔프를 정상으로 계속 돌릴수 있다고 운전공처녀를 설복하였다. 준선은 직장장에게 말했대야 승인해주지 않을것이니 자기와 짜고 몰래 하자고 하였다.

운전공처녀는 준선의 말이 그럴듯하여 뿔프를 세웠다. 준선의 말대로 뿔프안의 잔사는 말끔히 씻겨나갔는데 동시에 5대의 물뿔프안에 있어야 할 일정한 량의 물까지 다 뽑아져나가는 바람에 예정한대로 뿔프를 운전할수가 없게 되었다. 준선은 미처 이런 경우를 타산하지 못하였던것이다.

하여 물뿔프가 40분이나 동작하지 못하게 되었고 집수정의 물을 뽑지 못하여 전기로작업현장에 일시 물이 차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하여 준선은 선미의 아버지에게 호된 추궁을 받았던것이다. 그러나 사실 준선이가 대담하게 접어들지 않았으면 후날에 전기로를 세우는 사태가 빚어졌을번 했다는것이였다.

《어벌이 큰 녀석이야.》 하고 아버지는 말하였다.

아버지는 계속하여 준선이가 이전에 수동권양기를 쓰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야 들어올길수 있던 전동기를 권양기를 리용하여 2명이 들어올길수 있게 장치를 만들어놓는 기술혁신도 하였고 자체의 힘으로 뿔프수리가지도 꾸려놓았다고 하면서 못내 그를 기특해하는것이였다.

선미는 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준선이라는 청년을 새롭게 알게 되었지만 이렇게 능청스럽게 말을 걸어오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하였다.

《함께 걸어봅시다.》 준선은 히죽이 웃으며 자전거에서 내려 걸었다.

《빨리 자전거를 타고 가세요, 괜히 나때문에 지체하지 말고.》

《일없소, 실은 동무에게 언제부터 물어보고 싶은게 있었던 말ियो.》

《그게 뭘데요?》

《글쎄 천천히 이야기를 나눠보기요.》

선미는 어쩐지 준선이의 의심스러운 제기가 싫지 않아 그를 따라걸었다. 아버지에게서 준선에 대한 좋은 말을 들은데다가 자기를 바라보는 그의 두눈이 왜서인지 강한 자식처럼 마음을 끌어당기는것 같았다.

《선미동무, 내가 우선 묻고싶은건 말ियो 혁신

자가 되는 비결이 뭘가 하는거요.》

준선은 짐짓 엄숙한 어조로 말을 했다.

《내가 그런걸 알게 뭘예요. 그건 동무가 더 잘 안다고 생각되는데요.》

《동무야말로 속보판에 사진이 나붙은 당당한 혁신자인데... 벌써 몇번째요? 그래서 난 동무에게서 배우자는거요.》

선미는 준선이의 반롱조를 간파하고 역시 롱조로 응대하였다.

《난 동무에게서 더 배우고싶군요. 그 대담성과 창조적의욕...》

준선은 껄껄 웃었다.

《내게 그런 성품이 있었는가? 좌우간 고맙소, 그렇게 높이 평가해주어서...》

어느덧 2카바이드직장으로 갈라지는 길목에 이르렀다. 선미가 일하는 수직방사직장은 아직도 더 가야 했기에 그들은 여기서 헤어져야 했다. 준선이가 걸음을 멈추고 선미를 사랑스레 여겨보며 말하였다.

《난 동무에게 감탄했소. 동문 대단히 걸음이 빠르구만. 남자인 내가 다 따라걸기가 급하구만.》

《그래요? 그럼 그냥 자전거를 타고가는걸 그랬군요.》

선미는 미소를 머금었다. 그자신도 자기의 걸음이 녀자치고는 어지간히 빠르다는것을 알고있었다. 그는 공장에 입직한 초기 아버지와 함께 출근길에 오른적이 많았는데 아버지의 보폭이 큰 걸음을 따라걸느라 안간힘을 다했었다. 그때부터 그는 자연스럽게 걸음이 빨라지게 되었다.

《난 중학교때 롱구선수였답니다. 그래서 다리힘이 좀 강하지요.》

선미는 여전히 롱조로 말하였다.

《빨리 기대앞에 서고싶어 몸이 다는 모양이지요?》

《비날론을 뽑는게 보통일이예요? 궁지가 있지요.》 하고 말하던 선미는 준선의 진지한 얼굴 표정을 보고 놀랐다.

준선은 경탄의 눈빛으로 선미를 보고있었던것이다.

《동문 아마 누구보다도 시간을 귀중히 여길거요.》

선미는 당황해서 말하였다.

《난 그런 처녀가 못되는데요.》

《아니요, 동문 그런 처녀요. 난 오늘 동무와 함께 걸으면서 한가지를 알게 되었소. 그건 혁신자가 되자면 걸음이 빨라야 한다는거요.》

선미는 준선이가 열정적으로 하는 말을 들으

면서 가슴이 후덥게 달아올랐다.

(내가 과연 이 동무가 말하는 그런 처녀가 옳은가?)

그는 새삼스럽게 자신을 돌이켜보았다.

선미의 아버지는 비날론공장건설에 동원되었다가 어버이수령님의 인민에 대한 사랑이 가슴에 사무쳐와서 아예 눌러앉아 비날론로동계급이 된 사람이었다.

선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서 비날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돌에서 뿜는다는 신기한 섬유는 그에게 동화적인 환상을 불러일으켰다. 소학교시절부터 여러차례 공장견학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공장구내 곳곳에 스며있는 어버이수령님의 거룩한 발자취를 가슴에 뜨겁게 받아안곤 하였다.

비날론은 민족의 자랑이고 인민의 행복을 약속해주는 귀중한 섬유였다. 것처럼 뜻깊은 비날론이기에 어버이수령님께서 로고를 바치면서 애지중지하신 것이었다. 비날론은 어느덧 소녀의 의식숙에도 떨어질수 없는 한 운명처럼 뿌리내렸던 것으로 하여 중학교를 졸업하자 비날론공장에 입직하였다. 공장에 다른 직장들도 많았지만 꼭 자기 손으로 비날론을 뽑고 싶어 방사직장 로동자가 되었다.

비날론을 뽑는다는 공지와 자부심을 안고 힘껏 일하여 직장이나 공장에 혁신자로 알려지게 되었지만 과연 준선이가 말했듯이 한초, 한시간을 아끼며 비날론에 온 심혼을 쏟아붓고있는지 스스로 확신할수가 없었다.

자기가 늘 걷고있는 그 길, 수령님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그 구내길을 달려다닌적이 있었던가?

한초, 한분을 재면서 발걸음을 다그쳐왔던가? 그저 성실하게, 꾸준하게 일한것이 전부가 아니었던가?

그는 준선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다부진 체격에는 힘이 넘쳐보이었고 갱뿔한 얼굴에 가느스름하게 치해진 눈매에는 다정한 빛이 어려있었다.

《난 선미동무와 더 말하고싶지만 동무의 귀중한 시간을 더 빼앗지 않겠소. 자, 또 만납시다.》

이런 말을 남기고 단호하게 돌아서는 준선을 보니 이 청년이야말로 구내길을 걸어다니는것이 아니라 뛰어다닐 것이라고 생각되었으며 동시에 그가 상상하는 그런 처녀가 되고싶은 자각이 세차게 가슴을 휘저어놓았다.

선미는 쌍라눈이 훑날리는 속에 자기네 직장을 향해 자전거를 몰아 냅다 달려가는 준선의 뒤모습을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정말 팬찮은 남자야.)

이것이 그들의 사랑의 시작이었다.

준선은 다음날부터 출근시간이면 선미의 집근처에서 기다렸다가 선미와 함께 걸어가곤 하였다.

그들은 누가 빨리 걷는가 경쟁을 하였다. 아무리 빨리 걸어도 선미는 도무지 힘든줄을 몰랐고 기쁨과 보람이 융솟음치는것을 느끼었다.

《일생 변함없이 동무를 사랑하겠소. 동무가 바라는것은 내 다 해주겠소. 난 동무가 무엇을 바라는지 다 알거던.》 하고 준선은 결혼식날에 말하였다.

그가 팔걸고 집안일을 도와주어 선미는 자기처럼 행복한 녀자는 드물것이라고 자부하였다. 그는 언제나 결혼식날 밤에 남편이 한 그 말을 돌이켜보곤 하면서 혼자서 미소를 짓곤 하였다. 남편은 안해에게 한 그 말을 성실하게 지켰던것이다.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비날론생산공정은 벗어서게 되었고 그후 선미는 심장병을 앓게 되었다. 아마도 너무나 사랑하던 그 공정이 죽어버리면서 그의 심장에 큰 아픔을 주었기때문인지도 몰랐다.

그가 병이 심해져 사직한 그날 남편은 몹시도 괴로와하면서 잠을 자지 못하였다.

《내가 집에 들어와서 그래요?》

선미가 미안한 어조로 묻자 준선은 쓸쓸하게 웃어보이었다.

《됐소. 다른 생각 말고 병치료를 잘하오.》

그때부터 준선은 선미의 병치료에 관심을 많이 돌리었으나 이전처럼 활기를 보이지 못하였고 말이 적어졌다. 비날론생산공정이 죽으면서 그의 사기가 꺾 떨어진것을 보면서 선미는 가슴이 아팠으나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자기 몸에 탁친 병도 털어버리지 못한 처지에...

어느덧 삼라만상은 어둑속에 잠기었다. 캄캄한 저녁하늘에선 그 어떤 심술궂은 거인이 마구 찢어발긴듯 한 검푸른 구름장들이 쌀쌀한 바람을 타고 흘러간다. 집마당가에서 남편은 쭈그리고앉아 개의 등허리를 쓸어주고있었다. 귀가 발딱하니 서고 가슴이 발달되었으며 누런 털에 자르르 윤이 흐르는 탐스러운 개였다. 남편이 강아지를 동무에게서 얻어온 후부터 온 집안식구들의 귀여움을 받으며 자란 개다. 사람을 잘 따르고 집을 잘 지켜 무척 정이 들었던 개와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니 선미는 눈물이 나왔다. 금선이는 아마 집안에서 울고있을것이다.

《금선이 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겠어요? 애가 너무 서분해하는군요.》

선미는 딸 금선에게 빗대고 불만을 토로하였다.

《성산동무가 요새 정말 건강상태가 나빠졌소.

가득이나 몸이 약한 사람인데...》

준선은 심중한 얼굴로 말하다가 짐짓 웃음을 띠었다.

《여보, 당신이야 덕이 큰 사람인데 작업반을 위해서 개 한마리 좀 내는걸 가지고 뭘 그러오. 금선이에겐 고운 강아지를 한마리 사다줍시다.》

《성산이 그 사람이 금선이 아버지의 성의를 알기나 하겠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남편의 수리작업반원들은 비날론공장의 심장부라고 할수 있는 합성직장에서 알데히드생산공정과 초산생산공정의 건설공사에 참가하고있었다. 많은것이 부족한 형편에서 맡겨진 작업과제들을 넘쳐해제끼느라하면 무슨 일인들 생기지 않겠는가. 남편이 반장이니 반원들에게 욕을 할수도 있는것인데 그렇다고 리성산이 술을 마시고 고민을 하다가 위경련까지 일었으니 그런 사람이 변변하면 얼마나 변변하겠는가.

(그 사람은 원래 술버릇이 나빴어.)

선미의 머리속에는 다시금 성산이가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몰아가다가 딸 금선이를 넘어뜨린 그 일이 떠올랐다.

(정말 애군이라니까.)

마음이 알끈해진다.

다정하고 아기자기한 가정생활에 남달리 애착을 느끼는 녀성이여서인지는 모르나 남편이 세대주라는 자각을 어딘가에 뿌려던지고 영 잊어버린것만 같아 두렵고 마음이 아프기도 했다.

문득 그 녀자는 시든 꽃이 꽃병에서 밀려나듯이 남편의 마음속에서 점차 밀려나는 존재처럼 자기를 느끼었다. 자기가 밀려난 그 자리는 리성산을 비롯한 작업반원들이 차지해버렸다.

그렇다. 안해와 가정에 대한 남편의 관심이 떠지기 시작한것은 작업반장으로 임명되어서부터 인것 같다. 그때부터 그는 자기 가정보다 작업반을 위해 정력을 쏟아붓는 사람으로 된것이였다.

온 나라가 한창 강행군의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반장으로 되어 그가 벌려놓은것은 작업반휴계실을 새로 꾸리는 일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는 때에 왜 그런 일을 벌리는가고 의문을 표시하는 선미에게 힘들수록 생활을 락천적으로 알뜰하게 꾸려나가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미 리용하고있던 휴계실이 좁거던. 게다가 비가 오면 비물이 새어들어오지. 그런데도 참고 견디면서 살아야 한다는거요? 우리 동무들이 작업반에 안착하자면 이런 휴계실로는 안되오.》

공사에서 작업반에 부과된 과제를 해제끼면서

휴계실을 꾸린다는것은 험치 않았다.

하여 일부 반원들속에서 공연히 일을 벌려놓았다고 불평을 하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그러자 준선은 이미 리용하던 휴계실을 아예 헐어버려 애당초 낡은 휴계실에 대한 미련을 없애치웠다. 그는 결심한것을 무조건 해내고야마는 배짱군이였다.

작업반휴계실을 끝내 번듯하게 지어놓고 깨끗하고 문화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게 되자 모든 반원들이 좋아하였다. 이 휴계실을 꾸린다고 집수리에 쓰려고 모아두었던 자재들을 적지 않게 내았는데 그때마다 선미는 밝게 웃을수가 없었다.

《당신 인상이 왜 그렇소? 좀 웃구려.》

남편의 말에 선미는 더욱더 울상이 되였다.

《다 내가면 집수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걱정은 마오. 이 세대주가 다 알아할테니 나만 믿소. 우선 작업반휴계실을 꾸린 다음에 보지요.》

작업반휴계실을 꾸린 다음에 남편은 작업반에서 토끼기르기를 벌려놓았다. 하루는 남편이 퇴근하면서 반원들을 모두 데리고 집에 들어왔다. 의아해하는 선미에게 남편은 웃으면서 말하였다.

《다같이 토끼기르기공부를 하자는거요.》

남편이 록화기를 켜자 텔레비죤화면에는 토끼기르기에 대한 과학영화가 펼쳐졌다. 방안에 모여앉은 반원들이 주의깊게 과학영화를 보는데 선미는 부엌에서 그들에게 대접할 식사준비를 하였다.

(좌우간 별생각을 다 해낸다니까. 기업소일을 하면서 어떻게 토끼를 기른다는걸까?)

이때 밖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선미는 중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은 딸 금선이가 걱정되였다. 그 애는 요새 학교에서 학년말시험공부를 하느라 좀 늦게 들어오곤 하였다. 선미는 방에 있는 남편을 불러 자기가 우산을 가지고 학교에 갔다오겠으니 그동안 탄불에 올려놓은 가마의 밤이 타지 않게 봐달라고 부탁하였다.

《걱정말고 갔다오오.》

선미는 우산을 꺼들고 집을 나서면서 피식 웃음을 머금었다.

(언제나 걱정말라는 소리뿐이지. 그저 그 말이 입에 올랐다니까.)

선미가 딸을 데리고 집에 도착하니 밥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남편이 밥주걱으로 밥을 휘저으면서 씩 웃었다.

《걱정말라더니 밥을 태웠군요.》

《응, 그렇게 됐소. 과학영화를 보느라니 깜박했지. 하지만 걱정마오. 우리 동무들이 다 탄밥

이 더 좋다는구만.》

《세상에 탄밥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선미는 약이 올라 토달거렸다.

그런데 남편의 작업반원들은 누구나 선미를 보며 싱글벙글했다.

《언어먹는 사람이 무얼 나무랄 형편이 됐소.》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머니, 일 없습니다. 탄밥이면 탄밥, 선밥이면 선밥... 반장 동무의 집에서 한 음식은 다 좋은걸요.》 하고 위안하려드는 사람도 있었다.

반원들은 방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면서 토끼를 어떻게 기르며 길러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웃고 떠들며 풍성한 앞날을 그려 보는 것이었다.

그후 선미는 남편을 만나러 작업반에 나갔다가 규모있게 지어놓은 토끼우리며 그속에서 뛰어노는 토끼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

《정말 토끼기르기를 하는군요.》

선미의 말에 남편은 머리를 끄덕이였다.

《하지 않구. 토끼들이 크면 작업반원들에게 나누어주자는거요. 영양보충을 잘해야 나라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할수 있지 않겠소. 우리 반원들이 누구나 앓지 말고 건강해야 하오.》

그때 선미는 얼마나 섭섭한지 몰랐다. 그자신도 앓고있는 몸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남편은 반원들의 건강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는것 같았었다.

선미는 그때의 서분한 감정이 다시금 되살아나는듯싶었다.

그러나 준선은 선미의 심정은 아랑곳없이 심각한 어조로 말하고있었다.

《이번공사에서 한사람, 한사람의 고급기능공들이 얼마나 귀중한지 당신은 다는 모를거요. 성산동문 고급기능공이요. 지금은 우리 작업반에 있는걸 실통해하지만 앞으로는 작업반의 기둥이 될거요.》

공사를 위해서라는 남편의 말에 선미의 마음에는 어느 정도 위안이 온다.

(내가 금선이 아버지를 이해해야지, 일을 더 잘해보자는건데...)

선미는 남편을 위해 다시한번 크게 양보하였고 안해로서의 희생을 스스로 자부하였다.

1년후에 2.8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는 위대한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현지지도말씀을 받들고 비날론생산공정을 전부 살리기 위한 총돌격전이 벌어졌다. 각 직장과 작업반들사이에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는데 김준선의 2카바이드직

장 수리작업반이 앞장에서 나갔다. 박선미는 녀맹돌격대에 속하여 자주 공사장에 지원로동을 하러 나갔는데 그때마다 남편의 작업반원들이 세우는 위훈의 소식들을 듣고 기쁨을 금할수가 없었다.

남편은 아침일찍 나갔다가 밤늦게야 들어오곤 하였다. 어떻게나 힘들게 일했는지 집에 들어와 밥을 먹기 바쁘게 뿔아떨어지곤 하였다. 날이 갈수록 남편의 얼굴이 못쓰게 되는것이 저으기 가슴이 아파 어느날 닭곰을 한마리 만들어 내놓았다. 밤에 들어온 남편은 닭곰을 먹다가 혼자소리처럼 말하는 것이었다.

《이런 닭곰을 작업반사람들에게 다 먹일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소. 지금 정말 영양보충을 잘해야 하는데...》

《작업반에서 기른 염소들에서 젖을 짜서 매일 먹인다면서요?》

언제부터인가 남편의 작업반에서는 염소들을 길러 반원들에게 염소젖을 짜먹이고있었다. 토끼기르기로부터 시작하여 염소기르기로 발전한 작업반 축산은 중단없이 계속되고있었다.

《염소젖이 닭곰만이야 하겠소.》

선미는 더 닭곰을 들념을 앓고 멍하니 내려다보기만 하는 남편의 모양이 안타깝기도 하고 왜선지 자기의 성의를 몰라주는것만 같아 약이 오르기도 했다. 그래서 토라진 소리를 했다.

《지금 당신꼴이 어떤지 알아요? 제몹이나 걱정할게지.》

《내가 제몹 하나 생각한다는게 어디 말이 되오?》

남편의 핀잔조의 말에 선미는 갑자기 신경이 곤두섰다.

《그럼 제몹을 돌보지 말아야 한다고 해야 말이 된다는거예요? 그러다가 쓰러지면 어떻게 하겠다는거예요.》

준선은 어처구니가 없는듯 껄껄 웃어댔다.

《이제 몇달후이면 비날론이 쏟아지는걸 보게 되겠는데 내가 쓰러질수가 있소? 어떻게든 버티나갈거요.》

준선은 잠시 말을 끊고 그 어떤 간절한 빛이 어린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다가 동을 이었다.

《여보, 2년전 삼복철이 생각나오? 난 우리가 해수욕을 하러 갔던 그날이 잊혀지지 않는구만.》

선미는 남편이 상기시키는 그날이 어떤 날이였는지 잘 알고있었다.

아, 어찌 그날을 잊을수 있단 말인가!

너무나 무더위 숨이 킁킁 막히던 날이였었다.

그날 선미의 가족은 물론 남편의 작업반 성원들

도 가족들을 다 데리고 마천유원지에 놀러 갔다. 바다물에 뛰어들어 달아오른 몸을 식히면서 실컷 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바로 그날 아버이자장군님께서 2.8비날론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었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유산인 비날론을 되살리자고 뜨겁게 말씀하시는 장군님의 야전복의 목깃은 땀으로 축축히 젖어있더라고 일꾼들은 말하였다.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선미도 울고 남편도 울었다.

자기들이 더위를 피해 바다물에 뛰어들던 그날에 장군님께서 비날론의 운명을 안고 속을 태우시며 공장을 돌아보시었던것이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공장을 찾아주신 아버이자장군님!

《금선이 아버지, 내가 어떻게 비날론을 위해 기울이시는 아버지장군님의 심혈과 로고를 잊을수 있겠어요.》

선미는 저도 모르게 걱정이 치밀어올라 눈물이 글썽해졌다.

《그래, 우리가 장군님의 그 로고를 잊는다면 사람이 아니지.》

준선은 머리를 끄덕이고나서 계속하였다.

《그런데 여보, 이 준선의 힘 하나만으로는 우리 장군님의 뜻대로 비날론을 불러올수가 없구려. 나 혼자 혁신해서는 안된단 말이요. 오직 우리 공장사람들전체가 달라붙어 집단적혁신을 일으킬 때에라야 비날론... 비날론을...》

준선은 말끝을 채 못 맺고 고개를 떨구고말았다.

어느덧 선미의 두볼로 눈물이 흘러내리고있었다.

선미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나서 남편을 이부자리우에 눕히었다.

선미는 굳잠에 든 남편의 얼굴을 이윽히 들여다보았다. 젊었을적에 무척 매혹되었던 그 얼굴, 류달리 애티가 나던 그 얼굴에 이제는 자중함과 함께 무거운 고뇌도 깃들어있는것만 같았다. 눈귀와 미간의 주름살도 한결 더 깊어진듯싶었다.

선미는 뼈저린 자책감에 휩싸여 입속으로 뇌었다.

(당신을 미처 따르지 못하는 날 용서해요. 내 더 힘껏 당신을 도와나서겠어요.)

그밤 선미는 잠을 못 자고 궁싯거리면서 안해로서 할바에 대해 생각하고 또 생각하였다.

다음날 선미는 친척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까지 발동시켜 남편의 작업반원들에게 다 차례지게 닭곰을 만들었다.

선미는 저녁녁에 딸 금선이를 데리고 닭곰들

을 가지고 현장으로 남편의 작업반을 찾아나갔다.

준선의 작업반원들은 중합직장에서 저장조들을 제작하고있었다. 벌써 합성직장에서는 비날론의 기초물질인 초산비닐을 생산하기 위한 시운전이 진행되고있었다. 중합직장의 개건도 마감고비에 이르렀다. 중합직장현장에는 전등불들을 달아놓아 대낮처럼 환하였는데 여기저기서 용접의 불꽃들이 일고있었다. 준선은 안해가 뒤에 와선것도 모르고 용접에 열중하고있었다. 남편의 검실검실한 얼굴에 흐르는 구슬땀이 선미의 눈을 찔렀다. 선미는 그 땀방울을 닦아주고싶어 손수건을 손에 쥐고 꼬깃거리였다. 그러나 차마 그러지는 못하고 기다렸다. 마침내 남편이 용접고대를 놓고 망치를 들고 용접한 부위를 두드려댈 때 《금선이 아버지.》 하고 불렀다. 남편이 돌아보고 놀란 표정을 짓는다.

《당신이 어떻게?》

《닭곰을 가지고 나왔어요.》

《닭곰?... 어제 내가 먹다 남긴것 말이요?》

《아이참, 당신은 무슨 말을... 작업반원들의 뭇을 다 해왔단 말이에요.》

남편은 선미가 펼쳐보이는 구력들을 보더니 얼굴이 환해졌다.

《아니, 이 많은걸 어떻게?》

《금선이 아버지가 반원들에게 한마리씩 다 먹이고싶다고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정이 어린 눈으로 선미를 보더니 슬그머니 손을 잡아쥐었다.

《고맙소. 정말 당신은 날 감동시키는구만. 글썽 내 당신이 뭘 바라는지 다 안다니까.》

문득 선미의 머리속에는 결혼식을 하던 날 남편이 하던 그 말이 떠올랐다. 그때도 남편은 일생 사랑하겠다고, 동무가 바라는데 뭘지 다 안다고 말했었지, 대체 내가 뭘 바라단 말인가?

선미는 자신도 그것을 똑똑히 알수가 없었다.

이윽고 남편의 작업반원들이 모여앉았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선미에게 감사의 말을 하였다.

《잘 먹겠습니다.》

《아주머니의 성의를 봐서라도 우린 사회주의경쟁에서 꼭 1등을 하겠습니다.》

《그저 금선이 엄마가 제일이라니까.》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선미는 마음이 흐뭇해졌다.

딸 금선이는 모여앉아 닭곰을 먹는 작업반성원들앞에서 노래를 불렀다. 비록 목소리는 신통치 못하였으나 절절한 목소리는 그들의 심금을 울리었다.

《아저씨들, 하루빨리 공장을 일떠세우고 비날론을 뽑아내게 해주세요.》

선미는 아버지의 일을 성심성의로 돕고 싶어하는 딸애가 기특하였다. 아버지가 자기가 고와하던 개를 끌고 나갈 때는 뽀로통해있더니 이제는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한것일까? 하기야 금선이도 비날론을 사랑하는 부모의 딸이니 달리야 살수 있겠는가.

선미가 작업반에 닭곰지원을 한것을 계기로 작업반가족들의 적극적인 지원사업이 벌어지게 되었다. 선미는 자기도 모르게 작업반가족들의 본보기가 된것이다. 그러니 작업반의 안해들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 더욱더 지원사업에 열성을 내지 않을수가 없었다.

어느날 또 음식들을 마련해가지고 지원을 나갔다. 그날은 성산의 집에서 지원을 나왔는데 뜻밖에도 단고기장이 풍성하게 차려졌다.

반원들이 모두 놀라는데 몸이 마르고 얼굴이 길쭉한 성산이가 싱글벙글거리면서 말하는것이였다.

《반장동지, 이 단고기에 깃든 사연을 들어보겠어요? 1년전에 반장동지가 우리 집에 중개 한마리를 끌어다주었지요. 내가 몸이 약하다고 몸보신을 하라고 말이에요. 아마 이에 대해서는 반장동지나 우리 가정을 내놓고는 다들 모를거예요.》

성산이가 잠시 침묵했는데 그의 안해가 계속하였다.

《그때 세대주는 개를 못 잡게 하더군요. 그래서 우린 그 개를 집에서 길렀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작업반원들모두에게 대접하자고 잡게 하더군요.》

선미는 가슴이 뜨거워져서 단고기장을 내려다보았다.

1년전 그렇게 알찌근한 심정으로 개를 내놓았을 때에야 오늘같은 날을 보게 될줄 어찌 상상했으랴.

《성산동문 너무 속이 깊어 나로선 헤아리기가 어렵구만.》 하고 준선이 룡조로 말하면서 선미에게 미소를 보내었다.

그 미소속에는 《우리 동무들이 얼마나 장하오.》 하는 의미가 어려있었다.

성산이가 선미에게 단고기장 한그릇을 들고와서 말하였다.

《어서 드십시오. 이 개를 키운건 금선이 엄마지요.》

성산은 잠시 침묵했다가 계속하였다.

《어서 들어보라니까요.》

《예, 들겠어요.》

《아주머니는 내가 금선의 얼굴에 상처자국을 남겼는데도 날 위해 크게 마음을 썼지요. 난 언제부터 아주머니를 형수님이라고 부르고싶었어요. 그렇게 불러도 일없지요?》

《일없지 않구요.》 선미는 감동으로 눈곱이 축축해졌다.

무엇이 이렇게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주는가? 비날론을 떠나서 우리의 화합을 어찌 생각할수 있단 말인가.

선미는 새삼스럽게 비날론을 그리었고 비날론을 목매여 불렀다.

그러자 기꺼이 화답하며 가까이 다가오는 비날론의 속삭임소리를 온몸으로 듣는것만 같았다.

《형수님, 사양 말고 다 들어야 합니다.》 하고 말하는 성산의 말에 선미는 소스라치듯 환상에서 깨어났다.

《우선 형수님이 건강해야 우리 형님이 마음놓고 일을 잘할게 아닙니까. 우리 작업반엔 반장동지가 없으면 안됩니다. 말하자면 우리 작업반의 세대주와 같은분이란 말입니다.》

《성산동문 무슨 말이 그리도 많소?》

준선이 못마땅한듯 얼굴을 찌프리는데 성산은 개의치 않고 계속 말하였다.

《내가 없는 소릴 지어서 하나요. 정말 우리 작업반엔 반장동지가 없으면...》 성산은 설레설레 머리를 흔들었다.

이윽고 식사를 끝내자 준선이가 먼저 일어서면서 말하였다.

《자, 한바탕 또 혁신해보자구.》

작업반원들이 준선을 따라서 재빨리 작업에 달라붙는다. 준선의 말 한마디에 반원들은 하나와 같이 움직이고있었다.

그 순간 선미는 남편이 한가정의 세대주라기보다는 작업반의 존경받는 세대주로 살고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

그렇다. 남편의 마음은 더욱더 커졌으며 따라서 그 마음속에 자기가 차지하는 부분이 그만큼 작아질것이야 너무나 명백하지 않은가.

그렇다고 남편을 나무라고싶은 마음은 꾀물도 없었다.

남편과 그의 작업반원들이 혁신을 일으켜나가는 속에 비날론공장이 다시 일떠서고있지 않은가. 나의 젊은 시절의 꿈이 깃들었고 희망이 아직도 깊이 숨배여있는 수직방사직장이 멀지 않아 돌아갈것이 아닌가.

그러니 웅당 나는 남편을 긍지롭게 여겨야 할것

이다.

선미는 저르기 부푸는 가슴을 안고 남편과 그의 작업반원들이 일으키는 용접불꽃을 축포인양 황홀하게 바라보았다.

어느날 밤 선미는 가까이에서 수직방사직장을 보게 되었다.

벌써 중합직장은 생산공정들이 시운전에 들어갔다.

남편의 작업반은 지금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건설되는 순환비동충보이라공사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수직방사직장은 코앞이었다. 수직방사직장현장은 환한 불빛에 휩싸여있었고 그 쪽에서 예술선동대원들이 부르는 힘찬 노래소리가 울려오고있었다. 선미는 수직방사직장에서 노동자들이 비날론을 뽑아내기 위한 설비정비를 본격적으로 하고있다는것을 알고있었다.

(너도 일어나고있구나. 너 얼마나 오래동안 숨이 죽어있었느냐.)하고 선미는 마음속으로 뇌이였다.

그는 금시라도 자기의 옛추억이 깃들어있는 직장으로 달려가고싶었다. 자기가 일하던 기대를 제 손으로 만지며 반짝반짝 윤이 나게 닦고 또 닦고싶었다. 그러나 몸이 얼어붙은것처럼 움직여지지 않는다. 비날론생산공정들이 몽땅 벗어섰던 간고했던 그 시절에 비록 몸에 병이 생겨 일터를 떠났을지라도 어쨌든 그 일터를 버렸었다는 죄의식이 그의 가슴을 옥죄고있었던것이다.

선미의 두눈에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이였다.

이때 딸 금선이가 찾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깜짝 놀라 눈굽을 훔치며 돌아섰다. 어두운 밤이어서 금선이가 자기의 얼굴에서 눈물을 볼수 없는것이 다행스러웠다. 금선은 아버지네가 밤참을 다 먹었다면서 어서 치우자고 하는것이였다.

《내가 허튼데 정신이 팔렸됐구나.》

선미는 딸애에게 웃어보이며 남편의 작업반원들이 모여앉은 곳으로 바삐 걸어갔다.

그날 밤 선미는 꿈을 꾸었다. 그는 수직방사직장의 기대에서 비날론피섬유를 뽑아내고있었다.

이제 몇해만인가. 그는 환회에 넘쳐 울고웃으며 동무들과 붙들고 돌아갔다. 드르릉, 드르릉 방사기가 돌아가는 소리, 수천개의 샤와구멍과 비슷한 노즐을 통과한 방사원액이 용액속에서 응고되어 섬유로 되는 모양은 얼마나 신기한것인가. 번쩍거리는 붉은 로라를 타고 여러줄로 갈라진 피섬유가 흘러간다.

그는 하조장에 쌓이는 비날론피섬유에 얼굴을

묻었다. 따뜻하고 보드라운 비날론섬유의 감촉은 가슴을 몽클하게 한다.

《난 이제 너를 떠나지 않겠어.》

선미는 눈물겹게 속삭이다가 꿈에서 깨어났다.

그는 아쉬움속에서 꿈장면을 하나하나 돌이켜보면서 한숨을 쉬었다.

아, 이제 다시 그 기대에 설수는 없을까?

사람의 육체도 참 신비스러운데가 있었다. 비날론생산공정이 다시 일떠선다는 사실은 선미의 육체에 류다른 활력을 가져다주었으며 이전에는 자꾸만 아프던 심장도 편안해지고있었다. 그 심장은 확실히 비날론생산공정이 벗어선 그날부터 너무나 고심하던 나머지 병이 들었던것만 같았다.

이틀후 선미가 남편의 작업반원들이 일하는 현장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10여년전에 함께 일하던 작업반장이 그를 찾았다.

《선미동무, 어디 갔댔소?》

선미가 남편의 작업반에 지원을 하고 가는 길이라고 하자 반장은 머리를 끄덕인다.

《김준선작업반이 지금 위훈을 창조하고있지. 거기에 선미동무도 한몫 하고있었구만. 그런데 이제 직장에 나올 생각이 없소? 방사직장 시운전을 당장 해야겠는데 기능공들이 부족하오.》

선미는 가슴이 후둑 뛰었다. 방사기가 돌아가는 동음이 귀가에 울리는것만 같았고 그 소리는 자기를 부르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제가 다시 나온다면 받아줄가요?》 선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소릴 하오. 선미동무의 몸만 일없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하지.》

《고마와요.》

선미는 기분이 떠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다음부터 그냥 마음이 흥그러웠다. 그러면서도 과연 자기 몸이 육체적인 부담을 이겨낼수 있겠는가고 은근히 불안을 느끼기도 했다. 또 여느때없이 긴장한 전투를 하고있는 남편의 뒤바라지를 잘해야 하겠는데 그것을 감당하면서 출근할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가 갈마들기도 했다.

그날 밤 선미는 이 생각, 저 생각 자반뒤집기를 하느라 잠 못들었다.

다음날 공장에서는 사회주의경쟁총화가 있었다.

이번경쟁총화에서도 남편의 작업반이 1등의 영예를 쟁취하였다는 소식이 비날론지구에 파다하니 퍼지였다. 선미는 마치 자기의 노력이 평가받은것처럼 기쁨으로 가슴이 설레이었다.

남편은 퇴근하면서 여러가지 경쟁상품을 가지고 왔다.

그런데 상품들중에서 류달리 선미의 눈을 잡아 끄는것이 한가지 있었다. 그것은 새 작업복이었다. 왜선지 그 평범한 곤색작업복이 혁신자로 이름떨치던 자신의 지난날을 상기시켜주는것이였다. 다시금 저런 작업복을 입고 일터에 선다면 얼마나 좋을가.

선미는 불쑥 솟구치는 충동을 이길수가 없어 성급하게 남편에게 물었다.

《금선이 아버지, 만약 내가 공장에 다시 출근 하겠다면 어찌겠어요?》

준선의 얼굴에 놀라움이 비끼였다.

《그래 수직방사직장 기대에 다시 선다는거요?》

《그래요.》

순간 준선의 줄음기가 어렸던 두눈이 금시 초물을 견것처럼 번쩍이였다.

《정말이요?》 하고 그가 따져묻는다.

《정말 아니구요.》

초물처럼 타던 남편의 두눈에 황황 세찬 불길이 타번치고있었다. 선미는 별안간 두려움을 느끼면서 몸이 웅송그려졌다.

이때 준선이 한무릎 다가앉으며 선미의 손목을 덥석 쥐었다.

《야.》 준선은 마치 아이처럼 탄성을 내질렀다.

《그러니 끝내 이런 날이 왔단 말이지. 내 얼마나 오늘을 기다려온줄 아오. 당신이 다시 비날론을 뽑아내게 되기를 내가 얼마나 바란줄 아는가 말ियो.》

선미는 어리둥절해졌다.

《금선이 아버지는 언제 그런 생각을 다 했어요?》

《비날론생산공정이 몇어선지 16년전이었지. 그때, 난 16년동안 바랐고 기다려왔소. 비날론을 위해 모든 힘을 다 바치는것이 바로 당신을 위한 일로 된다는것을 내가 왜 모르겠소? 당신이 비날론 생산공정이 몇어선 후에 병이 생겨 집에 들어오면서 몹시도 고민했다는것을 내가 왜 모른단 말ियो.》

내 이런 날이 올줄 알았다니까. 그렇지 않아도 내 이미 생각하고있었댔소.》

준선은 별안간 선미의 눈을 그렇게 끌던 그 새 작업복을 집어들었다.

《자 옛소, 당신거요. 어서 입어보오.》

선미는 남편에게 곱게 눈을 흘기였다.

《금선이 아버지는 날 놀리는거예요? 남자작업복을 어떻게 입는다고 그래요.》

준선은 작업복을 펼쳐보이였다.

《이게 왜 남자작업복이란 말ियो. 자, 보오.

당신에게 꼭 맞춤직 한 녀자용이지.》

선미는 놀라서 와락 작업복을 끌어당겼다. 과연 녀자용이였고 자기의 몸에 맞춤해보이였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선미는 놀란 그러나 환희가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내 우정 녀자작업복을 타왔소. 수직방사공정을 돌리게 된다는것을 알게 되면서 난 당신을 많이 생각했소. 당신이 그 작업복을 입고 일터에 선다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를 그려보았소. 그래서 내 우정 녀자작업복을 타온거요.》

내 그전에, 한창 젊었던 시절에 당신에게 말했지. 내 일생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겠다고, 당신이 무엇을 바라는지 다 안다고...

그때, 난 당신이 무엇을 바라는지 알고있소. 당신이 비날론을 뽑아내는데서 생의 보람과 기쁨을 찾는다는것을 다 안단 말ियो.》

선미는 불쑥 눈물이 솟구쳤다.

아, 얼마나 뜨거운 사랑을 지닌 사람인가. 남자의 사랑은 이런것인가.

남편이 작업반원들을 위해 바치는 정, 비날론을 위해 쏟아붓는 열정과 헌신, 비날론에 대한 꿈을 수 없는 사랑... 그 모든것에 안해에 대한 사랑도 함께 존재해온것이였다. 남편이 바치는 그 모든 사랑은 하나로 융합되어 하나의 큰 사랑을 이루었는데 그에게서 팔과 다리를 잘라낼수 없듯이 그의 사랑에서 그 어떤것을 따로 갈라낼수는 없는것이였다. 선미는 남편의 이런 큰 사랑을 리해하지 못하고 자기만을 더 생각해주지 않는다고 섭섭하게 여기기도 했던 지난날을 돌이켜보며 부끄러움을 느끼였다. 그와 함께 남편이 더없이 돋보이면서 그에 대한 더욱더 뜨거운 사랑이 사무쳐오는것이였다.

남편이 아닌 어느 누가 내 작업복에 대해서까지 생각할것인가.

선미는 저도 모르게 남편이 준 작업복에 얼굴을 묻었다. 그러자 쏟아지는 눈물을 어쩔수가 없었다.

아, 내 작업복, 얼마나 입고싶었던가. 금선이 아버지, 당신은 나에게 가장 값진것을 주었어요.

내겐 이 작업복이 그 어떤 보물보다도 더 귀중한거예요. 이거면 돼요. 당신의 이런 사랑이 있는 한 난 앞으로 부닥치게 될수도 있는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낼거예요.

마침내 선미는 남편과 함께 공장으로 출근하였다. 이른아침부터 눈이 내리고있었다. 그들은 발등이 덮이게 두렵게 깔린 눈을 밟으며 걸어갔다.

선미에게는 하늘에서 오래간만에 함께 출근길에 오른 자기들부부에게 축복의 꽃보라를 뿌려주는것처럼 생각되었다. 문득 준선이가 말하였다.

《총각시절에 당신을 출근길에서 처음 만났던 그날이 떠오르는군. 그날도 하늘에서 눈이 내렸겠지. 당신은 여자치고는 무척 빠른 걸음으로 은근히 날 놀라게 했됐소.》

남편은 그때의 일을 하나도 잊지 않고있었다.

선미는 그것이 고마웠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눈이 송이송이 떨어져내렸다. 선미에게는 그 한송이, 한송이의 눈들이 다 사랑스러웠고 의미심장하게 느껴졌다.

그날에는 짜락눈이었는데 오늘은 소담한 함박눈이다. 그동안 그들부부간의 사랑도 것처럼 크고 소담스러워진듯싶었다.

아, 우리의 세월은 얼마나 좋은가!

눈은 하늘을 메우며 쏟아져내렸다. 선미는 철없던 시절처럼 입을 벌리고 내리는 눈을 맞보고 싶었다. 그 눈의 맛이란 다름아닌 행복의 맛일것이다.

눈은 포근하게 날아와 길우에, 어깨우에 내려앉았다. 그 눈은 단순히 다정한 한 부부에 대한 축복인것이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로 강성부흥으로 비약하는 이 세월에 대한 축복이었다.

선미는 처녀시절처럼 빠르고 활기차게 걸음을 옮기었다. 마치도 오래동안 헤어졌던 애인을 만나

러 가는듯 한 기분이였다.

그에게 있어서 그 애인은 다름아닌 비날론이였다. 하여 그는 비날론과의 상봉의 절정을 향해 내달리는것만 같았다.

선미의 귀전에는 결혼식날에 남편이 한 말이 다시금 되살아올랐다.

《난 당신이 무엇을 바라는지 알고있소.》

선미는 살며시 미소를 짓고서 마음속으로 뇌이였다.

(금선이 아버지, 이제 난 더 바라는것이 없어요.)

×

후날 비날론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현대적인 비날론공장을 일떠세우는데 기여를 한 수십명의 노동자, 기술자들에게 로력영웅칭호가 수여되었다. 2카바이드직장 수리작업반에서는 반장 김준선과 함께 리성산을 비롯하여 8명의 영웅들이 배출되었다. 사람들은 김준선의 작업반을 《영웅작업반》이라고 불렀다.

어느 출판사의 기자가 영웅작업반의 반장인 김준선을 취재하기 위해 그의 안해를 만났는데 그 여자는 자랑스럽게 말하였다.

《글쎄, 뭐라고 말할가요. 그저 내가 보건대 저의 남편은 사랑할줄 아는 남자라고 할수 있지요.》

상 식

상 표

산업미술의 한 형태인 상표는 어떤 상품이나 봉사와 구별하기 위하여 밝히는 표식이다.

상표는 일정한 상품이나 봉사를 외적으로 반영하는 표식으로서 그 질과 신용을 담보하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상표는 오랜 기간의 사용과정에 그 상품이나 봉사의 질과 량에서 수준이 높아지는것으로 하여 수요자들속에서 신용과 명예를 얻게 되는데 이때 상표는 해당 상품이나 봉사를 대표하게 된다.

상표는 목적에 있어서 일정한 상품이나 봉사를 같은 종류의 상품이나 봉사와 구별하기 위한 수단이다. 수요자는 상표를 통하여 해당 상품이나 봉사의 질, 그것을 사용하는 기업이나

봉사에 대하여 료해하게 된다.

상표는 이처럼 상품이나 봉사에 대한 식별작용을 할뿐아니라 그 상표를 사용하는 기업이나 그 기업에 의하여 생산된 상품의 신용이나 명예에 대한 표식으로도 된다.

상표는 상표권으로 등록되어 법적보호를 받는다.

상표권은 독점성, 시간성, 지역성을 가진다.

상표권은 다른 공업소유권대상들과는 달리 보호기간연장에서 제한이 없으며 현재 사용하고있다고 인정되고 상표보호유지비를 제때에 계속 지불한다면 영원히 인정될수 있다.

만날수 없었던 사연

기 경 호

신발창이 닳도록!

우리 당의 변함없는 인민사랑의 의지가 얼마나 웅심깊게 울려나오는 명구인가.

오늘날 우리 일군들의 전투적인 사업기풍으로, 신조로 되고있는 이 말.

나는 우리 일군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깊은 뜻이 어린 이 말을 어떻게 심장으로 받들어나가고있는가를 취재나갔던 어느 한 군에서 느낄수 있었다.

《손님은 아마 우리 군에 처음 오신가보지요?》

벌써 두번째로 듣게 되는 물음이었다. 혹시 이 고장 사람들은 주인과 손님을 판별하는 남다른 감각을 지니고있는것은 아닌지...

일인즉 이렇게 되었다.

×××군에서 주민들에 대한 상품공급사업이 정상화되고있다는 소식을 들은 나는 그쪽으로 가는 차편에 몸을 실었다.

이튿날 출근시간무렵에 나는 그곳 인민위원회로 갔다.

《우리 위원장동지를 만나시겠대구요?》

곱살하게 생긴 접수원처녀가 생글 웃으며 나에게 물어보는것이였다.

이를테면 지금이 어느때인데 사무실에 와서 일군을 찾는가 하는 은근한 편잔이었다.

식료공장 현대화공사와 관련한 협의회를 현장에서 가지기때문에 아침에 곧추 거기로 나가셨을거라며 처녀는 친절하게 공장방향까지 가리켜주는것이였다.

내가 묵은 러판을 기준으로 볼 때 식료공장은 정 반대방향이었다.

결국 추적방향이 잘못된것이다.

일군은 인민을 위해 현장으로!

나는 일군을 찾아 사무실로!

첫걸음은 수확이 없이 끝났지만 마음은 왜서인지 흥그러웠다.

협의회가 끝나면 곧 읍협동농장에서 열리는 소농기구전시회에 갈거라고 덧붙이던 처녀의 말을 상기하며 나는 걸음을 다우쳤다.

길을 가면서 혹시나 어기치지 않을까 하여 마주 오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며 공장에 도착했으나 금방 떠났다는것이였다. 실망해하는 나를 보자 푸수

해보이는 중년의 접수원녀인은 마치 그것이 제 불찰이거나 한듯이 미안해하면서 떠난지 한 5분정도 밖에 안되였는데 오면서 어긴것 같다고 말하는것이였다.

《나이가 40대 중반이라구요? 웃은 어떻게 입었습니까? 그리고 구두는 무슨 색깔이구요?》

《구두요?》하더니 그 녀인이 하는 말도 역시 되물음이었다.

내가 직업과 용무를 소개하자 그제서야 녀인은 알만 하다는듯 그 일군이 군에 온 첫날 위원회안의 일군들앞에서 했다는 말을 들려주는것이였다.

구두를 신고 책상앞이 아니라 로동화를 신고 인민들속으로!

이 말을 모른다면 아마 우리 군 사람이 아닐거라면서 개건현대화된 단위들을 자랑스레 손꼽는것이였다.

화학공장, 직물공장, 철제일용품공장 그리고 매해 계획을 넘쳐수행한다는 군안의 협동농장들... 정말이지 어디를 가나 들을수 있는 일군자랑이고 여기서도 일군들을 부를 때면 꼭꼭 《우리》라는 호칭을 즐겨쓰는것이다.

신발창이 닳도록 뛰어다니는 우리 일군!

집단주의가 우리 사회의 인생관으로, 고상한 물리로, 사회생활의 기초로 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 너무도 평범한 말이며 들을수 있는 부름이다.

허나 일군들이 인민들로부터 《우리》라는 호칭으로 불리워진다는것은 결코 쉽지 않다.

우리! 이 말은 인민의 심장이 주는 값높은 표창이다.

인민을 위해 자기의 심장을 바쳐 일하는 일군에게만 이런 고귀한 칭호가 안겨진다.

이런 생각으로 다시 발걸음을 돌려 소농기구전시회가 열리는 읍농장에 갔으나 거기서도 끝내 만날수 없었다.

허나 나는 전혀 서운하지 않았고 나의 취재는 실속있는 수확을 거둔셈이었다. 도시와 멀리 떨어진 외진 산골군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만큼 번듯하게 꾸려진 읍거리와 리소재지들, 날로 활성화되는 군내 지방공업과 높아만 가는 인민생활수준에서 나는 군의 호주로서의 그 일군의 남다른 면모

를 엿보았던것이다.

그렇다. 오늘날 인민생활문제는 그 단위를 책임진 일군의 일본새가 비추이는 거울이다.

그것은 인민을 위해 자기를 바치는 여기에 수령을 진심으로 모시는 자세와 립장, 당과 혁명에 대한 태도,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 다 비끼기때문이다.

강성국가건설의 성과가 인민생활에서 나타나야 한다시며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불철주야 헌신의 로고를 다 바쳐오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심장으로 받들어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는 이런 일군들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바라시며 제일로 믿고 사랑하신다.

문득 나의 눈길은 군인민위원회청사의 정면에

가뒀었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아, 우리는 얼마나 좋은 세상에서 위대한 아버이를 높이 모시고 사는가.

인민생활향상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는 고마운 어머니 우리 당!

천만자식을 따듯이 보살펴주는 당의 그 사랑을 더 잘, 더 빨리 가닿게 하려고 밤낮없이 아글타글 애쓰며 신발창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 우리 일군들만이 아닌 우리 인민 모두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대한 진군의 발걸음에 한마음한뜻으로 보폭을 맞추어 최후승리를 향해 달리고 또 달린다.

언제나 앞으로 곧바로...

금 골 광 부

— 공화국영웅 박태선동무를 노래함 —

서 진 명

산은 제가 보화를 품었다고
쫓구쳐 사랑하지 않고
진주보석은 자기의 진가를 알아달라고
소리높이 웨치지 않더라

그렇더라
조국의 북변 보화의 산악
검덕산은
못산들과 어깨를 나란히 맞대인 산

그 귀한 보화를
수천척땅속에서 피땀으로 안아올려
조국을 빛내는 사람들이 사는 땅
아, 금골은 조국이 못 잇는 고장

하늘엔 별들이 많아 아름답듯
땅속엔 위훈의 금별이 빛나 성스러운 곳
내 그 별 하나를 노래하노라
공화국영웅 박태선

가슴에 훈장과 메달이 가득하고도
그는 거기에 바친 땀과 노력에 대해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더 큰 공을 세우길 바라는 조국의 믿음이어서

그는 동지를 위해 자신을 다 바친 사람
몸이 불편한 처녀를 안해로 삼았고
휴식일 퇴근길에 들린 곳은
집집승우리며 부뚜막수리 위한 동무들의 집

온 금골땅이 그의 모습 다는 몰라도
우리가 아는 그의 이름은
진짜배기광부... 금골의 보배...
영웅감...

그 사랑 그 믿음 그 기대가
동지의 생명위해 봉락속으로 뛰어들게 하였
거니
그는 헌신이 영생이라는 진리의 보물을
가슴가득히 안고산 금골광부

아, 금골은 무엇으로 빛나는가
아버이수령님과 장군님의 사랑의 자욱
막장 한끝에 생생히 새겨져있어
누리에 빛나는 땅

그 빛발 안고사는 삶을 영생의 별로
이 땅에 빛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계시여
금골은 인간보화의 산악으로
세상에 우뚝 솟아 빛나는구나!

하나를 위한 심장에서 고통치는 총정의 메아리

—장편소설 《하나를 위한 심장》을 읽고—

김 학

동서고금의 그 어느 문학사에서든 찾아볼수 없는 주체형의 인간전형을 창조하는것은 **김일성**민족의 우리 작가들만이 누리는 행운이며 특전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 끝없이 충실하였던 주체형의 인간전형들의 형상을 진실하게 창조하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장엄한 진군을 다그치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에 뜨거운 열기를 주고 새로운 승리에로 고무추동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은 수령을 언제나 마음의 기둥으로 굳게 믿고 당과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는 충신의 품도를 그리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장편소설 《하나를 위한 심장》(석남진 작)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장 가까운 동지이며 전사였던 항일혁명투사 김일동지의 생애를 풍만한 예술적화폭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주체소설문학사의 한페이지에 뚜렷한 흔적을 남겼다.

오직 하나를 위하여

원동에 기지를 둔 항일빨찌산들이 조국개선을 앞두고 그 준비를 다그치고있던 때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아무르강가에서 박덕산(김일의 본명)과 담화하시며 새 이름을 달아주신다.

《난 하나 〈일〉자를 생각했소. 박덕산동무야 혁명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아니요. 앞으로 혁명만 알고 혁명을 위해서만 살 사람이니 하나 〈일〉자를 생각한거요.

그래서 김일이라고 부르자고 하는데 어떻게? 박일이보다는 그게 어쩐지 더 친근하고 가깝게 느껴지거던.》

사령관동지의 이 말씀에 김일은 이렇게 대답올린다.

《전 사령관동지께서 이끄시는 혁명을 하고있습니다. 저에게서 사령관동지께서 계시지 않는 혁명

은 존재할수 없습니다. 그 혁명은 우리 조선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혁명입니다. 사령관동지와 같은 성을 쓴다면 부모님들은 분에 넘치는 영광으로 받아들이것입니다.》

수령과 전사간의 믿음과 총정의 세계, 혈연적인 관계를 숭고한 높이에서 보여주는 뜻깊은 장면이다.

소설은 바로 김일동지의 이름에 깃든 이 실재한 사실에 형상의 모를 박고 주체형의 인간전형, 혁명가의 전형을 창조하였다. 하여 원형의 긴 한생을 립체적으로 함축할수 있었고 주인공의 성격을 인상적으로 특징지을수 있었으며 작품의 모든 형상요소들을 한고리로 쥘수 있는 핵을 잡아쥘수 있게 되었다.

수령의 참된 전사 김일의 성격적특질, 그것은 혁명, 나아가서 그 혁명의 운명인 자기 수령 하나만을 아는 총정, 오직 그 하나만을 위하여 살고 그 하나를 위해서 목숨도 서슴없이 바치는 무한한 충실성이다.

소설은 김일의 이와 같은 성격형상을 통하여 수령에 대한 전사의 의리는 한생의 어느 한순간이라도 망각하지 말아야 하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언제나 줄기차게 흘러야 한다는 참된 삶의 진리를 심오히 밝히고있다.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주인공의 총정은 참으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며 생활로 굳어진것이다.

혁명전사로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김일의 신뢰와 흠모는 벌써 항일전의 첫 기슭에서부터 뜨겁게 발현되었다. 전영립반일부대를 이끌고 **김일성**장군님을 찾아 떠날 준비를 갖추던 때 헤어져 생사를 모르던 가족들의 소식을 뜻밖에 전해듣고도 만나고 가자는 영덕의 간청을 김일은 이런 말로 밀박는다.

《...장군님을 따르는 마음에 그 어떤 개인의 사정이나 감정을 뒤섞어놓지 말아야 한다. 오직 티없이 깨끗하고 순결하고 또 경건한 마음으로 그분을 받들고 따를 때에만 그이의 참된 혁명전사라고 할수 있을것이다.》

이것은 결코 그의 순간적인 충동이 아니었다.

일찍부터 **김일성** 동지의 지도를 받으며 혁명투쟁에 참가한 강정익의 영향을 받으면서, 반《민생단》투쟁의 소용돌이속에서 목숨을 잃을번 하면서, 조선혁명앞에 가로놓인 난국을 과감하게 헤쳐나가는 사령관동지의 소식을 들으면서 김일은 이미 우리 민족의 재생을 위해, 조국해방을 위해 그리고 혁명을 위해 **김일성** 장군님께 자신의 운명을 다 맡기기로 결심하였으며 장군님의 전사로 살며 싸우는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김일의 이러한 충정은 그의 한생의 좌우명이었고 삶의 전부였다. 하기에 작가 김람인이 서사시를 쓴다고 할 때에도 동무가 쓰는 작품들에 우리 군대가 **김일성** 장군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군대라는것을 강조하라고, 동무가 훌륭한 작품을 써낸다면 제일로 기뻐하실분은 바로 **김일성** 장군님이시라고 절절히 부탁, 고무하는것이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해방전쟁시기 전선사령부에 나오시였을 때에는 어깨를 부상당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김책과 함께 교대없는 보초병이 되어 수령님의 신변안전을 백방으로 보장하는것이다.

특히 만수대대기념비건설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김일이 취하는 단호한 립장은 그의 신념화된 충정, 수령결사옹위정신의 높이를 잘 보여주고있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대를 이어 계승될 때 참으로 승고한것으로 될수 있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김일의 충정의 한마음이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에 대한 충정으로 참답게 이어지는 생활도 진실하게 펼쳐보여줌으로써 수령의 전사의 전형적성격을 높은 경지에서 창조하고있다.

별써 항일 무장 투쟁 시기 부터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어리신 장군으로, 백두광명성으로 흠모하면서 크나큰 기대와 소망을 간직해온 김일은 정치, 군사, 경제, 문화의 각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부각되고있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인상에 매혹되면서 그이를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한 후계자로 떠받들어올린다. 하여 김일이 마침내 위대한 수령님을 찾아가 경애하는 장군님을 조선혁명을 령도할 후계자로 추대할것을 강경하게 제기하는것은 전사의 하나를 위한 심장이 어떻게 고동쳐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심오한 형상이며 빛나는 절정장면이라고 말할수 있다.

바로 이러한 충정의 인간이었기에 그는 노래중에서도 **김정일** 동지께서 지으신 《충성의 노래》를 제일 사랑하였고 공사현장에 나온 내각사무국 부장과 촬영가에게도 공사장촬영도 해야 하지만 그

보다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혁명활동을 기록영화에 수록하여 인민들에게도 알리고 영구보존하여 후세에 전하기 위한 사업을 잘해야겠다고 신신당부하는것이다.

수령의 전사로서의 충정의 인간은 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직책상임무를 수행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자기의 충실성을 공고히 하고 체질화한다. 자기 혁명임무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 책임성은 혁명가의 중요한 품성의 하나이다. 수령에 대한 충정은 현란한 말이나 격조높은 맹세속에 있는것이 아니다. 말은 잘할줄 몰라도 가슴속에 불타는 충정을 간직하고 어떤 역경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말은 적게 하여도 자신의 힘과 지혜를 다 바쳐가며 묵묵히 일하는 사람, 수령을 받드는 길에서 자그마한 드림이 생겨도 죄송감으로 하여 가책과 모대김속에 잠 못들며 오로지 수령의 사상으로 숨쉬고 수령의 령도에 발걸음을 맞춰나가는 사람이 우리 문학이 그려야 할 혁명가의 전형이다.

소설은 바로 김일의 성격속에 체현된 이러한 충정의 세계를 여러 측면에서 전형화함으로써 형상의 격을 높이고있다. 중병으로 신고하면서도 그는 결코 병상에만 누워있지 않는다. 지팡이에 의지하여 부관과 서기의 부축을 받으면서도 먼지가 이는 제철소구내길을 걷고 **김일성**종합대학 새 교사진설문제를 놓고 협의회를 지도하던중 졸도하기까지 한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력생산문제에 대하여 걱정하시자 자진하여 청천강화력발전소 건설장에 전권대표로 나가며 석탄문제를 풀기 위해 탄광의 막장에까지 들어가 탄부들을 불러일으킨다.

혁명적원칙성은 혁명가의 가장 중요한 품성의 하나이다. 소설은 김일의 성격에서 주요측면을 이루는 칼날같은 원칙성을 그의 혁명적수령관과 결부하여 여러 장면에서 보여주고있다.

《장동무, 명심하오. 원칙은 하나요. 여기서 부주석의 립장이 다르고 평범한 노동자의 립장이 다르고 또 동무처럼 오래 조국을 떠나 살다가 온 사람의 립장이 다를수 없는거요. 난 장총화동무를 예나 지금이나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오. 수령님을 따르는 그 깨끗한 마음이야 변함없는 동무가 아니요...

여긴 백두산이요. 후손만대를 두고 우리가 지켜가야 할 성산이란 말이요. 가는 곳마다에서, 백두의 혁명정신이 숨쉬는 곳에서 그 부련대장처럼 산다면 어떻게 하겠소. 백두의 혁명정신을 지켜싸워야 할 때에는 언제든지 투사가 되어야 하는거

요.》

혁명전적지건설돌격대를 찾아 일군들의 그릇된 처사를 두고 질책하는 김일의 이 말은 자기수령의 사상과 의도, 혁명전통과 배치되는 그 어떤 자그마한 싹도 절대 허용하지 않고 결사옹위해나가는 조선의 혁명가들의 혁명적원칙성에 대한 심오한 일반화이다.

소설은 이밖에 혁명렬사유자녀들을 비롯한 세대들이 특전특혜를 바라지 않고 혁명의 대를 뜻깊이 이어나가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는 형상과 초급당비서를 찾아가 자기가 생각한 기관내의 파동수집문제를 제기하고 의견을 받아 처리하는 형상들도 보여줌으로써 혁명가로서의 김일의 전형적 성격창조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수령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은 전사의 충정의 샘의 원천이다. 소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각별한 사랑과 믿음속에 영광넘친 삶을 한껏 누려가는 김일의 생활을 감동깊이 펼침으로써 수령과 전사사이의 사랑과 믿음, 보답과 충정의 철학을 웅심깊게 밝히고있다.

성격의 개성화

주체형의 인간전형을 창조하는데서 성격의 개성화를 원만히 실현하는것은 자못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나선다.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정을 제일생명으로 하고 수령의 사상과 로선을 결사관철해나가는데서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 책임성을 발휘해나가는 주체형의 인간들에 대한 형상창조에서 정치성만을 너무 강조하면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본성적요구를 원만히 실현할수 없다.

소설은 주인공의 형상에서 정치성과 함께 그의 고상한 인간성에 대해서도 응당한 관심을 돌려 개성화된 산 인간전형을 창조하였다.

고지식성과 검박성, 이것이 김일의 주되는 인간적특성으로 형상되었다. 사업과 생활에서 무한히 고지식하고 그지없이 검박한것이 김일의 개성적기질이다. 자기 수령 하나밖에 모르는 고결한 충정, 혁명임무수행에서 발휘되는 불굴의 희생성과 헌신성, 책임성은 모두 고지식하고 검박한 그의 인간적성품으로 안받침되어 그토록 공고하고 남다른것이다.

내각 제1부수상, 정무원 총리, 국가 제1부주석, 당 정치국 위원 등을 력임하는 당과 국가, 정부의 책임일군이지만 저택은 색날은 주단이 깔려있는 정도로 수수하고 즐기는 음식도 파나 풋고추, 된장에 감자음식이다.

그의 고지식성은 인간성에 굴절되어있다. 혁명렬사유자녀들이 특전특혜를 바랄가보아 그토록 원심을 쓰고 신칙하며 명석하고 젊은 부관과 서기가 자기에겐 매여 발전하지 못하는것 같아 죄스러워한다. 아무리 늦게 퇴근하였다 할지라도 꼭 어머니앞에 앉았다가야 자기 방으로 들어가며 일군들이 판가마뱀을 준비할가봐 마음을 쓴다.

파오를 범한 영천시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 강산호와의 관계만 놓고봐도 그렇다. 렬사의 후손이고 오랜 연고관계가 있는 사이이지만 김일은 그의 무책임한 사업태도를 결코 스쳐보내지 않고 엄중히 문제시한다. 해당 부문 일군들에게 과업을 주어 강산호의 사업을 현지에서 구체적으로 료해하도록 하고 직접 불러서는 며칠동안 심각한 비판검토를 한다. 잡도리를 보면 영악없는 해임철직이었다. 하지만 김일은 강산호가 자기를 심하게 뉘우쳤다고 인정되자 다시 초소로 떠나보내며 떠나기 전날 저녁에는 저택에 불러 마당에서 빨찌산식으로 감자구이를 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토로한다.

《산호는 이번일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우선 자신을 그 어떤 특수한 존재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파오의 시작으로 된다. 너희들은 어디가든 자신이 혁명가유자녀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자신을 내세우려는것이고 그 어떤 인정을 받으려는것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무한한 고지식성과 겸손성으로 일관된 김일의 이 타이름은 혁명선배의 엄한 충고이기 전에 자애깊은 아버지의 애정어린 당부이다.

소설은 이밖에도 대성산혁명렬사릉건설장에서 만난 옛 전우들의 자식들인 장현철과 한설미와 함께 사진도 찍고 그들의 결합을 위해 이모저모 마음을 쓰는 형상, 그토록 담배질군이면서도 수령님께 다시는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피로울 때 뿔아들었던 담배를 피우지 않고 밀어놓는 형상 등 고지식하면서도 인정미 있는 김일의 인간적향기가 풍기는 장면들을 적중하게 삽입함으로써 작품의 생활적인 폭을 넓히고있다.

완성된 혁명가는 없는 법이다. 주체의 인간학에서는 주인공의 혁명성을 그 어떤 타고난 천성으로 그럴것이 아니라 주체의 인생관에 기초하여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에 형성되고 공고화된 성품으로 보여줄것을 요구하고있다.

소설은 김일의 인간적인 성품이 타고난 천성이 아니라 백두산위인들을 몸가까이 모시고 오랜 기간 혁명을 해오면서 수령의 사상과 의지, 감정과 정서를 자기의것으로 완벽하게 체현하려고 노

백두산총대의 선언

김길성

나는 백두산이 지척에 보이는
대흥단벌마을의 한 시인
나의 고향엔 있다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

총을
순간도 잊지 말라고
꿈속에서도 잊지 말라고
나의 고향사람들만이 아닌
온 나라 사람들이 다 보라고 높이 솟은
선군의 총대탑

총이여 때가 왔다
만고의 역적 리명박패당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쓸어버릴 때가 왔다
한시도 더 지체해서는 안될
버리고버려온 총대탑의 서슬푸른 총창이
맺히고맺힌 원한을 풀 때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최고존엄
우리의 후손만대의 영원할 운명을
감히 모독한 원쑤놈 리명박
력대역적들의 범죄를 합쳐도 모자랄
만고의 범죄를 저지른 놈을
우리 어찌 용서한단 말인가

나는 1960년대 최전연병사
원쑤놈들의 새 전쟁도발도
핵전쟁불장난도
백두의 총대로 꺼버리며
이 땅우에 평화를 수호한 병사

이 가슴에 아직도
심장의 박동으로 된 노래가 있다
《수령이시여 명령만 내리시라》
이 가슴엔 아직도
그날에 품고온 총대가 있다
나의 고향 총대탑과 나란히

총대탑이여
나는 아직도 어제날 병사
이 총대 들고만 있어야 한단 말인가
백두의 번개가 장탄된 총
백두의 우뢰가 총성으로 터칠 총
이 가슴엔 아직도 그날의 노래
울려야만 한단 말인가

만일 원쑤놈들이 덤벼든다면
자비를 모르는 백두의 총대로
우리는 그날을
통일의 날로 맞이하리라

력하는 과정에 형성되고 다듬어지고 공고화된것이라
는것을 구체적인 형상으로 보여줌으로써 성격의
진실성을 보장하고있다.

그 단적인 실례가 동북민주련군 지동(길동)분구
공급부 부부장 정두환이 군복천을 해결받으러 김
일을 찾아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 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많은 군수물자를 동북전쟁에 보내주신
사실을 알고 그이의 깊은 뜻을 따르지 못하고 험
애한 생각에 빠져있는 자신을 뼈저리게 타매하면
서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김일의 형상은 끊임
없는 인간적수양속에 성장하고 자기를 완성해가는
혁명가들의 생활에 대한 진실한 반영인것으로 하
여 매우 감동적이다.

소설은 김일동지의 성격속에 체현된 정치성과
인간성의 모든 특징들을 평균주의적으로 토막내어
그리지 않고 그의 참다운 품모의 표징가운데서 가
장 본질적이며 전형적인것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어 생활적으로 잘 그리고있다.

소설에는 이밖에도 형상적측면에서 경험적으
로 논의할 문제점들이 적지 않다. 특히 적대적갈
등은 물론 흔히 있을법한 비적대적갈등관계도 실
정하지 않고 부피두터운 장편의 이야기줄거리를
엮어나간 창작적기교는 매우 경험적이며 시사적이
라고 생각된다.

참으로 장편소설 《하나를 위한 심장》은 주체
형의 인간전형을 창조할데 대한 주체의 문학리론
을 창작실천에 구현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심장을 다 바쳐 총
정다한 참된 혁명가—김일동지의 형상을 훌륭히
창조하였다.

소설은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시며 우
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따라 주체혁명위업, 선군혁
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하는데 이바
지할것이다.

시묵음

영원한 병사의 노래

나는 저격수

황 승 명

전화의 나날
나의 병사시절을 돌이켜볼 때면
저격수생활의 자랑찬 추억이
나에게 있어라

길을 가다가도 문득
방아쇠를 당기던 그때의 버릇대로
손가락에 지그시 힘을 주고
총메고 지나가는 군인들을 보아도
내가 다루던 보병총의 번호를 되새겨보는 마음

지원포의 사격도 필요치 않았다
고정된 사격좌지도 따로 없었다
언제나 손에 익은 보병총과 함께
풀숲에 바위틈에 몸을 숨기고
원썩을 사냥하던 저격수의 나날이여

대보름 밝은 달은 얼마나 좋았던가
귀뚜라미울음소리 얼마나 고마웠던가
영글은 그 소리 똑 그치면
달빛아래 드러나던 원썩의 검은 몸뚱이

내 고향에 달려들어 불을 지르고
누이동생을 죽였다는 그놈이 아닌가
지그시 방아쇠를 당기면

허공을 그러안고 너부러지던 늑
밤새껏 기다리다 짜놓힌 그놈이
그렇게도 《값비싼》 장교놈일줄이야
새로 꾸민 작전이 부서졌다고
릿지웨이사령부가 아우성치던
그때에야 나는 알았다

땅크병도 비행사도 우리를 숙보지 못한다
한자루 보총만 메고 나가도
미국놈의 모가지 두름으로 꺾치고 왔거니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타승한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전법에
그 이름 자랑높은 나는 저격수

세월은 흘러
내 이젠 검은 머리 희였어도
원썩을 겨누던 그날의 총구는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의 조성우에
피를 물고 쓰러지던 그 몰골 보이거니

아, 불비 쏟아지던 전화의 나날에도
행복한 오늘에도
원썩의 마지막숨통을 겨누고
방아쇠에 손가락을 건
나는 저격수

도 하 장 의 밤

권 태 여

남으로 뻗은 전선길의 한구간
이름없는 도하장에서
폐목을 떠메고 선 공병
물에 잠긴 어깨우에 떠도는 얼음장

이밤도 그 몇번
끓어진 다리를 이었던가
한점 불빛 없는 밤
손더듬으로 꺾쇠를 박고 폐를 못고

한몸 물속에 얼어들어도
굽힘없는 그 어깨우에
진격의 길 받들고선

결사의 모습 숨쉬는 기둥이여

포차들과 탄약차들
폐목다리 한치한치를
숨가쁘게 툄으며
철의 대오가 그대를 딛고간다

원썩겨는 천만의 총구에
멸적의 표적을 세워주며
복수의 불벼락을 재워준
불타는 강하의 이정표여

폐목다리 한구간에

전선천리길을 이어준 공병
그대의 더운 피
전우들의 심장에 백배로 끓거니

강철의 령장 수령님 그어주신
백전백승의 화살표따라
길을 열고 닫으며

길을 잇고 끊으며
공격전의 날개 달아준 공병

낮보다 밤이 많은 공병의 진지에서
동트는 고지의 만세소리를 듣는가
길을 받든 어깨우로 불이 흐르는
아, 도하장의 밤이여

파편 나무

박 태 설

1211고지
옛 격전터에
불탄 나무 서있네

포화에 불타 숯덩이 되고
양칼진 파편에 가지들 잘리운 나무
온몸에 수백의 파편 박히고
파편에 처참히 찢기여도
넘어지지 않고 머리들고 서있는
고지의 불탄 나무

나무는 우리에게 말해주네
처절하던 싸움의 그날을
무섭게 울부짖던
불과 철의 흐름을

하루에도 수만발
퍼붓는 불의 고지에서
우리 전사들 어떻게 일어섰는가!
일어나 어떻게 원쑤를 죽이었는데!

무너진 전호들과 파헤쳐진 옹덩이
눈앞에 치솟아오르는
섬광들과 붉은 구름을...

《동무들 돌격 앞으로!》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청춘을 바치여
적의 화점을 향해 달려가던
청춘들의 그 모습을
피젖은 기발과 결전의 노래

...승리의 추억을 안은 조국의 봉우리
고요한 옛 격전터 전호가에
해빛은 쏟아져내리며 따사로이 비치는데
불탄 파편나무의 목소리
우리의 가슴에 메아리쳐 울려온다

—청춘의 더운 피로 이 땅을 안아지킨
조국의 아들딸들을 잊지 말라!
그들이 흘린 피를 헛되이 말라!

이 사 편 지

조 태 현

고향에서 어머니가 보내온 편지
류달리도 두툼한 편지엔
영근 벼이삭 하나 들어있었다
얼마나 간곡한 부탁이었으면
우편국에서 이런 편지를 보냈으랴

나의 고향은 연백벌 북쪽
우리 집 논밭에도 분계선패말이 박혀
몇해 갈숲에 묻혀 숨죽있던 논밭
올해엔 씨원히 갈아엎고 모를 내니
소담한 수확을 보았다는 반가운 이삭편지

중대의 병사들 고향을 그려보며
익은 벼알 그 몇번 세여보았던가
총알같이 익은 벼알 하나하나

내 아버지를 학살한 원쑤놈들을
천백배로 복수해달라는 총알같아

중대의 병사들 드나들며 만져보며
복수의 총탄으로 만장탄하라고
갱도벽에 탄띠처럼 걸어놓았다
그 벼이삭은 지켜야 할 고향땅이었고
그 벼이삭은 승리한 조국의 래일이었기에

세월은 흘러 반세기 넘었어도
내 오늘도 잊지 못하는 이삭편지여!
나는 오늘도 그 편지를 읽어본다
내 고향벌에 설레는 황금벼바다가
그날 어머니가 보내준 편지였기에

선군시대에 다시 일떠선 세검정

백 위 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자기의 근면한 창조적활동으로 훌륭한 물질문화적재부를 창조하면서 자기 운명을 개척하여온 지혜롭고 재능있는 민족입니다.》

내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손길아래 사회주의문화도시로 부흥하고있는 국경도시 만포를 찾은것은 지난해였다. 한것은 선군시대에 훌륭히 개건복구되어 일떠선 세검정을 찾아보고싶어서였다.

외래침략자들을 물리치고 피묻은 검을 압록강물에 씻은 자리에 1636년 세웠다고 하여 세검정이라 불리운 이 루각은 압록강물면에서 100m나 되는 벼랑우에 세운 오랜 역사유적으로서 관서8경의 하나로 손꼽히여왔다.

력사를 거슬러보면 만포가 유명하게 된것은 군사주둔지인 진이 되어서이고 이 진에는 또한 세검정이 으뜸이고 세검정은 또 그 길목의 두마리 돌자라가 명물로 알려졌다.

우리 선조들은 조국방위의 상징으로 세운 세검정과 그 루정의 수호신이 되어달라 하늘땅에 빌며 새겨 세운 돌자라에 나라의 명과 복을 기대하였다 한다.

만포라 하면 도읍지로는 바닥이 좁아서 숨가쁘지만 나라의 변방요새로서의 지형조건은 충분히 갖추어져있어 고려지에도 이름이 오르게 되었으며 력사 또한 유구한 고장으로 되였었다. 그렇게 유명하던 세검정이 1938년 국경수비대의 왜놈장교에 의해 하루밤새 불타버리고 주춧돌만 남았었다.

그래서 나는 어렸을적에 보았던 인상으로 만포 하면 —만포유명의 증견물인 세검정은 어디 가고 별거벗은 주춧돌만 남아서 치욕의 세월을 돌이켜보게 하는거냐!— 하는 허구픈 심정을 숨겨오지 않았었다.

그러던 만포에 경사가 났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떠나면 로씨야의 원동지역을 방문하시고 조국에 돌아오실 때 만포시를 현지지도하신것이다.

선군조선의 위대한 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인류사적대장거이라 대서특기된 2만여리의 외국방문전파가 우주를 짝 채우고있을 때 만포시도 세계의 초점이 모아지는 유명한 고장으로 된것이다.

그뿐이 아니였다.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이 환희로 들끓던 력사적인 그날 어버이장군님께서서는 만포시를 선군조선의 본보기적인 국경도시로 개건현대화할데 대하여 친히 가르치시였다고 한다. 그이의 부르심 받고 달려온 인민군군인건설자들에 의해 하루가 다르게 만포시가 천지개벽되였다고 한다. 더우기 기쁜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만포시를 현지지도하시며 력사유적을 잘 보존관리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신 말씀에 따라 세검정이 복구되였다는것이다.

나는 현실체험을 목적으로 떠나는 대학생들과 함께 만포로 향했다.

만포시에 도착하니 도로주변의 다층살림집들과 기관건물들이 여러가지 밝은 칠감들로 번듯하니 색칠한 옷을 입고 환하게 웃음짓듯 우리를 바라보고있었으며 청기와까지 맵시있게 둘러쓴 담장과 울타리들이 산간도시의 구색을 갖추고있었다.

별오쪽으로 통하는 길과 관문동어구길이 서로 사귀는 곳에서 오른쪽으로 돌아 언덕길을 좀 걸어 오르느라면 남쪽방향에는 덩실한 역사가 높직하게 자리잡았고 역전공원은 압록강쪽으로 방향각이 열려져있다.

정히 다듬어져 높다랗게 세워진 어버이수령님의 영생탑앞을 지나가는데 저쪽에 소문난 만포각의 모습이 안겨오고 건너편에는 군인건설자들이 한창 건설하고있는 민속공원건설장도 보여왔다.

희한하니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그 면모를 갖추어가고있는 시안의 정경을 보느라니 세검정이 어떻게 복구되였을가 하는 궁금증이 마음을 줄이였다.

드디어 우리는 세검정앞에 다가섰다.

원래 세검정이라는 루의 이름은 검날에 묻은 침략자의 피를 압록강에 씻은 물굽이 그 벼랑우에 루정을 세우며 승리를 뜻하고 상징하여 달았다고 한다.

날이 갈수록 옛스러운 모습이 그윽해지고 그

래서 더 깊은 정서를 자아내는 고색창연한 정자였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크지 않은 루각으로서 판서8경에 드는 유적답게 정성을 들이고 재간을 합친것이 알린다. 게다가 채목들의 품질이 좋고 생생하여 마음도 밝아지게 한다.

앞다리(앞기둥)는 반석을 힘있게 짚고 뒤다리(뒤기둥)는 학다리처럼 공중에 건들 들어짚었다. 말하자면 앞기둥은 평지우의 주추에 세우고 뒤기둥은 평지에서 떨어져내린 벼랑턱에 주추를 놓아서 앞뒤기둥의 높이가 서로 다르고 그로 하여 안정감과 불안정감의 균형이 절반절반으로써 종래 격식을 깬 건축구성도의는 오히려 루의 운동감을 살리고 조형미를 돋구는것이였다.

단청장식을 어떤 색을 위주로 써서 전반색을 통일시키는가 하는데 따라 건축물의 성격도 조형적 미감도 달라진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날의 단청은 적토색이 지배색이 되어 삼삼하고 안온하여 옛맛이 절로 뿜졌었다. 하지만 오늘의 개건된 세검정은 푸른색위주로 단청색을 통일시켜 융감하고 힘차며 날듯 한 색채감정을 안겨준다. 젊은 인상을 풍기는것이였다.

(력사주의와 현대성의 원칙을 구현할데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창조의 출발점으로 하였기에 이렇듯 성공할수 있었구나.) 하고 나는 생각했다.

들쭉한 용마루, 겹쳐마를 받드는 굽직한 대들보와 날씬한 보조들보에는 금색단청을 올리고 기와의 마무리에는 막새기와까지 물려놓아 루정으로는 완전무결하였다.

루의 밖으로는 기념비적건축물의 분위기를 돋구며 길목의 우측 바위둔덕에 검비—장검을 형상한 추모비가 세워졌고 그아래에는 세검정유래를 간략한 표식비가 자리잡았으며 루정가까이 다가들면

한쌍의 자라가 마주보며 비둘을 등에 진채 엎드려 길손들의 시선을 끈다.

나는 세검정앞에 마음속에 고패치는 생각들을 정리하며 서있었다.

독벌레같은 왜놈장교 하나에 의해 불타 재만 남았던 세검정.

유구한 세월을 서있는 압록강변의 이 루정이 불탈 때 산천초목도 무심할수 없었으련만 여기 만포진 백성들은 속수무책으로 지켜볼수밖에 없었다. 그때 그 치욕이 너무 커서 저 무심한 주추들까지도 이끼웃마져 쓰지 못하고 벌거숭이로 산야의 메마른 흙먼지와 차디찬 눈비를 다 들쓰면서 묵묵히 지탱하여왔던것이다.

그 멸시와 치욕의 증견물이었던 주추들이 이제 선군시대를 상징하듯 푸른색청춘의 세검정의 역센 기둥을 받드는 초석이 된것이다.

선군시대에 다시 일떠선 압록강변의 세검정의 굳건한 자태를 바라보며 나는 이것이 뉘덕이나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한다.

그렇다.

우리 인민들이 생활의 계기마다, 순간마다 느끼고 체험하는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정을 나역시 느낀다.

만포땅에 태를 묻은 사람들이 력사에 갇지 못했던 빛을 결국은 선군시대에 와서 갇도록 우리의 **김정일**장군님께서 이끌어주셨다는 생각이 가슴을 친다.

민족의 력사를 지켜주시고 빛내여 주시는 어버이장군님의 숭고한 뜻은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해 변함없이 이어지고 더 훌륭히 창조되어가리니.

오늘의 이 기행은 력사를 돌이켜보며 오늘을 안아보고 미래를 확신하게 한 의의깊은 걸음이였다.

조선속담

우둔성, 몽매성

- 감출줄은 모르고 훔칠줄만 안다
- 눈치가 있으면 떡이나 얻어먹지
- 더운 죽에 파리 날아들듯
- 도끼를 들고 나물 캐러 간다
- 미련한 송아지 백정을 모른다
- 바늘로 몽둥이 막는다
- 굴방도련님

- 호미로 막을것을 가래로 막는다
- 쥐구멍으로 소를 몰려 한다
- 절에 가 짓국을 찾는다
- 분다분다 하니까 하루아침에 왕겨 석션을 분다
- 바람부는 날 가루팔러 가듯



한 철 순

1

수덕협동농장에서 기사장으로 일하던 정화국이 새 관리위원장으로 온다는 소식은 재덕이를 놀라움과 반가움에 휩싸이게 하였다.

전 관리위원장이 다른 농장으로 소환되어간 후 재덕이가 부위원장으로 관리위원장사업을 대리하고있었다.

정화국은 고향이 여기 성천리로서 지금으로부터 십오년전에 재덕이가 3작업반장으로 사업할 때 1분조장으로 일했다. 불의에 타협을 모르고 주대가 센 화국이를 잊을수 없었다. 보통키에 체소한 몸매, 약간 통투무례한 얼굴의 눈에 깃들어보이던 후더운 인정, 일단 성이 나면 날카롭게 번뜩이던 록록치 않은 눈빛...

웬일인지 잊혀지지 않는 한토막의 일화가 떠오른다.

어느날 재덕은 구역협동농장 경영위원회 부원이 작업반에 료해를 나오자 화국에게 점심식사를 준비시켰다. 그리고는 그에게 손님대접을 소홀히 하면 안된다고 조용히 귀뜸해주었다. 그런데 그날 점심상에 올라온것은 오이랭국에 만 강냉이국수와 감자지지개, 가지볶음 등 남새반찬 몇가지가 전부였다.

몹시 엉성한 음식상에 재덕은 별경게 달아오른 얼굴을 들고 부원을 마주볼수가 없었다. 농장관리 운영에서 제기되는 이런저런 결함들을 눈썰미고 부족되는 농기구와 비료를 더 해결받으려는 타산 밑에 화기 넘치는 분위기를 계획했던 그였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손님에게 푸대접을 해주고 손을 내밀수는 없었다. 생각할수록 화국의 처사가 못마땅했다. 부원이 돌아간 다음 재덕은 화

국이에게 언짢은 기색으로 말하였다.

《아, 거 왜 분조에서 기르는 닭 한마리 잡을노릇이지, 원참. 우리 성천리사람들의 인심이 야박하다고 소문나지 않겠소?》

그러나 화국의 말은 오히려 재덕의 부아를 돋구었다.

《분조에서 기르는 닭을 그런데 쓰라는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은 우리 농장원들의 생활이 넉넉치 못한데... 이제 농사를 잘 지어 우리 살림살이가 좋아지면 닭이 아니라 돼지라도 잡읍시다.》

재덕은 입이 쓰거워 더 말을 하지 않았다. 화국이 이렇게 콧꼬한 사람인줄 알았더라면 다른 분조에 시켰을걸 그랬다고 후회하며 통명스레 내뱉었다.

《동무가 말하는 농장원들의 생활을 윤곽하게 하자면 웃기관에서 내려오는 일꾼들과의 사업을 잘해야 하오. 비료나 연유가 없이 어떻게 농사를 잘 지을수 있는가 말이요?》

《비료나 연유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수 없다는 사고방식은 패배주의표현입니다. 비료가 없으면 자급비료를 내고 연유가 없으면 소를 리용해서라도 농사를 해야지요. 가뜩이나 고난의 시기를 겪으며 어려워진 우리 농촌이 그런 식으로 자꾸...》

《그만하오!》

재덕은 버럭 소리지르고 돌아섰다. 학교를 갓 졸업하고 농장원으로 일할 때에는 무던히 순박하던 사람이 군사복무를 마치고 돌아오더니 영 판 사람이 되어버렸다. 분조원들과 합심해서 어려운 일들을 숨씨있게 해치우는것은 좋았지만 매사에 주견이 강하고 너무 원칙만 내세우는것이 마음

에 들지 않았다.

그후 화국은 추천을 받아 대학을 나왔고 오늘에 이른것이다...

화국이 새 관리위원장으로 온다는 소식에 그때의 일이 불쑥 떠오르는것은 웬일인가!... 세월의 년륜속에 그도 많이 변하였겠지만 깨끗한 성미는 여전할것이며 그것으로 하여 앞으로 과연 손발을 맞춰내겠는가 하는 우려가 차올랐다. 재덕은 부지중 한숨을 내쉬었다. 몇해째 농사를 잘 짓지 못해 늘 구역내 농장들가운데서 뒤자리를 차지하다보니 농장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전반적으로 의기소침해 있었다. 옛날 모범농장의 영예와 긍지도 이제 아득한 추억으로만 남아있을뿐이었다. 이 모든 애로와 난관을 새로 오는 관리위원장이 감당해내겠는가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았다.

리당사무실을 나온 재덕은 농산3반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3작업반장 오성길은 화국의 소꿉시절동무로서 둘이 함께 재덕의 손탁에서 일하던 분조장이었던것이다. 성미가 덩벙덤벙하면서도 승벽이 센 오성길이 화국이 관리위원장으로 온다는 소식에 입이 귀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흥그러워졌다.

도로를 따라 길게 펼쳐져있는 3작업반포전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음 옮기던 그는 커다란 두엄무지앞에서 웬 사람이 서성거리는것을 보고 다가갔다. 두사람의 눈길이 허공에서 부딪치는 순간 반가운 불꽃이 평곳 일었다. 정화국이었던것이다.

《아니? 1분조장... 아니, 관리위원장동무!...》

《야! 이거, 반장동지! 이게 얼마만입니까?》

두사람은 서로 손을 맞잡고 기뻐서 어쩔줄 몰라했다. 재덕은 화국이 옛날처럼 《반장동지.》라고 부르는것이 마음에 흠뻑 들었다. 그 부름속에는 자기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이 배여있었던것이다.

잠시후 화국은 손에 쥐었던 거름을 펴보이며 말하였다.

《거름생산을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퇴비성분은 얼마 없고 논흙과 탄재가 태반이군요.》

재덕은 부임되어오는 길에 거름무지부터 손에 쥐어보는 화국의 주인다운 품성에 머리숙어지는 동시에 얼굴이 뜨끈해졌다. 주인답지 않게 일하는 자기의 빈구석을 헤쳐보인것 같았던것이다.

《그게 바로 3작업반장 오성길의 거름이네.》

《오성길이요?》

《자네의 친구 오성길이 말이네, 언제나 쌍벽을 이루던... 지금은 3작업반장으로 일하고있는데 콩밭에다 서술치는 성미야 어데 가겠나? 그 사람이 좀 거칠긴 해도 제깍손이 있어 농장적으로 제일

앞서나간다네.》

재덕의 말에는 오성길에 대한 애정이 다분히 깔려있었다.

《그렇습니까? 성길동문 잘있습니까?》

《그래! 프락프락처럼 잘 달리고있네, 허허.》

화국의 얼굴에는 친구에 대한 그리움과 애정이 금시 한가득 어렸다. 대학으로 떠난 뒤 한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15년세월이 지나갔다.

화국은 재덕이와 함께 나란히 걸으며 물었다.

《그동안 관리위원장이 없이 농장전반사업을 보느라 수고 많으셨겠습니다.》

《허허, 정말 힘드네. 해마다 농사는 잘 안되지, 우리 성천리가 구역경영위원회 회의에서 말밖에 오르지 않으면 회의가 싱거울 정도지. 글썽 비판과 추궁은 혼자 삭이면 된다 치고 농장원들에게 분배몹을 많이 주지 못하는 일군의 마음이란 꼭 쥐구멍에 들어가고싶은 심정이라니까...》

재덕의 말에 화국은 마음이 무거워졌다.

화국은 처음에 성천리 관리위원장으로 배치되었을 때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나서자란 고향땅에 가게 된 기쁨보다 락후한 농장을 떠메고나가야 한다는 뼈근함으로 마음이 무겁고 발걸음이 떼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굳게 마음을 다잡았다. 당의 신임을 놓고 순간이나마 중요한 자기를 질책하였다. 가자! 사람도 같은 사람이고 땅도 같은 땅인데 성천리라고 왜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리지 못한단 말인가! 옛날에는 모범농장으로서 시나 도적으로 손꼽히던 농장이 아니었던가. 문제는 농장원들을 어떻게 조직동원하는가에 달려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주체농법의 요구대로만 농사를 짓는다면 반드시 잘사는 농장으로 만들수 있다... 주체농법! 바로 이것이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떠 나온 화국이었다.

그날 저녁 화국은 무작정 잡아끄는 오성길의 손에 이끌려 재덕이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갔다. 화국이 만난 오성길의 어머니와 안해가 반가와 어쩔줄 몰라했다. 인사가 끝나자 오성길은 안해에게 소리쳤다.

《어보! 내 친구가 관리위원장으로 왔는데 집에 있는걸 다 차려오우. 될수록 빨리...》

그리고는 술선 팔을 걷어올리고 닭을 잡느라 부산을 피우며 돌아갔다. 그러지 말라고 만류하는 화국에게 오성길이 큰소리쳤다.

《사람두 참. 이제 한개 농장의 관리위원장이 됐는데 닭 한마리야 대접하지 못하겠나? 아무리 없어도 자네가 왔는데 가만있으면 친구가 아니지...》

《허허, 놔두라구. 저 사람이 오죽 기쁘면 저리겠나?》

재덕이도 옆에서 한마디 한다. 화국은 친구의 정을 새삼스레 느끼며 정 어린 눈길로 오성길을 바라보았다. 잠시후 소박한 주안상을 놓고 세사람은 그동안 쌓였던 회포를 술잔에 담았다. 몇순배의 술이 돌고나자 약간 거나해진 오성길이 화국의 무릎을 때리며 억양이 센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가 왔으니 내 마음이 든든해지네. 정말 기쁘구만, 응? 앞으로 우리 작업반을 잘 밀어달라구. 이 오성길이 앞장설테니까.》

화국은 빙그레 웃기만 했다. 재덕이가 오성길에게 오금박듯 말했다.

《그러나 융화목과할 생각을 해서는 안돼. 진실로 친구를 생각한다면 사업성으로 도와주어야지.》

《아참, 부위원장동지도... 제가 공과 사를 헛갈릴 사람 같습니까?》

화국은 재덕이가 몹시 고마왔다. 오성길의 우정도 좋았지만 사업권위를 세워주려고 애쓰는 재덕이도 돋보였다.

《난 자넨 믿네. 앞으로 난 주체농법의 요구에선 단 1미리도 양보할 생각이 없으니 자네가 많이 도와달라구.》

화국의 말에 오성길은 알릴듯말듯 고개를 끄덕일뿐 대답이 없었다. 원칙에서는 사소한 탈선도 융화를 모르는 화국임을 잘 아는 성길은 이 순간 막연한 불안을 느끼는상싶었다.

잠시 흐르는 무거운 침묵을 깨려는듯 재덕이가 닢다리를 화국의 손에 들려주며 나직이 말했다.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살 해야지. 하지만 관리위원장은 잡다한 농사일에 파묻히면 아무것도 못하네. 기본 대외사업을 잘해야 하는거네. 지금 농장에 부족되는게 한두가지가 아닐세. 그걸 해결받자면 언제 논밭에 나갈새가 있는줄 아나? 위원장은 절반은 외교관이 돼야 한다네.》

《외교관이요?》

화국은 그 어떤 생활철학이 깃든것 같아보이는 재덕의 말이 몹시 귀설게 들렸으나 내색하지 않았다. 관리위원장이 농장벌에 나가지 않고 밖으로 나다녀서야 어떻게 농사를 잘 지을수 있는가...

《글쎄...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농사에 빠짐을 들이는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화국의 말에 재덕은 시뭇이 웃을뿐 응대를 안했다. 그러자 이번엔 어색한 분위기를 해소하려는듯 오성길이 호기있게 소리쳤다.

《걱정말게! 내 힘자라는껏 돕겠네.》

방안의 분위기는 다시 화기애애하게 흘렀다. 그

러나 서로 각이한 세사람의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게 저마끔으로 조용히 흘렀다.

2

저녁무렵 회의가 끝나자 초급일군들이 관리위원회에서 나오며 저마끔 한마디씩 한다.

《새로 온 관리위원장이 간단치 않겠구만. 출석을 딱딱 그으며 규률을 세우는것을 보니 지난 시기처럼 해이되었다간 큰일나겠어.》

《허허, 오성길이 관리위원장의 친구라고 모임규률도 잘 지키지 않더니 되젠 경쳤지.》

《허허허, 〈반올림반장〉이라... 나도 가슴이 뜨끔해지더군. ...》

회의에서 탁달질을 받은 작업반장, 분조장들이 겨끔내기로 한마디씩 하는 말을 들으며 재덕은 생각에 잠겼다. 이틀동안 매 작업반들과 분조까지 다 돌아본 화국은 사업시작의 첫 순서로 아침출근을 하자마자 관리일군들을 자기 책상앞에 세워놓고 책상빼람부터 검열하였다. 구겨박은 종이장들, 구석쪽에 앉은 먼지들, 아귀가 잘 맞지 않는 빼람들... 관리위원장은 엄하게 지적했다.

《해이됐소. 일군들의 사업태도는 자기가 쓰는 책상이나 빼람만 보아도 잘 알수 있는거요. 이런 어지러운데서는 패배주의와 해이밖에 나올수 없소. 오늘부터 자기 일터를 깨끗이 꾸리고 새로운 기분으로 일을 합시다.》

초급일군들에 대한 높은 요구성과 강한 조직력, 절제있는 사업질서와 혁명적인 일본새를 요구하는 새 관리위원장의 사업시작을 모두가 좋아한다. 재덕은 지난 시기 반장, 분조장들과의 관계에서 얼굴볶히기가 싫다면서 요구성을 높이지 않았었다. 그의 눈앞에는 방금 회의장에서 있던 일이 떠올랐다.

...화국은 반장, 분조장들에게서 거름생산실적을 보고받기 시작하였다. 1작업반... 2작업반... 이윽고 3작업반의 차례가 되었다. 오성길이 일어나 수첩을 펼쳤다.

《자급비료계획이 얼마요?》

《220톤입니다.》

《난 223톤으로 아는데... 실적은 얼마요?》

《150톤입니다.》

《150톤? 지령에 보고된 수자는 149.5톤인데 어째서 150톤이요?》

화국의 간간한 물음이 뜻밖인듯 오성길의 얼굴표정이 얼퍼름해졌다. 소수점표리까지 물어볼줄을 생각도 못했던 모양이다.

《저... 꼬리달린 수자를 반올림하면...》

《반올림?... 반장동무! 그런 거짓말수자가 누구에게 필요하오? 동문 흠구이, 열두바닥거름수자도 반올림해서 불귀가지고 보고했다던데... 이제부터 동무를 〈반올림반장〉이라고 불러도 되겠소?》

와— 하고 웃음소리가 장내에 터져올랐다. 오성길의 얼굴은 수수떡처럼 별경게 달아올랐다.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친구간의 우정도 고려하지 않고 조겨대는 화국이에 대한 원망과 놀라움이 그의 얼굴에 동시에 비꼈다.

《웃지 마시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좌중을 둘러보며 손을 내젓는 관리위원장의 얼굴은 진중한 표정이었다.

《거름을 많이 내야 농사가 잘된다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초보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면 결국은 땅을 속이게 되고 땅을 속이면 자기자신을 속이게 되는것입니다. 허풍! 바로 이 허풍과 형식주의때문에 우리 농장이 더 잘살수 있는것도 못살고 나라의 쌀독이 풀지 않는가 말이요.》

관리위원장의 말에 초급일군들이 가책되는듯 머리를 숙이고 침묵을 지켰다. 관리위원장의 옆에 앉아있던 채덕은 가슴이 뜨끔해졌다. 오성길이네 작업반의 거름생산이 질적으로나 량적으로도 떨어지는것을 알면서도 앞선 작업반으로 내세워온것이 바로 자기였던것이다. 더우기 지금까지 거름생산에서 소수점꼬리까지 따져본적은 한번도 없었다. 사실 거름생산은 진실한 량심을 요구하는 일이었다. 소수점으로 표시되는 몇백, 몇십키로는 흠을 더 섞어도 얼마든지 보충할수 있었던것이다.

그런데 새로 온 관리위원장은 꼬치꼬치 따지고 들고있다. 물론 채덕이도 그것이 옳은것이라는것을 잘 알지만 오성길에 대한 정이 있어서 거친 일쫓씨를 보면서도 눈감아주었던것이다.

《그래 어떤 대책을 세우겠소?》

관리위원장의 물음에 오성길은 한풀 죽었으나 좀 맞갖지 않은 태도로 대답했다.

《이젠 거름원천이 없습니다. 농장원들의 집집마다 열두바닥을 깡그리 다 파냈습니다.》

화국은 오성길을 앉으라고 하고나서 좌중을 둘러보았다.

《지나해에 거름생산을 잘하지 못하였습니다. 매 가정들에서 생산하게 된 풀거름을 계획대로 다 생산하지 못했기때문에 실지 거름예비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팔짱을 끼고앉아 우는소리만 하고있어야겠는가? 그럴수 없소. 자 동무들, 나의

결심은 시내에 가서 도시거름을 날라다 모자라는 거름을 보충하자는것입니다.》

화국의 말이 끝나자 모두가 마주보며 술렁술렁 거렸다. 채덕은 화국이에게 조용히 말했다.

《위원장동무! 농장에 연유예비가 없습니다. 프락토르가 뿔수 없지요.》

화국은 알고있다는듯 머리를 끄덕이고나서 계속했다.

《연유사정이 긴장한 조건에서 소를 쓰자는것입니다. 농장의 달구지를 총동원해서 매일 하루동안에 와닥닥 해치웁시다, 어떻습니까?》

장내에 웅성거리는 소음이 울리더니 1작업반장이 일어섰다.

《좋습니다. 거름만 있다면야 50리길이 멀어서 못 가겠습니까?》

《갑시다. 고난의 행군시기에 제국주의자들의 봉쇄를 이겨내는데 한몫 단단히 한 우리 소달구지가 아닙니까? 연유타령을 하는 사람들은 기름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고 우린 소로 실어웁시다.》

반장들이 이구동성으로 호응해나섰다.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채덕은 놀랐다. 어제까지만 해도 조건타발을 앞세우면서 우는소리도 적지 않던 저들이 어떻게 되어 관리위원장의 요구에 선뜻 호응해나서는지 모를 일이었다. 분명 화국의 말에는 대중을 납득시키고 불러일으키는 설득력과 호소성이 있는것 같았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뭘가?...

스적스적 옆에 다가온 오성길이 회의에서 받은 감정이 잘 내려가지 않는지 투덜댔다.

《헛참, 왕복 100여리를 달구지를 몰구 갔다온다? 뽕빠지게 됐군.》

채덕이도 심정은 같았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무슨 소릴 하나, 동무가 주인인데 앞장에 설 생각은 하지 않고? 빨리 가서 조직사업을 하게!》

오성길은 욕이 잘 내려가지 않는양 가슴을 풀떡거리다가 작업반쪽으로 썩썩거리며 걸어갔다. 지금 채덕의 가슴속에 차오르는것은 먼길을 갔다오느라 사람도 소도 녹초가 되겠는데 당장 시작하게 될 모내기전투에 지장을 주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였다. 그러나 관리위원장이 새로 와서 조직한 일이니 자기가 반들어줘야 한다는 일군다운 의무감으로 걸음을 힘있게 내짚었다.

다음날 새벽이었다. 봄날씨는 아직도 쌀쌀하였다.

풀짜기에 아직도 흰 얼음이 백곰처럼 웅크리고 있는 산골의 날씨는 해가 퍼지기 전에는 숨웃

을 입어야 할만큼 찼다.

채덕이가 자전거를 밀고 관리위원회마당에 나오자 어둑어둑한 새벽빛속에 먼저 나온 농장원들이 여기저기 모여서 담배를 피우고있는것이 보였다.

화국어도 언제 나왔는지 농장원들속에 섞들려 웃고있었다. 목에 수건을 걸친채 소바줄을 손질하던 화국이가 영국이란 청년에게 묻는다.

《영국동문 몸도 약한데 왜 솜옷을 입지 않았소? 자, 이걸 입으라구. 그러다 감기라도 걸리면 농장이 손해보지 않소?》

《농장의 손해요? 아! 관리위원장동지, 이 리영국이 그렇게 큰 존재입니까? 그 말씀만 들어도 막힘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허허, 그렇다면 남보다 거름을 더 많이 심는것으로 보답해야지.》

나이지숙한 아버지가 옆에서 한마디 끼이자 영국이 한숨 더 뜬다.

《아, 거야 물론이지요. 제가 이래봐도 앞으로 작업반장으로 발전할 사람입니다.》

《웁소, 벌써 안이 서있소.》

화국의 말에 사람들이 웃는다. 어데 가나 농장원들과 잘 섞들리며 통담을 곧잘 주고받는 화국이다. 그는 저쪽으로 가더니 1작업반 순봉이라는 청년에게 말을 시켰다.

《순봉동문 오늘도 자가용승용차를 타고가려는게 아니요? 동무의 몸무게가 자그만치 70키로는 잘되다던데 대신 거름을 더 실으면 얼마나 실리가 있겠소?》

언제봐야 달구지에서 내리지 않고 타고다니는 그를 보고 사람들이 자가용승용차를 타고다니한다고 놀려주었지만 늘어진 성미그대로 흥얼흥얼 코노래를 부르며 귀등으로 흘리는 사람이였다.

《아니? 위원장동지! 이 약한 몸이 70키로라니 듣긴 좋습니다. 제 오늘 얼마나 씹씩하게 걷는가 두고보십시오. 달구지에 짐을 싣고 등에도 한 짐 지고올 작정입니다.》

《그렇소? 그러다 아예 쓰러지지 않을가?》

화국은 순봉의 등을 다정히 두드려주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청년이 장난기섞인 말투로 빈정거렸다.

《허, 해가 서쪽에서 뜨겠는걸. 하긴 여원 소가 더 강기있다는 말도 있지...》

그러자 또다시 악의없는 웃음소리가 터졌다.

《관리위원장동지! 이젠 떠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3작업반이 맨 앞장에 서겠습니다.》

《허 이사람, 풍수가 없다는건 이루 말할수 없

군. 작업반순서도 몰라?》

1작업반장이 시까스르는 소리에 즐거운 싱겁이질이 벌어졌다. 새벽어둑을 밀어내는 흥겨운 웃음소리는 쌀쌀한 날씨에 먼길을 가야 한다는 사람들의 은근한 불안을 삼시에 날려보냈다. 군중의 기분을 돌려세워 하나의 목적으로 양양시킬줄 아는 화국의 능숙한 언변과 기지에 채덕은 감탄이 나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래서 새로 온지 얼마 안되는 관리위원장을 농장원들이 잘 따르는것인지도 모른다. 채덕이를 발견한 화국이가 슬그머니 다가와 귀속말로 속삭였다.

《농장원들이 달구지를 몰구 걷는데 자전거를 가지고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앞에 서서 함께 걸으며 날 따라 앞으로! 해야지 자전거를 타고 제비처럼 썩하니 날아가면 그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채덕은 얼굴이 붉어졌다. 아직 날이 완전히 밝지 않아 농장원들이 얼굴을 보지 못한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포전길을 다니면서도 몸에서 자전거를 떼여본적이 없는 채덕이다. 자전거부위원장이라고 불리우는것도 잘 알고있었다.

잠시후 채덕이가 자전거를 들여다놓고 달구지를 몰고 나오자 화국은 출발명령을 내렸다.

《이랴- 켜!》

호기있는 웨침소리, 웃음소리, 음메- 하는 황소의 영각소리가 한데 어울려 잠든 부락을 깨웠다. 동쪽하늘이 희빛이 들리더니 아침노을이 피어오르기 시작하였다.

그날 저녁 거름 싣고오느라 피곤했으나 채덕은 소들의 상태를 알아보려고 3작업반 소우리로 나갔다. 소우리에 가까이 다가가던 채덕은 오성길이와 소관리공에게 하는 화국의 말에 걸음을 멈추었다.

《반장동무! 소관리공들의 역할을 높여야겠소. 이걸 보오. 이렇게 한뼘씩이나 되게 썩 강냉이짚을 먹고 소가 소화시키겠소? 소의 위가 네개이니 이쯤한건 일없다고 생각하면 안되오. 가는 짚은 일 없지만 강냉이대같은건 이삼센치정도로 짧게 썰고 여물도 될수록 푹 끓여먹여야 하오.》

오성길은 덩덤히 서있었고 소관리공은 어쭙은 표정으로 뒤더수기를 굽는다.

《그리고 오늘같이 힘든 날엔 소에게도 특식을 먹여야 하거던. 소도 사람과 똑같소. 먹은 소가 힘쓴다지 않소?》

화국은 옆에 놓인 바께쓰를 가리켰다.

《자, 이걸 먹이گی요. 호박곰이요.》

《예? 호박곰이요?》

《지금은 호박곰을 먹이지만 이제 농사를 잘 짓

고 가을에 가서는 소들을 더 잘 먹입니다.》

바게뜨안에는 불그스레한 호박에 찹쌀죽을 쑤어 끓인것이 한가득 담겨져있었다. 소관리공이 방금 끓인 여물에 호박곰을 섞어 소에게 주었다. 누렁 황소가 여물통에 코를 박고 흠흠 냄새를 맡는 것 같더니 호박곰을 쪽쪽 들이키며 맛나게 먹어댔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재덕은 아무말없이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다. 화국의 눈에 띄을까봐 오히려 겁이 났다. 극상해야 자기는 소의 상태가 걱정되어 나와보았지만 화국은 소에게 좋다는 호박곰까지 해가지고 나왔다. 언제보나 말보다 실천 행동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관리위원장이었다. 옛날 소관리공을 할 때 그가 얼마나 소관리를 잘했는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재덕은 농장의 모든 부림소들이 살이 찌서 농사일의 큰 몫을 담당하리라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았다.

3

재덕은 관리위원장과 함께 3작업반 모내기현장으로 나갔다. 큰길가에는 방송선전차가 서서 혁신적인 성과들을 소개하고있었다.

방송선전차에서 울려나오는 흥겨운 노래소리, 논판에서 울리는 웃음소리, 트랙토르의 동음소리...

그에 화답하듯 하늘에는 종달새가 우짖고 건너편 풍동굴안에서는 삐죽새의 구성진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파릇파릇 돌아났던 갓가지 풀들이 이제 제법 무성해지기 시작하였다. 모내기현장에는 오성길이 보이지 않았다. 저쪽논에서는 트랙토르가 씨뿌치기에 여념이 없는데 개간지논에서는 모내기를 당장 시작하려는듯 날라다놓은 모춤들이 한가득 쌓여있었다.

《역시 오성길이 일을 제낄줄 압니다. 벌써 모내기실적이 절반계선을 넘어섰습니다. 아마 이 속도로 나가면 1등은 오성길이 차지할것 같군요.》

재덕이가 흐뭇해서 하는 말이였다.

관리위원회에서는 관리일군들이 한개 작업반씩 맡도록 하였는데 재덕은 3작업반을 담당하였다. 화국은 아무말도 없이 무릎을 건어올리고 개간지논에 성큼 들어서더니 웃주머니에서 늘 가지고다니는 눈금자를 꺼내들고 여기저기 찰러보기 시작하였다. 그것을 지켜보는 재덕의 가슴속에는 불안이 은근히 차올랐다.

매사에 깐깐한 관리위원장의 눈에 무슨 결함이 걸려들겠는지 모르는 일이었다. 아닌게아니라 이쪽으로 걸어오는 화국의 인상이 밝지 못했다.

《이걸 보십시오. 주체농법의 요구는 논판수

평고루기의 높낮이차이가 이삼센치미터인데 어떤 곳은 십센치도 넘습니다. 그리고 흙덩어리들도 채 풀리지 않았고 앙금도 깨끗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런데다 모를 내다니?...》

《위원장동무! 그췌한건 허용수치가 아닐가요? 이 큰 논배미를 거울면처럼 수평으로 만들수야 없지 않습니까? 소소한 일에 신경쓰다나면 시기를 놓치겠는데...》

그러나 화국은 머리를 저었다.

《아닙니다. 주체농법관철에선 허용수치라는 게 있을수 없습니다. 씨레를 다시 치고 모내기를 하도록 합시다. 오성길동무를 만나 그렇게 조직해 주십시오. 전 1작업반에 가보겠습니다.》

무릎을 건어올린채 논두렁길을 밟아가는 화국의 뒤모습을 재덕은 새삼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역시 원칙적이고 깨끗한 성미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아니, 일군으로 성장하면서 옛날 분조장할 때보다 더 완강해졌다. 물론 재덕이도 화국의 요구가 정당한것이라는것을 안다. 모내기에서는 첫공정인 씨레질이 매우 중요하다. 논판고루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하지 못하면 깊은 곳에 심어진 모들은 숨이 막혀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게 되어 앓거나 죽는다. 설사 산다고 해도 생육에 지장을 주기때문에 알찬 열매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수백정보나 되는 논을 일매지게 고른다는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막대한 시간과 로력, 연유를 요구하며 더우기 시기를 놓치면 안된다.

짧은 기간에 와닥닥 끝내야 하는 영농작업이기 때문에 모내기전투라고 하지 않는가!...

그때 오성길이 나타났다. 모뜨기현장에서 오는지 손에 모춤을 든 그는 재덕을 보고 싱글벙글 웃는다.

《부위원장동지! 어떻습니까? 이만하면 우리 작업반이 큰소리칠만 하지요?》

재덕은 엄한 눈빛으로 오성길을 질책했다.

《자네 무슨 일본새가 이리 거친가? 이 논을 보라구. 수평고루기도 제대로 안돼, 흙덩이도 채 풀리지 않아, 이런 논에 모를 내다니? 지금 제정신 이요? 당장 씨레를 다시 치고 모를 내라구.》

《예?! 아니, 이진...》

오성길은 뜻밖인듯 재덕의 얼굴을 얼며름한 표정으로 바라본다. 늘 봐야 칭찬과 좋은 말만 해주며 혹은 원칙에서 탈선된다 해도 적당히 조절해주던 부위원장의 태도가 리해되지 않는다는 눈치다.

《방금전에 관리위원장이 와서 보고 지적했네.

그러니 저 트랙포트를 돌려세워 다시 하라구.》
재덕의 어조에는 관리위원장의 지시이니 별수 없다는 뜻이 풍겼다. 재덕이가 돌아서자 오성길의 그의 팔을 잡고 늘어졌다.

《야, 부위원장동지! 지금 우리 작업반이 제일 앞서나가는데 이걸 다시 하느라하면... 그러지 않아도 1반이 바짝 꼬리를 물고 따라오는데...

우리 작업반이 꼴찌를 하면 부위원장동지의 체면은 뭐가 됩니까? 이번만은 그냥 넘깁시다. 약간 높낮이차이가 있긴 해도 벼생육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는거야 부위원장동지도 잘 알지 않습니까?》

재덕은 잠시 서서 망설이였다. 지난 시기의 경험을 봐도 약간한 높낮이차이때문에 벼농사가 안된것 같진 않았다. 더우기 3작업반이 경쟁에서 뒤떨어지면 이 부위원장의 체면이 납작해질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그러지 않아도 화국이 혁명군대의 지휘관들처럼 날 따라 앞으로 하면서 농장원들과 고락을 함께 하니 《새 관리위원장이 오더니 농장의 면모가 달라진다.》느니, 《모든것은 일군에게 달려있다.》느니 하는 말들이 수군수군 돌아가고있는데 이번까지 경쟁에서 지게 되면 체면은 둘째치고라도 있으나마나한 존재라는 평가를 받게 되지 않겠는가!...

재덕은 결심한듯 오성길을 돌아보며 오금박았다.

《앞으론 한치도 양보가 없네. 그럼 빨리 모내는기계를 대라구. 관리위원장에게는 내가 이야기하겠네.》

한번 준 과업에 대한 집행여부를 총화하는데서 매우 엄격한 화국임을 잘 아는 재덕이었지만 모를 낸 논을 두고서야 어떻게 하라 하는 생각으로 자기를 위안하였다.

그날 저녁 관리위원회 일군들과 작업반장들이 작업총화를 위해서 모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도록 관리위원장은 나타나지 않았다. 언제봐야 시계처럼 정확하던 관리위원장이 오늘은 어떻게 된 일인가?...

밖으로 나선 재덕은 3작업반 회계원인 명금이가 지나가는것을 보고 소리쳤다.

《애! 관리위원장을 못 봤니?》

《관리위원장동진 지금 우리 작업반 개간지논에서 씨레질을 하고있어요.》

《뭐-어?》

재덕은 놀라서 굳어졌다. 뒤따라섰던 오성길도 놀라서 입을 향하니 벌렸다. 개간지논을 갈아엎다니?... 거긴 오후에 삼분의 일가량 모를 내지 않았던가?...

《자, 어서 나가기요.》

재덕의 말에 초급일군들이 따라나섰다. 밤하늘에서는 보름을 가까이한 낫양푼같은 둥근달이 환히 웃고있었다. 푸르스름한 달빛에 주위가 대낮 같았고 논배미마다에서 울려나오는 개구리울음소리에 귀가 멍멍해질 정도였다. 은실같은 달빛이 교묘히 쏟아져내리며 어머니젖가슴같은 포근한 대지를 부드럽게 어루쓸고 봄의 교향곡인듯 목청 돋구는 개구리울음소리가 향촌의 정서를 그윽히 자아낸다.

그러나 마음의 경황이 없이 숨가쁘게 드달려온 재덕은 개간지논배미에 이르러 우뚝 멈춰섰다.

이쪽논으로 넘어오다 고장난듯 트랙포트가 부속을 해체해놓고 장승처럼 버티고섰는데 논에서는 관리위원장이 소를 몰고 씨레질을 하고있는것이 보였다. 논두렁에는 논에 쫓았던 벼모들을 뽑은것이 한가득 쌓여있었다.

그것을 바라보던 재덕의 가슴속에서는 노여움이 왈칵 치밀어올랐다. 어쩌면 이럴수가 있는가? 모를 쫓은 논까지 뒤집어엎다니? 물론 일군에게는 사업권위가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모를 뺀 논까지 갈아엎어야 한단 말인가? 더구나 3작업반은 관리부위원장이 담당한 작업반이라는걸 그가 모른단 말인가?... 자기에게 일을 배워준 옛 선배이고 오른팔과 같은 부위원장의 체면을 이렇게까지 짓밟다니... 재덕은 가슴속에서 마구 고패치는 노여운 감정을 묵새기며 서있었다.

초급일군들이 모여선것을 보고 화국은 소를 몰고 밖으로 나왔다. 재덕을 발견한 화국은 잠시 서서 무슨 말인가 할듯말듯 하더니 아무말없이 돌아섰다.

《초급일군동무들이 다 모여왔으니 오늘 총화는 여기서 합시다. 실적들을 보고하십시오.》

반장들이 실적을 보고하고 오성길의 차례가 되었으나 그는 시뻘한 표정으로 푸푸 소리를 내며 논두렁풀을 뜯는 황소의 번들거리는 잔등을 바라보았다. 화국은 대답을 재촉하지 않고 말머리를 돌렸다.

《동무들! 예로부터 농번기에는 부지깽이도 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쁜 시기라 해서 우리가 농사를 망탕 지어야 하겠습니까? 땅은 절대로 속이지 못합니다. 빼심들이지 않고서는 훌륭한 작황을 기대할수 없습니다.》

관리위원장의 진정된 말에 모두가 생각이 깊어져 누구도 기척이 없었다. 달빛에 드러난 화국의 얼굴에는 안타까운 기색이 어려있었다. 피곤에 몰려 눈에 피가 진것은 보이지 않았으나 목청은 몹시 갈렸다. 그가 피곤하면 갑상선이 도져 목구

명이 부어오른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재덕은 불시에 그에 대한 편민의 정이 끓어올랐다.

《농사는 비료나 농약으로 짓는것이 아니라 우리 농민의 땀으로 짓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고 요구한다고 해서 잘하고 보이지 않는 곳이라 해서 되는데로 한다면 우리가 과연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이라고 말할수 있겠는가?...》

관리위원장의 말은 추궁이 아니라 진정에 넘친 양심의 호소였다. 2작업반장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관리위원장동지! 우리 작업반에서도 주체농법의 요구를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매일부터 모든 영농작업들을 철저히 주체농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러자 편채반응이 일어난듯 관리위원회 일군들과 반장들이 저저마다 자기를 돌이켜보며 잘못을 비판하였다. 잠시후 모임이 끝나자 사람들을 돌려 보내고 화국은 다시 논판에 들어섰다. 오성길이가 다가가 만류했다.

《위원장동지! 밤이 깊었는데 퇴근합니다.》

화국은 소에게 멍에를 메우며 오성길을 돌아본다.

《조금 더 하면 끝날것 같소. 오늘 밤중으로 씨레를 끝내야 인차 모를 쫓을게 아니요? 좀 바싹 채면 농친 시간을 봉창할수 있소.》

화국의 말에 오성길은 감동이 된듯 더 말하지 않고 따라섰다. 그것을 바라보며 재덕은 생각이 깊어졌다. 관리위원장의 요구는 백번 옳다고 인정하면서도 손상당한 체면과 년장자로서의 자존심은 삭이기 힘들었다. 사람이 직무가 높아지면 옛 우정도 변하는가?... 더우기 오성길이 오늘 얼마나 섭섭했겠는가. 남달리 승벽이 세고 자존심이 강한 오성길이가 오늘 반장들앞에서 망신당했으니 얼마나 가슴아프랴. ...

재덕이가 이런 생각에 잠겨있는데 논판에 들어섰던 화국이가 다가왔다.

《부위원장동지! 저에게 할말이 많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사사로운 감정은 뒤로 미룹시다. 가을에 가서 우리 속을 더쳐놓읍시다.》

화국의 말에 재덕은 웬일인지 가슴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스르르 내려가는것을 느꼈다. 가을에 가서 속을 더놓자는 그의 말이 가슴을 친다. 오직 농사를 위해 애쓰고 뛰어다니는 그에 비해 자기가 너무 웅졸한것 같아 얼굴이 붉어졌다. ...

며칠후 논장에서는 모내기전투총화가 있었다. 어느때보다 나홀이나 모내기를 앞당겨 끝내서인지 온 농장이 명절처럼 흥성거렸다. 그러나 오성길은 수치감으로 불붙는 가슴을 억제하기 힘들어 재덕이를 찾아갔다.

《모내기를 제일먼저 끝낸것은 우리 작업반인데 왜 2등으로 바뀌었습니까?》

재덕은 펄펄 뛰는 오성길을 바라보며 이마살을 찡그렸다. 오성길의 3작업반이 모내기를 제일먼저 끝냈다는것은 온 농장이 다 아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것을 관리위원장이 뒤집었다. 어제 저녁 관리위원회 일군들이 모여 등수평가를 하었는데 모두가 한사람같이 3작업반이 1등이라고 평가했다.

그때 관리위원장의 목소리가 울렸다.

《난 반대의견입니다. 모내기실적이 제일 높고 먼저 끝난것은 사실이나 3작업반에서는 주체농법의 요구를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모내기를 끝낸 포전에 모가 뜨는것이 많았고 다시 보식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평당포기수와 포기당대수는 더 한심한 형편입니다.》

재덕은 물론 관리위원회 일군들도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였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무릎을 걸어올리고 논밭을 메주밭듯 한 화국은 어느 분조의 어느 논에 모가 어떻게 꽃혀졌다는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었기때문이었다. 그래서 농장원들은 관리위원장의 눈은 못 속인다고, 농사일에 너무 박식해서 농학박사라고 말하고있었다.

《지금은 낡은 경험이나 주먹치기로 농사짓는 시대가 아닙니다. 토양과 종자, 거름과 비료 등 농사의 모든 공정들을 과학기술적으로 하는 시대입니다. 발은 자기 땅에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는것이 당의 요구인데 아직도 낡은 재래식방법에 매달리는 현상들이 없지 않습니다. 주체농법에 과학기술적내용이 다 밝혀져있습니다. 결국 주체농법의 요구를 어긴다는건 과학기술을 무시하는것으로 됩니다.》

때문에 난 오성길동무의 3작업반에 1등을 주지 말자는 의견입니다.》

《관리위원장동무! 그래도 어디까지나 경쟁인것만큼 실적은 실적대로 평가해야 하지 않을까요?》

재덕은 화국의 말이 납득되지 않아 자기의 의견을 내놓았다. 그때 리당비서가 한마디 했다.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한 목적이 농사를 잘 짓자는것인데 형식적으로 아무리 일을 많이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도 위원장동무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리당비서까지 지지해나서자 모두가 호응했다. 결국 오성길은 2등으로 평가되었다. 사람들이 헤쳐가자 재덕은 화국에게 조용히 말했다.

《위원장동무! 성길이 그 사람이 좀 거친데는 있어도 일이야 잘하지 않습니까? 더우기 옛날 함께 분조장으로 일한 정을 봐서도 꼭 이렇게 해야

만 되겠습니까?)

재덕의 말에 아픈데를 찢리운듯 화국은 흠뻑했다. 사실 화국은 오성길과의 우정을 조금도 잊지 않고있었으며 지금도 시시각각 느끼고있었다.

불현듯 그의 눈앞에는 지난날 어느 모내기때 있는 일이 떠올랐다.

...그때도 모내기전투가 시작되어 분조간 경쟁이 벌어졌다. 분조장들이 대개가 젊은축들이라 서로 첫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고 욱욕하는 속에서 화국이네 분조가 농장적으로 제일 앞서나가고있었다. 그런데 모내기가 절정에 이른 어느날 기세 좋게 모를 쫓아나가던 모내는기계가 멎어섰다. 화국은 눈앞이 아찔했다. 수리분조에는 예비부속이 없었고 구역농기계사업소에 물려 부속을 깎아오는 사이면 바깥 꼬리를 물고 따라오는 다른 분조에 뒤떨어질것은 불보듯 했다.

화국은 속이 타서 여기저기 뛰어다녔으나 예비부속은 없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오성길이가 자기네 분조의 모내는기계를 물고 나타났다.

《1분조장, 이 기계를 쓰라구.》

《뭐?》

화국은 놀란 눈길로 성길을 바라보았다. 성길의 2분조는 농장적으로 다섯손가락안에 든 앞선 분조였던것이다.

《1등으로 나가다가 멎었으니 얼마나 속상하겠나? 어서 이 기계를 쓰고 1등 하라구.》

《아니, 그건 안돼. 자네가 날 대신해서 앞서라구. 난 포기하겠어...》

화국의 말에 성길은 벌컥 성을 냈다.

《뭐? 그것도 말이라고 해? 화국이, 우린 소꿉친구인데 이쯤한걸 가지고 뭘 그래? 더우기 동문 올해모내기전투가 마지막이 아닌가?》

이제 대학으로 떠나면 언제 다시 함께 일하겠나? 1등의 영예를 안고 대학에 가야지? 내가 친구로서 도와줄건 이것밖에 없어. 자, 어서!》

오성길은 화국의 손을 꼬당겨 기계운전대를 맡겨놓고서야 돌아섰다.

《성길이!...》

화국은 멀어져가는 오성길의 뒤모습을 뜨거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렇게 되어 화국은 농장의 수십개 분조들중에서 단연 1등을 쟁취할수 있었다. 그리고 가을에 대학으로 떠났다...

그때 일을 돌이켜보는 화국은 오성길에게 죄를 짓는것 같았다. 인간은 생활에서 의리와 도리를 지키지 못하면 사회적으로도 규탄받게 된다. 그러나... 우정에 목이 매여 근본을 놓칠수는 없다. 우리 농사꾼들의 근본이 무엇인가? 농사를 잘

지어 나라의 쌀독을 채우는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들을 잘살게 하시려고 논두렁길을 걸으시고 토지정리전투장을 찾으시는 아버이장군님의 뜻을 현실로 꽃피우는것이다. 말로는 원칙과 근본을 부르짖고 생활에서는 있을수 있는 일로 간주하면서 의리를 운운한다면 그것은 참다운것이 아니다!...

《부위원장동지! 참된 우정이 무엇이겠습니까. 잘못된것은 아픈 말을 해주고 채찍질해서라도 옳은 길로 이끌어주고 영예를 안겨주는것이 진짜우정이 아니겠습니까? 전 성길동무가 오늘은 좀 피로워도 가을에 가서는 리해하리라 믿고있습니다.》

화국의 말에 재덕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였다....

재덕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오성길도 생각이 깊어진듯 아무 말 없었다. 흥분으로 들뛰던 두어깨는 점차 가라앉았으나 고까웁은 가셔지지 않았다.

모내기가 끝난 다음날 호련천장가의 조약돌밭에는 사람들이 하얗게 깔렸다. 농장에서는 모내기전투를 끝내고 김매기전투에 들어가기 앞서 하루 휴식을 선포한것이다. 관리위원장 화국이가 리당 위원회와의 토의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초급일꾼들 앞에서 말했다.

《휴식을 하되 그저 집에서 노는것이 아니라 농장적인 들놀이와 오락회를 하자는것입니다.

그러니 초급지휘성원들은 누구나 다 부부2중창을 준비하며 작업반의 개별적특기들을 다 내놓아야겠소. 한번 배피를 풀어놓고 웃으며 즐겁게 휴식하고 김매기에 들어가잔 말이요.》

관리위원장의 말에 반장들과 관리위원회성원들이 쌍수를 들어 찬성한것은 두말할것도 없었다.

벌써부터 강가는 웃음소리로 떠들썩했다. 가마를 돌우에 거느려 부산피우는 녀인들, 반두로 물고기를 잡느라 법석대는 농장원들... 한쪽에서는 부부2중창연습을 하느라 손풍금반주에 맞추어 목청을 뽑는 사람들도 보이고 늙은이들이 한데 모여 북장단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도 보인다.

모두가 흥겨운 기분에 잠겨있는 이 시각 오성길은 그다지 밝지 못한 표정으로 남새를 손질하는 안해를 흥심없이 바라보고있었다. 모내기전투총화에서 2등으로 밀려난것이 여전히 묵은 체증처럼 내려가지 않는다. 생각할수록 관리위원장이 너무한것 같았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기의 거친 일솜씨에 불만이 가기도 했다. 그때 등뒤에서 관리위원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성길동문 왜 그렇게 어깨가 처져있는거요?》

오성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여전히 생콩깍은 인상이다.

《허허, 기분이 몹시 처졌군. 자, 그러지 말고 우리도 물고기잡이를 해보지요. 날 따라오오.》

화국은 이렇게 말하고나서 씨엉씨엉 앞장서 걸었다. 그런데 그는 강가가 아니라 논둑으로 가고 있었다. 오성길은 호기심도 나고 마침 조용한 장소에서 분풀이를 하리라고 걱정하면서 뒤따라섰다. 앞서가던 화국은 오성길의 개간지논에 이르러 논고에 들어서더니 반두그물을 들어올렸다.

《이크, 그새 많이 들어왔군.》

화국이 들어올린 그물에서 물이 툭툭 떨어지는데 그물안에는 자름자름한 물고기가 서너키로는 잘되게 들어있었다.

《차, 이런, 굉장하구만. 가만, 이젠 잉어가 아니요?》

화국의 말에 오성길은 덤벼치며 다가갔다. 그물안을 들여다보니 자름자름한 물고기들이 와글와글 끓는데 손바닥만 한 잉어가 두마리씩이나 들어있는것이 보였다. 순간 물고기잡이에 오금을 못쓰는 오성길은 언제 그랬던가싶게 탄성을 질렀다.

《수확이 꽤찮소. 제껴 어죽을 끓입시다.》

벌써부터 기름이 동동 뜨는 고소한 어죽이 눈앞에 어른거리는듯 오성길의 입이 헤벌쭉해졌다.

《아니? 그런데 이젠 언제...》

《허, 성길동무가 그렇게 즐겨하는 물고기잡이도 못하고 모내기하느라 수고했는데 내 인살 좀 하고싶어서 어제 밤에 놓았겠지...》

순간 오성길은 코마루가 쩡해올랐다. 두사람이 분조장시절에 무릎을 걷어올리고 반두질하며 물고기잡이를 한것이 얼마였던가. 아무리 힘들게 일해도 밤에 반두질하여 논고와 논물길에서 물고기잡이하던 재미는 류별난것이였다. 밤새 잡아온 소천어를 소금물에 잠가 감탕을 뽑은 다음 쌀을 넣고 함께 끓여먹는 맛은 실로 향토적인것이였다. 거기애다 감자나 호박을 함께 넣고 푹고 추까지 곁들여 끓이면 노란 기름이 동동 뜨고 연한 고기살이 만문하게 익어 툭툭 터진것이 먹을 때면 목젖까지 넘어갈것 같았다.

오뉴월의 발잔등에 떨어진 단고기장물도 약이 된다지만 논두렁에서 난알향기와 감탕을 먹으며 자라 살이 쥘 물고기로 끓인 어죽 또한 건강에 좋은 장수식품으로 즐겨먹는 음식이였다.

모내기전투총화로 의견을 삭이지 못해 성길이 밤새껏 끙끙 앓을 때 관리위원장은 자기를 위해 밤새우며 물고기잡이를 한것이였다.

《자! 이걸 가지고가서 한번 옛날솜씨를 보

이라구.》

화국은 오성길의 손에 반두를 들려주며 말했다.

《화국이!...》

오성길은 걱정이 뚫어올라 더 말을 잊지 못했다.

《그리고 오늘 오락회에서 1등 하길 바라네.》

화국은 오성길의 어깨를 짖 잡아주고나서 먼저 논둑에 올라섰다. 오성길은 가슴속에 차오르는 후더운것을 느끼며 서있었다.

잠시후 농장원들이 모두 모여 작업반별오락회를 시작하였다.

1작업반 반장부부의 혼성2중창으로 시작된 공연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목소리도 각양각색이요 동작도 천만가지라 보는것마다 특색이 있었고 흥겨운 웃음을 띠게 했다. 특히 오성길이네 부부2중창은 아주 인상적이었다. 비교적 안삼불을 잘 맞추어나가던 그들이 중간에서 그만 오성길의 처가 《뒤에는 농장처녀 앞에는 땅크병》이라고 부르는데 오성길이 《뒤에는 땅크병들 앞에는 농장원》이라고 소리치듯 부르는 바람에 모두가 폭소를 터뜨렸다.

그러나 공연이 끝나자 모두가 웃음을 머금고 진정어린 박수를 보내주었다. 옷차림도 소박하고 목소리도 우아하지 못했지만 농장원들은 자기네 생활그대로를 보는것이 좋아 웃고 떠들었다. 그 웃음은 사소한 가식도 없고 서로의 실수를 너그럽게 리해하며 서로의 마음을 합쳐 김매기전투를 더 잘해나가자는 마음속의 웨침이기도 했다.

모두가 긴장한 모내기전투를 하느라 피곤이 쌓이고 지쳤으나 새로운 기분을 가다듬으며 웃고떠들며 즐겁게 식사를 나누는 광경을 보며 재덕은 생각이 깊어졌다. 지난날 모범농장의 영예를 잃고 사기가 떨어졌던 농장원들이 어떻게 되어 저렇게 한마음한뜻으로 너도나도 펼쳐나서게 되었는지 모를 일이었다. 제때에 휴식을 시킬줄 아는것이 지휘관의 자질이라고 하던 화국의 말이 생각났다.

저렇게 양양된 농장원들의 열의를 새로운 전투에로 조직동원한다면 무슨 애로인들 뚫고나가지 못하겠는가!... 화국의 능숙한 군중조직력과 지휘능력에 머리가 숙어지는 재덕이였다.

4

정화국은 종내 쓰러지고말았다.

재덕은 관리위원장이 가을을 앞두고 기계화작업반에서 트랙토르수리를 함께 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그리로 달려갔다. 화국은 작업반휴게실에 누워있었는데 리인민병원 의사가 한걸음 먼저 와 응급치료를 하고있었다.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화국을 보는 재덕의 가슴은 쓰러났다. 쭉 꺼져든 두눈확, 꺼칠해진 불편, 두드러진 팽대뼈, 목을 감은 붕대... 갑상선병이 도져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잠도 설치다나니 끝내 쓰러진것이었다.

의사가 주사를 놓아서인지 잠시후 두눈을 뜬 화국은 무슨 말인가 하려다가 말이 나가지 않는지 재덕의 손바닥에 글을 썼다.

《뜨락뜨락을 부탁... 가을건이에 지장이 없게...》

그리고는 두눈을 스프르 감아버렸다. 재덕은 또 다시 의식을 잃은 화국을 부둥켜안고 목메여 소리쳤다.

《관리위원장! 정신차리라구, 응? 이 사람...》

관리위원장은 즉시 구역인민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리당비서가 차를 타고 함께 갔다. 그렇게 입원한것이 한주일도 못되는데 벌써 한달도 지난것 같이 느껴진다.

재덕은 첫새벽에 농장을 한바퀴 돌아보고있었다.

2작업반마을을 지나느라니 풍요한 가을의 풍경이 아름답게 안겨왔다. 집집마다에 매달린 빨간 고추라래며 누렇게 익어 달려있는 호박들, 길길이 담장이며 과일나무들에 뻗어올라간 줄당콩들은 만가을을 약속하고있었다.

흐뭇한 마음으로 관리위원회청사로 들어서던 재덕은 느닷없이 걸음을 멈추고 관리위원장방 창문을 바라보았다.

(지금은 좀 나아졌을가?)

화국이 생각을 하느라니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대로 짓기 위해 밤을 새우며 참고서적들을 독파하던 관리위원장의 얼굴이 창문에 금시 어리는상싶었다. 언제인가 새벽잠이 없는 재덕은 잠에서 깨어나 밖에 나왔다가 관리위원장의 방에서 불빛이 환하게 비쳐나오는것을 발견하였다. 별빛이 초롱초롱한 밤하늘에 삼태성이 기운걸 보니 새벽 3시가 지난것 같았다. 아마 퇴근할 때 불을 끄는것을 잊었나보다 하고 생각하며 관리위원회에 들어가 위원장방의 전원을 끄고 돌아서려는데 안에서 《누구요?》 하는 말소리가 울려나왔다. 재덕은 놀라며 급히 불을 켜고 방에 들어섰다.

《아니? 관리위원장동무! 아직 퇴근하지 않았습니까? 새벽 3시가 지났는데...》

책상에 마주앉아 책을 보고있던 화국이가 손

목시계를 들여다보며 일어섰다.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두팔을 벌리며 호흡운동을 하는 화국의 두눈에 피곤이 가득 어려있었다. 책상우에는 농업과학기술잡지들과 기술도서들이 한가득 쌓여있었다. 책상우에 펼쳐놓은 사업수첩에는 벼가 그려져있었고 생육조건들이 표시되어있었다.

그가 농업박사라는 당당한 평가를 받고있는 실력자임을 잘 알고있던 재덕은 의아한 눈길로 쳐다보았다.

《그런데 이젠?...》

《예, 과학농사를 짓자면 백과전서같은 주체농법을 자자구구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선진영농방법으로 소개된 우렁이에 의한 김매기와 축산과 농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도 도입해야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겠는지 연구중입니다.》

《그래도 위원장동문 대학을 나왔는데 뭘 모를게 있겠습니까?》

재덕은 담배를 꺼내 권하며 말했다.

《아닙니다. 오늘의 최첨단시대는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지식과 기술이 폭발적인 속도로 발전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나왔다고 만세부르고있으면 그사이에 영농기술은 아득히 멀리 앞서가지요. 자칫하면 뒤떨어집니다.》

화국의 말에 재덕은 머리가 숙여졌다. 주체농법의 실천적구현을 위해 깊은 밤에까지 학습하고 연구하는 관리위원장이 얼마나 돈보이는지 몰랐다.

《올해같이 불리한 날씨조건에선 그 찰벼종자를 심은것이 잘한것 같습니다. 어버이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자기 풍토에 맞는 종자를 심는것이 기본입니다. 래년에는 정보당 거름을 열톤씩 더낼 목표를 세우고 지금부터 강하게 내딛시다.》

화국은 창문을 열어제끼며 재덕을 바라보았다.

《그래도 농사에서는 비료가 기본이지요.》

재덕은 화국이가 너무 거름에만 신경을 쓰면서 비료확보에 관심이 없는것 같아 한마디 했다.

《웁습니다. 비료가 있어야지요. 그러나 비료에만 매달리는 비료만능주의적인 관점은 버려야 합니다. 지금세계는 화학비료가 아니라 생물활성 비료방향으로 나가고있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에게 페니실린을 강타하면 어떻게 됩니까? 치료는 고사하고 오히려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그것처럼 지력이 약한 땅에 화학비료만 자꾸 주면 곡식이 기형화되고 땅이 산성화되어 종당에는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화학비료와 자급비료를 배합해서 치라고 하는데 아직도 일부

농장원들은 화학비료에 매력을 느끼고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과 강하게 투쟁해야 할것 같습니다.》

화국은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사람은 밖으로 나왔다. 밤새 소란스럽게 울어대던 개구리들도 잠에 들었는지 주위는 정적에 잠겨있었다.

관리위원회에서 3작업반으로 가는 갈림길에서 화국은 벗어섰다.

《그럼 먼저 들어가보십시오. 전 성길동무네 작업반에 들رب로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동무! 밤을 아예 밝히려는거요? 잠간만이라도 눈을 붙여야지 그러다 쓰러지겠소. 요즘 위원장동무의 얼굴이 얼마나 축갔는지 아오?》

재덕은 펄쩍 놀라며 화국의 팔을 붙잡았다. 화국은 미소를 띄우며 재덕을 정겨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제 걱정은 마십시오. 여름을 좀 세게 타니 그럴겁니다. 프락프르들의 가동상태가 어떤지 가봐야 할것 같습니다. 베어놓은 풀을 빨리 실어들여야겠는데...》 화국은 이렇게 말하고나서 걸어갔다. ... 그를 바라보는 재덕의 가슴이 후더워올랐다. 밤이나 낮이나 오직 농사를 위해 뛰고 또 뛰는 화국이를 보니 머리가 숙어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런 나날들을 돌이켜보느라니 재덕은 화국이가 정말 무리했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다.

(지금도 병원에 누워있자니 아마 잔등이 쭈서날거야.)

느슨히 웃음을 띄우고 다시한번 관리위원회주변을 돌아보고 들어가려는데 뒤에서 탕탕탕 오토바이발동소리가 들려왔다.

뜻밖에도 화국이였다.

《아니? 관리위원장동무!》

화국은 밝은 얼굴로 달려왔다. 재덕은 그의 두손을 잡고 얼굴부터 살펴보았다. 억실억실한 두눈이 쑥 들어가고 판골이 두드러진 얼굴에는 병색이 완전히 가셔지지 않았다.

《그런데 왜 벌써 나왔습니까? 아직 완쾌되지 못한것 같은데...》

재덕의 걱정엔 화국은 혼연한 기색을 지었다.

《이만하면 다 나왔습니다. 사실 병원에 누워있자니 속에서 불이 일어 견디지 못하겠더군요. 하루빨리 가을걷이도 결속해야겠는데 병원에 누워있자니...》

《이만하면 우리 농장도 이젠 때뎂이를 한셈인데 너무 무리하지 말라구.》

재덕은 진심으로 그를 위안해주려고 애썼다. 그러나 화국의 얼굴은 안타까움에 젖어있었다.

《아니, 아직 멀었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의 생전에 일을 많이 했어야 하는건데 그러지 못해 우리 농장이 장군님의 의도에 따라서지 못하고있다는걸 생각하면 잡자리에서도 소스라쳐깨나게 됩니다.

그걸 생각할수록 전 그 죄책감에서 한생 벗어날것 같지 못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농장에 문득 찾아오시면 어찌겠습니까. 전 어버이장군님께 우리 농장도 이젠 잘살게 되었다고 보고드릴수 있게 될 때까지 밤잠 잊고 뛰어나겠습니다. 이 몸이 열쫓각나는 한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마디마디 피를 짜내고 혼신을 쏟아붓는것 같은 화국의 말에 재덕은 코마루가 찡해올랐다.

《관리위원장!...》

그의 가슴속에 무엇이 끓고있는가를 재덕은 오늘에야 비로소 느낄수 있었다.

잠시동안 뜨거운 생각에 잠겨있는데 화국이가 준비해가지고온 낫을 들고 3반 개간지논에 들어가더니 탐스럽게 잘 익은 벼 한단을 베여가지고 나왔다.

《아니? 그건 뭘하려고?》

《참, 오늘 도에서 열린 다수확농민회의에 참가했던 성길동무가 돌아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충실한 벼단을 보여주자는것입니다.》

《그래요?》

재덕의 얼굴에도 반가운 빛이 한가득 어렸다. 얼마전에 도적인 예상수확고판정이 있었는데 성천리가 모범농장으로 평가되었고 오성길의 3작업반이 도적으로 3등의 자리에 올라섰다. 농사가 잘되지 않아 늘 비판받고 위축되어있던 성천리로서는 기적이 아닐수 없었다.

《자, 어서 마중갑시다!》

화국의 말에 재덕은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질풍같이 내달리는 오토바이의 조향륜을 틀어진 화국의 뒤자리에 앉아 재덕은 생각했다.

불같은 사람! 그 어떤 애로와 난관도 웃으며 뚫고나가는 완강한 사람, 대오의 기수!

그렇다, 관리위원장은 오늘의 대고조시대에 맨 앞장에서 달리며 대오를 이끄는 준마기수이다. 그런데 나는...

세계를 향해 질풍같이 내달리는 오늘의 최첨단 시대에 과학기술을 모르고 래일에 대한 신념이 부족한 사람은 일군의 자격이 없다. 능력있고 실력있는 사람들을 따라서지 못하고 자리지킴이나 하

나의 병사시절에!

김 철 희

병사시절과 함께
복무의 나날이 흘렀고
그 복무의 나날을 생각할 때면
언제나 잊지 못하는
병사시절에 대한 추억

병사시절
추억은 언제나 아름다운 법
허나 그 시절을 추억하면
어려웠어도 보람찼던 일들이 떠올라
내 마음 병사시절로 간다

기상구령이 울리면
살을 에이는듯 한
대소한추위가 대수라
내외바람에 단숨에 산발을 넘어
달려온 길 뒤돌아보던 그 궁지

겨울훈련의 나날
눈보라 세차도 생나무로 밥을 짓던
푸릿한 연기냄새
생눈헤쳐 전호를 파고
군화끈 풀지 않고 잠들던 밤의 눈보라

어찌 잊으랴
찬눈비 맞으며 걷던 천리행군의 나날
쫄쫄 언 군화를 벗을수 없어
칼로 군화끈 끊고서야
군화를 벗던 그때 일을

그 나날 나는 배웠노라
바쁘게 사는 법도
눈속에서 웃는 법도
동지가 귀중함을
원쭈를 증오할줄도

내 병사시절을
그렇게 간고하게 지내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에 무엇이 남으랴
병사가 그렇게 살아야
조국의 안녕이 흐르는 낮과 밤이 있고
병사의 그 자욱 그 낮과 밤을
조국은 잊지 않거니

병사시절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총을 잡고 청춘을 바치는 시절
그 시절의 하루가
오늘의 한해 십년맛잡이로
내 삶을 빛내주는 병사시절이여

오, 잊지 못할 병사시절
그 시절이 없었다면
내 어찌 당과 수령의 부름이라면
탄우속 천리 지뢰밭 만리길도 웃으며 가는
어제날 조국의 병사라 말할수 있으랴
나는 오늘도 영원한 조국의 병사
나를 키워준 조국과 병사시절에 감사를 드린다

는것은 강성국가를 일떠세우기 위해 달려가는 조국의 전진을 뒤로 잡아당기는 또 하나의 죄악이 아닐수 없다.

재덕은 피로운 마음으로 화국의 귀에 대고 말했다.

《관리위원장! 난 확실히 낡았어. 차라리 부위원장자리를 내놓고...》

《뭐라고요?》

화국은 오토바이를 멈춰세웠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재덕에게 준절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안됩니다. 오늘의 대진군에서 떨어지면 영영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풍부한 농사경험과 로련한 사업작풍이 있는

데 왜 그리 나약한 생각을 하십니까? 부위원장동진 어제나 오늘이나 저에게 농사일을 배워준 작업반장으로 곁에 있어주어야 합니다.》

《이 사람 화국이!...》

재덕은 목이 메여올라 화국의 두손을 짹 잡았다.

《자, 어서 잡시다!》

오토바이는 다시 질풍같이 달리기 시작하였다. 재덕은 온몸으로 새로운 힘이 솟구쳐오르는것을 느꼈다.

저쪽 산굽인돌이에 오성길이 나타났다. 화국이네를 발견한 그는 두팔을 벌려들고 웨치며 달려왔다.

《관리위원장동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경축 전국문학축전 입선결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들은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참된 주체형의 혁명적문예전사로서의 숭고한 시명을 깊이 자각하고 사상예술성이 높은 다양한 주제, 다양한 종류의 성과작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을 뜻깊게 경축하기 위하여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는 전국문학축전을 진행하였다.

전국문학축전에 입선된 작품들은 다음과 같다.

△소설문학부문

장편소설 《세월에 새기라》 조선작가동맹 함경북도위원회 작가 리명

장편소설 《은하수 흐른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리라순

장편소설 《포연속에 비낀 얼굴》 조선작가동맹 황해남도위원회 작가 오광철

장편실화 《인생렬차》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연구사 인훈

중편소설 《나의 사랑》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박혜란

중편소설 《감꽃》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민경숙

단편소설 《집》 조선인민내무군 군관 김준학

단편소설 《해빛삼천리》 평양시 평천구역 룡교2동 허문길

단편소설 《우리의 멋》 함경남도예술단 작가 김자경

단편소설 《아이적 목소리》 조선작가동맹 함경남도위원회 작가 김혜인

단편실화 《재부》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전충일

△시문학부문

서사시 《영원한 선군의 태양 **김정일**동지》 조선작가동맹 시문학분과위원회 집계작

서사시 《장군님의 병사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박향희

서사시 《붉은 언제》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김만영

장시 《장군님세월은 영원히 굽이쳐흐르리라》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리태식, 리창식

장시 《해빛 넘쳐라 과수의 바다여》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황성하

시초 《조국과 녀인》 조선작가동맹 평안남도위원회 작가 렬형미

시 《밭머리》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김윤결

시 《고향의 내가에서》 함경북도예술선전대 작가 김정순

시 《조선은 백두의 한길로 간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리영철

시 《붉은 기폭에 우리의 맹세가 있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한광춘

시 《조선의 새해》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류동호

시 《집에 대한 시》 문학예술출판사 부장 강인철

가사 《그대는 어머니》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정성환

가사 《고향의 동구길에 병사는 서있네》 조선작가동맹 함경남도위원회 위원장 주명옥

가사 《그 동문 이름도 많아》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리명근

가사 《몰랐습니다 알았습니다》 비전향장기수 우용각

가사 《나는야 CNC처녀》 평안남도 순천시 부흥동 홍민식

가사 《푸른 숲 푸른 산줄기》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부장 송재하

가사 《비날론 나의 기쁨아》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리명옥

△아동문학부문

서사시 《봄노래》 조선작가동맹 황해남도위원회 작가 최성희

단편소설 《봄빛》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전별

단편소설 《새 나라 어린 동무》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량철수

단편소설 《하늘을 안으라》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최영호

단편소설 《백두산의 눈보라》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최치성

단편소설 《첫걸음》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리혁민

단편소설 《도전자들》 자강도 강계시 연석동 김정희

동화 《하늘복숭아》 조선작가동맹 량강도위원

회 위원장 윤학복

동화 《능금 한알》 조선작가동맹 평안남도위원회 작가 김성현

동화 《산제비와 산비둘기》 조선작가동맹 함경북도위원회 작가 최충웅

동화 《소울령의 피리소리》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편재순

우화 《옹노와 뽕파리》 조선작가동맹 남포시위원회 작가 문영철

동요 동시초 《새봄맞이 한드레벌》 조선작가동맹 평안북도위원회 작가 장용환

동시 《하하하... 하얀 사람》 조선작가동맹 황해북도위원회 작가 성연일

동시 《꼬마수첩 하나》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박은경

동시 《웃음저수지》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홍순모

동시 《오와지는 손》 김일성종합대학 문학대학 교원 윤봉식

동시 《하늘이 좋아보인데》 김일성종합대학 문

학대학 교원 백광명

△극문학부문

장막희곡 《존엄》 평양시 대성구역 미산동 리장건 단막희곡 《금메달》 황해북도예술단 작가 한순희

단막희곡 《사판장》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강명국

△혁명전설, 수필, 평론, 사화

혁명전설 《경암산의 샘물》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김우경

수필 《아 흰눈아》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정철학

평론 《작가운명사의 심원한 진리를 확증하는 작가》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박춘택

사화 《군례》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리일룡

사화 《비화속에 묻힌 사랑》 김일성종합대학 문학대학 부학장 신창섭

시 초

조국이여 나에게도 명령을 달라

모원혁, 김성희

우 리 생 활

우리는
생활의 행복도 기쁨도
시의 무지개로 아름답게 수놓아가는
행복한 영예군인부부

남편이 한줄이면
안해가 또 한줄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시, 너 없이야
한생의 보람에 대해 어이 말하랴

한자한자의 시어에
고마운 조국의 파사로움 깃들여
우리 한생은 아름다운 무지개로 새겨지리라
시로 말하며 사는
우리 생활은 계속되리라

나는 선군시대 영예군인 안해이다

삼륜차를 밀며 웃음발 날리는
언제나 씩씩한 내 걸음새를 보고
사람들은 나에게 묻더라
제대군인가고 남편과 한전호에 섰던 전우인
가고

송구스러워라
쓰러졌던 남편의 생명을 위해
한방울한방울 소생의 피방울 넣어주고

뼈와 살 아낌없이 바쳐준 동지들
내 정녕 그대들처럼 혁명전우로 남편의 곁에
설수 있던가

그러면 내 가슴속엔
량심의 목소리가 울리노라
그대는 영예군인의 안해
심장으로 안으라 사랑의 진리를
동지애의 사랑으로 돌우에도 꽃을 피우라

이 세상 가장 값진 보석을 고르듯
조국의 귀중한 아들들이라고
그 이름 안겨주신 영예군인!
그 고귀하고 값높은 이름결에
내 어찌 평범한 너인의 사랑으로야 설수 있으랴

사랑을 받을줄만 알고
사랑에 보답할줄 모른다면

그것이 무슨 인간이라
참되고 높은 영예는
바치는 사랑과 의리로만 영원한것이리니

조국에 바치는 뜨거운 사랑 안고
운명을 같이할 혁명전우의 사랑 안고
결전의 시각에는 남편을 대신하여
내 용약 총잡고 전선에 나서리라

경 제

건군절의 아침 꽃다발을 안고
삼륜차를 밀고 거리에 나서니
씩씩하게 마주오는 병사들의 대오

이런 때 이런 날이면
더더욱 간절해지는 생각
내 남편도 군복을 입고
저 대오속에 있다면

병사들의 노래소리에 맞추어
삼륜차를 밀고가는데
정말로 울리는 발구름소리 척—척—척—

뒤따라 울리는 구령소리

—차렷! 영예군인동지, 건군절을 축하합니다
아, 찌렁찌렁 울리는 병사들의 목소리
심장을 통채로 울려주는
크나큰 감격의 격정이어

몸은 비록 삼륜차에 앉았어도
그대들은 한전호속 전우
영원히 변함없는 병사에게 드리는 경례에
남편은 뜨겁게 답례를 보낸다
—축하합니다! 전우들!

조국이며 나에게도 명령을 달라

침상에 있는 나에게
이른아침 늦잠에 들었다고
깨워주는 사람도 따로 없고
하루 일감을 두고
물든 사람도 없어라

내 이렇게 침상에서
행복만 누리며 살게 된다면
허송세월한 오늘이 한스럽다고
먼 후날에 후회하게 된다면...

조국이며 나에게도 명령을 달라
내 고향 영웅분괴압연기의 빛나는 금별
어깨우에 엮어보며 떠났던 복무의 길
이 마음속에 그대로 놓여있고
전호가의 밤 철갑모에 내려앉던 별무리
오늘도 병사의 임무 속삭여주나니

조국이며 나에게도 명령을 달라
경애하는 장군님을 옹위하여
총검의 숲을 이룬 천만대오속에

시가의 총창 비껴든 나도 있거니

내 어찌
전호가를 덥히던 수호자의 뜨거운 체온
여기 침상에서 식힐수 있으랴
나의 노래는 강선의 노을에 빛을 더해주고
전기로 쇠물의 불꽃이 되고
원썩들의 가슴을 찌르는 창검이 되리

오, 나의 노래 깃들어
더더욱 소중한 나의 조국이며
선군으로 위대한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는
그대 거창한 숨결로 호흡하는
나는 그대의 아들

강성국가건설대전의 전투대오에
참전자의 사명을 안고나선 이 아들에게도
이 아들에게도 명령을 달라!
장군님전사로 한생을 빛내야 할
나의 복무의 길은 끝나지 않았어라



박 경 철

1

3년전의 어느 겨울날이었다.

《앗!》하는 소리와 함께 박형국은 사다리에 서 중심을 잃은채 돌덩이같이 땅우에 쿵덩 떨어지고말았다. 사다리에 얹혀 붙어있던 눈얼음에 그만 발이 미끄러졌던것이다. 그 서늘에 사다리둘레에서 꼬리치던 누렁개가 와플 놀라며 커경 짓어댄다. 부엌에선 안해가 뛰어나오고 방에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들 남호가 황급히 밖으로 나왔다. 언땅에 나동그라졌던 형국은 못할짓을 하다가 들킨 사람처럼 얼른 몸을 일으켰다.

《헛참...》

한 이태전에 굴뚝잡새기를 막느라 비닐을 대고 동여뒀던 새끼줄이 오래된탓에 다시 연기가 새면서 요사이 아궁의 불이 잘 들지 않았었다.

굴뚝을 좀 수리하라는 안해의 지청구에 못이겨 점심식사후 지붕에 오르려던노릇이 그만 이런 랑패를 본것이였다. 넓고 불깃한 얼굴에 맹랑한 표정을 짓던 형국은 옆에 서있는 아버지를 슬쩍 건너다보았다.

《됐다. 애아비야, 그 일은 내가 할테니 어서 작업반에 나가봐라. 반장 할 일이 오죽 많으냐.》

아버지는 제잡담 사다리를 타고 오르기 시작했다. 안해의 입이 대뜸 뿔로통해지고 눈길은 할 곳 남편을 흘긴다.

《또 또, 당신 아버지한테다...》

《응, 바쁜 일때문에 그래. 이제 관리위원회로 가야 한다니까.》

《줄창 부모님 신셀 지면서 살겠어요? 이젠 우리가 세간나가고 삼촌네가 이 집에서 살게 하자요.》

《또 그 소리요? 남준이 애비가 반대한다는걸 알면서두 그러누만.》

그것은 거짓이 아니지만 형국이가 부모결을 떠나고싶지 않아하는것도 죄다 사실이였다. 랑부모가 아직 정정하여 집안의 크고작은 일을 도맡아 주어서인지... 보라, 지금도 아버지는 젊은이들 찹찹하게 사다리를 타고 펄펄 나는듯이 지붕우로 오르고있지 않는가!

형국은 안해와 더 맞서고싶지 않은듯 인츰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섰다. 넓다란 눈과 발들을 휩쓸며 찬바람이 불어왔다. 어제 밤 내려쬘인 눈들이 은가루처럼 흩날리며 목언저리에 선뜩 끼쳐들었다. 한손으로 고깔모자를 덮어쓰고 작업반쪽으로 가던 형국은 아차 하며 휩 자전거손잡이를 꺾었다. 관리위원장이 찾는다고 하던 생각이 떠올랐던것이다.

관리위원회에 들어서니 관리위원장이 사람좋은 웃음을 지으며 반겨맞았다.

《역시 3반장동무가 일을 내밀줄 알거던. 올해에도 3반이 리적으로 제일 높은 수확고를 올렸거던.》

형국은 게면쩍게 웃으며 뒤더수기를 쓸었다.

《그거야 뭐... 그런데 무엇때문에 찾았습니까?》

관리위원장은 정색해지더니 형국을 바라보며 물었다.

《다른게 아니라 반장동무의 동생 동국동무 말이요, 우린 그를 11반 반장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반장동무 생각은 어떤지? 반장으로서도 그렇구 또 형으로서두 그렇구... 한번 의견을 말해보오.》

《예? 11반 반장으로요?!》

형국은 어마지두 놀랐다.

그렇것이 11반으로 말하면 2년전에 새로 조직된, 아직 신설과 같은 작업반으로서 토대도 약하고 미약한 점이 적지 않아 해마다 지원을 받으면서도

계획을 미달하고있는 뒤떨어진 작업반이었다. 이런 작업반을 과연 분조장사업 몇년 해본데 불과한 동국이가 꽤 제대로 이끌고나갈수 있을까?

《저 관리위원장동지, 우리 동국이야 아직 경험 두 어리구 또 성질이 울퉁울퉁해서 그저 내미는것 밖에 모르는데...》

《왜? 그 내미는 성미가 어째서 그러오? 제대군인이라면 웅당 그래야지. 우리는 바로 동국동무의 그 내미는 성미가 마음에 들어 그러는거요.

또 경험으로 말하면 동국동무야 3반에서 뒤떨어졌던 4분조를 리에서 제일가는 모범분조로 이끌어 올린 경험이 있지 않소? 그러구 누군 뭐 작업반이나 농장을 운영해본 경험을 배속에서부터 타고나 온다오? 다 일하는 과정에 배우면서 쌓아나가는거지. 안 그렇소?》

관리위원장의 말에 대답이 궁해진 형국은 그래도 동생이 그런 뒤떨어진 작업반을 맡게 된다는것이 마음놓이지 않아 고개를 기웃거렸다.

《전 모르겠습니다. 제 듣기엔 이제 그만두게 될 11반장이 후임으로 지금 기술원을 하고있는 박기문동무를 짚곤 했는데...》

박기문으로 말하면 동국의 동창생으로서 중학교를 졸업하고는 곧장 농업대학을 다녔고 지금껏 여러 작업반에서 기술원으로 일했었다. 몸집이 황소같은데다가 농사경험도 일정하게 겸비하고있어 앞날이 기대되는 사람이였다.

《3반장동문 동생이 걱정돼서 그러는것 같은데 너무 그러지 마오. 우리두 다 보는 눈이 있으니 대답하게 동생한테 11반을 맡기지요.》

이미 관리위원회회의 결심은 확고하다는 뜻이였다.

형국은 그달음으로 동생네가 살고있는 아래낭골 4분조로 자전거를 몰아갔다. 분조퇴직장의 문문 피여오르는 김사이로 분조원들과 함께 거름생산을 하고있는 동국의 모습이 인차 나타났다. 강단이 느껴지는 호릿한 몸을 날쎄게 움직이며 푹푹 걸이대질을 하고있는 동국은 날카로운 코마루와 번쩍이는 눈을 가져서인지 얼핏 보기에든 룽룩치 않은 인상을 주었다.

동국을 한쪽으로 불러낸 형국은 관리위원장을 만난 사연을 이야기하고나서 숨을 길게 내쉬며 물었다.

《그래, 네 생각엔 어떠냐?》

《예? 어떻다니요?》

《아, 11반 반장노릇을 꽤 해낼수 있는가 말이다. 작업반이라는게 그저 분조 몇개를 합쳐놓은건줄 아니? 더우기 11반이 어떻다는거야 너도 잘 알

지 않니. 그런 뒤떨어진 작업반에 가야 칭찬 한마디 못 듣구 밤낮 육별이나 해야 해.》

동국은 뜻밖에도 씩 웃으며 선선히 대답했다.

《아, 일을 잘하기 위해서라면 그까짓 육이야 뭐랍니까. 육이 두려워서야 큰일을 못하지요.》

(쫄쫄,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속은 살아서 큰소리...)

형국은 이마살을 찌프리며 동국에게 물었다.

《그래 넌 11반으로 기어이 가겠다는거냐?》

《형님두 참, 저야 제대군인당원이 아닙니까. 당에서 맡겨주는 일이라면 리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해내야지요.》

(차, 이렇게두 고지식하다구야.)

형국은 잇달아 11반의 난점에 대하여 그루를 박아 설명했다.

《형님, 조건이 좋고 토대도 잘 닦아진 곳에서야 누군들 반장사업을 못하겠습니까. 전 솔직히 농장적으로 제일 뒤떨어진 11반에 가서 힘껏 일해보고싶습니다. 제일 앞선 3반과 그리고 형님과 경쟁을 하고싶단 말입니다.》

들어볼수록 더 어망창한 소리만 나온다.

(뭘, 나와 경쟁을 해보겠다구? 자고로 형보단 나은 아우는 없다고 했은즉 애가 허파에 바람찬게 아니야? 헛참...)

형국은 기가 딱 찬지 아니면 어처구니가 없는지 더 말을 못하고 입만 찹찹 다시고말았다.

결국 동국은 새해부터 11작업반으로 옮겨앉아 반장사업을 하게 되었다.

새해에 잡혀 처음으로 열린 농장초급일군들의 모임 뒤끝에 형국은 조용히 박기문을 따로 만났다.

《그래, 어떤가? 우리 동생과 일하게 된것이?》

《좋으면 썩 좋구 나쁘면 아예 나쁠겁니다.》

《그건 또 무슨 소리냐?》

형국은 얼떨떨해져서 되물었다.

《글쎄 일을 내미는것은 좋은데... 동국동무야 원래 어릴적부터 체격은 작아도 뱀통이 사납구 고집이 세기루 소문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밑에서 일하게 된 저로서야...》

박기문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형국은 그러는 박기문에게 바싹 다가붙으며 말했다.

《그래두 자네하구 우리 동국이야 소학교때부터 한책상에서 공부한 사이가 아닌가. 그러니 동국일쫘 잘 도와주게나.

자네에 비하면 육체적힘은 론하지 말구라도 농

사경험에서두 내 동생은 아직 약하네. 아무래두 그런 면에선 내 동생이 자넨 업구다녀야 할텐데 잘 채찍질해주게.》

순간 형국은 멀리 흘러간 어린시절의 한토막이 문득 생각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30여년전의 어느 봄날이었다. 그때 중학교 3학년을 다니던 형국은 하루 공부가 끝나기 바쁘게 옆에 있는 인민학교(당시)로 달려갔다. 동생을 데리고 집에 가기 위해서였다. 이것은 형국의 어릴수 없는 일과의 하나였다. 나이에 비해 키도 크고 몸집도 좋고 주먹까지 센 형과는 달리 동생은 태어날 때부터 정상몸무게에 이르지 못하고 몹시 약했다.

그래서 스스로 그의 보호자노릇을 하고있는 형국이였다. 《2학년 2반》이란 문패가 달려있는 반색나들문을 열어제끼니 안은 땡하니 비어있었다.

(고것 참, 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형국은 인차 동생이 장난질 즐기는 한학급 동네 애들의 꼬드김에 빠져 자기를 기다리지 않고 훌쩍 가버렸다는것을 알아차렸다. 그전에도 몇번 그런 일이 있어 속을 태웠었다. 오늘도 또 어디서 애들의 놀림을 받으며 무슨 봉변을 당할지 알수 없었다. 속이 불안해진 형국은 급히 학교를 뺐다.

한낮이 기운지도 펍 오래된지라 밖에는 벌써 오싹한 기운이 떠돌고있었다. 저 멀리 서편 산마루로는 불그스름한 태양이 누엿누엿 넘어가고있었다. 형국은 벌겋한 얼굴을 돌리면서 여기저기를 살펴보았다. 한동안 그 모양새로 건다가 별안간 북산강기슭에 눈길을 멈춰세웠다. 아직 잎이 돋지 않아 엉성해보이는 나무가지들사이로 얼핏 안겨오는 그곳 손바닥만 한 모래불에서 동국이네 애들이 씨름을 하느라 벅적 떠들어대고있었다.

가만 눈여겨보니 책가방을 아무렇게나 벗어내친 기문이란 애와 동국이가 한창 맞붙어 돌아가고있었다. 덩지를 비교하면 개와 고양이가 맞붙은것처럼 보여왔다. 곧 《엳싸—》하는 소리와 함께 기문이 동국을 허양 들어메치더니 《자, 이젠 졌지, 그럼 약속대로 하자.》고 으시대면서 뒤집을 뻔 지고 선다.

그러자 동국은 순순히 신발을 벗고 바지가랭이를 걸어올린 다음 강물속에 한걸음 쭉 들어서는데 이 아닌가. 씨름에서 진 아이가 이긴 아이를 강너머로 업어건네는 놀음을 하고있는것이 분명했다.

형국은 더이상 보고만 있을수가 없었다.

저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쥔 그는 기문을 한대 췌박을 기세로 욱 내달았다.

《야, 저기 동국이 형 온다—》

어느 애가 먼저 형국을 발견하고 소리치자 동국의 등에 업혔던 기문은 더 말할것도 없고 구경하던 애들까지 돌맞은 참새무리마냥 사방으로 짹 날아퍼지고말았다. 강물속에는 동국이 혼자 땡그랑 남았다. 형국은 너무 결났던김에 동생이라도 한대 췌박고싶었으나 차마 그럴수는 없어 새하얀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노려보며 씩씩거리기만 했다.

동국은 청하지도 않은 불청객이라도 나타난것처럼 마뜩지 않은 눈길로 형을 쳐다보면서 울먹거렸다.

《형, 왜 왔어?》

너무도 천만뜻밖이어서 형국은 어리둥절해졌다.

《엉? 너 정신나가지 않았니? 이런 놀림을 당하면서두 왜 왔는가고 물어? 이거 기문이자식 어데 갔어?…》

형국은 이발을 옥문채 사방을 휘둘러보았으나 장난꾸러기들은 땅속에라도 스며든것처럼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동국의 토라진 목소리가 잇달랐다.

《형, 이젠 내 일에 빠치지 말어.》

《뭘?…》

《동무들이 날 보고 뭐랬는지 알아? 형의 〈젓〉을 먹고 사는 바보래. 그리구 형때문에 동무들속에 끼우지 못한다. 난 이런 말 듣기 싫어.》

동국은 끝내 엉엉 울음을 터뜨리며 기슭으로 나왔다. 그만에야 형국은 당황하여 어쩔바를 몰라했다. 동생의 투정질에 부인할수 없는 진실이 담겨져있기때문이었다. 사실 형국이기도 이걸 모르지 않는다. 또 동생때문에 창피를 당한적도 여러번 있었다. 그러나 어쩔수 없는 일로 여기고 지금껏 그의 보호자노릇을 착실히 해왔던것이다.

헌데 이젠 그게 싫단다.

《동국아, 넌 몸도 약하고 힘도 세지 못하니 이 형의 도움을 받아야 해.》

형국은 동생의 어깨에 다정히 손을 얹고서 한결 누그러뜨린 목소리로 말했다. 동국은 울음을 툇그쳤으나 고집스럽게 어깨를 흔들었다.

《싫어. 이제부터 모든걸 내 힘으로 할테야.》

그러고나서 책가방과 신발을 찾아들고 저혼자 차디찬 강물을 침범침범 건너가는것이였다.

닭췌던 개 지붕쳐다보는 격으로 그의 뒤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던 형국은 물에 빠지고싶지 않아 강웃쪽에 놓여있는 다리를 건너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는 기문을 한대 췌박고싶어 주먹이 근질근질했지만 지금은 자존심이 상해도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었다.

《훌륭한 형님이 계시는데 나야 뭐 제 일이나 하면 그만이지요.》

《글쎄 나두 동생작업반을 모르는체 할수 없겠지만 그래도 부반장적인 자네가 앞장에서 키잡이를 잘해주어야 11반일이 찌그러지지 않고 곧바로 떠나갈걸세.》

허나 기문은 더이상 응대가 없었다.

침묵속에 돌아서는 그로 해서인지 형국은 강가에 세워놓은 아이처럼 동생이 도무지 마음놓이지 않았다.

2

책상을 탕 치는 소리와 함께 관리위원장의 어성은 한층 더 높아졌다.

《...11반 사람들은 뭐 발이 하나 없소? 손이 하나 없소? 당장 씨불임을 시작해야겠는데 어째서 발갈이가 늦어지는가 말이요?...》

박형국은 마치 자기가 욕을 먹듯이 얼굴이 시뻘개서 그 소리를 듣고있었다. 그가 앉아있는 바로 앞줄에 동생 동국이가 머리를 짓수긋한채 숨죽은듯 서있었다.

그리고 여러 작업반장들이 그를 힐끗힐끗 바라보며 앉아있었다. 이런 일은 오늘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새해벽두부터 지금껏 진행되어온 영농공정별 작업반장들의 총화모임때마다 의례히 있는 일이다.

말하자면 11반이 없으면 관리위원장이 크게 총화할 건덕지가 없는것이였다. 형국이 우려했던바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때마다 동국은 그 모든 지적과 비판을 숙명처럼 묵묵히 접수하군 했다. 한마디도 불평을 부리거나 조건타발 같은것을 입밖에 내는적이 없었다. 오늘도 한본새다.

젠장, 왜 한마디도 말을 못해!

박형국은 화가 나서 모임이 끝나자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떡 버티고앉았다.

《3반장동문 왜 집에 가지 않소? 무슨 할말이 있소?》

책상우를 주섬주섬 치우던 관리위원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묻는 소리였다.

《관리위원장동지, 저... 11반 말입니다. 개도 빠질 구멍을 봐서 때려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허, 더 말 안해도 알만 하오. 조건도 어렵고 토대도 약한 11반의 사정을 좀 봐달란 말이지?》

《그렇습니다. 지난 시기에는 그래도 이때저때 관심을 돌리던 관리위원장동지가 새해부턴 왜

강건너 불보듯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그때하고는 사정이 다르니 할수 없지. 하지만 난 늘 동국동무를 도와줄 마음뿐이란 말이요.》

《마음뿐이면 뭘합니까? 로력동원을 비롯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지요.》

《실질적인 지원이라...》

이렇게 되뇌이고난 관리위원장은 무슨 말인가 더 할듯말듯 한 표정으로 머뭇거리기만 했다.

죽도 아니고 밤도 아닌 그의 대답을 더 듣기가 답답하여 형국은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오고말았다. 밖은 이미 어두웠고 하늘에선 옅은 운무속을 뚫고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고있었다.

어디선가 훈훈한 바람이 불어와 형국의 너부죽한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쓸었다. 무거운 걸음으로 자기 집이 있는 3작업반 옷낭골로 향하던 형국은 저도 모르게 나지막한 등성이너머에 있는 11작업반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불현듯 동생을 만나보고싶은 생각이 간절해졌던것이다.

그가 동생네 집에 이르니 조카 남준이만이 아래목에 누워 킁킁 자고있었다. 그옆에 방금 급하게 물린듯 한 밥상이 덩그렁 놓여있었다. 보매 부부가 바쁜 일로 어데 잠깐 나간 모양이였다.

잇달아 방안을 휘둘러보던 형국의 눈길은 옷방문쪽에 놓여있는 앉은뱅이책상우에 머물렀다. 무슨 책같은것이 무뎉히 쌓여있었던것이다. 호기심이 동한 형국은 허리를 굽히고 그것들을 뒤적여 보았다.

(영?...)

농업과학기술과 관련한 책들과 잡지들이었는데 뚜껑 가늉들에 관리위원장의 이름이 새겨져있는것이 아닌가. 원래 관리위원장은 독학가로 알려져있었다. 헌데 그가 애독하는 책과 잡지들이 어떻게 동생네 집에 와있단 말인가?

속으로 이상하다 하며 잡지 한권을 대충 펼쳐보던 형국은 언제 이러고있을 사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는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리며 동생을 찾기 시작했다. 잠시후 그리 멀지 않은 농장밭에서 인기척이 나며 두 그림자가 얼른 거리는것이 얼핏눈에 띄였다. 꼭 동생과 제수 같았다.

주섬주섬 그리로 다가간 형국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동국이와 제수가 뽕이로 밭을 두치고있지 않는가. 펍펍... 나란히 선 그들이 뽕이날을 땅에 내려찍을 때마다 습기를 머금은 흙이 한뼘씩 뒤번저지군 했다. 형국은 맹탕하여 그들을 찾지도 못하고 장승처럼 서있었다. 동국이가 먼저 형국을

알아보고 팽이를 전체 다다왔다.

《형님 오셨습니까?》

형국은 뒤집을 전체 아무런 대꾸도 없이 그를 바라보기만 했다. 반장이라는데 이 무슨 꼴이냐고 질책하는 눈빛이었다.

《어쨌겠습니까. 트랙포르는 연유가 떨어졌지, 축력상태도 씨원칠 않지, 그렇다고 팔짱끼고 가만 있을수야 없지 않습니까.…》

비로소 형국은 무뚝뚝하게 입술을 뻗었다.

《음, 나두 속이 답답하여 이렇게 온것이니 예 앉아 이야기나 좀 나누자꾸나.》

형과 동생은 묵은 강냉이그루터기가 비죽비죽 드러난 밭고랑을 사이두고 마주앉았다.

동국의 안해도 팽이질을 멈추고 한쪽에 오도카니 무릎을 꿇고있었다.

《그래 11반을 책임지고 서너달 일해보니 어떠냐?》

《형님, 솔직히 제가 제대되어 3반 4분조에서 일할 때의 느낌이 듭니다. 그때 4분조는 작업반적으로 제일 뒤떨어졌었지요? 로력을 비롯한 여러가지 조건을 빗대고 남의 손을 바라보는 현상이 농후했던 말입니다.…》

그것은 죄다 사실이였다. 해마다 계획을 미달하는 그 4분조때문에 형국은 무던히도 원심을 썼었다. 다른 분조들을 동원하여 지원포를 짜주기도 하고 자기가 직접 그 분조에 나가 작업조직을 하고 일도 하면서… 4분조야말로 농장적인 1등작업반을 꿈꾸는 형국에게 있어서 골치거리가 아닐수 없었다. 이런던 분조가 동국의 출현으로 하여 휘짝 달라지기 시작했다.

몇년전 동국은 제대되어오자마자 4분조의 가을걷이가 뒤떨어진것을 알고 휴가기일도 채우지 않은채 그 분조에 나가 걸싸게 낫을 휘둘러댔다. 그리고는 아예 그 분조에 눌러앉았다.

형국은 사실 그에게 작업반의 테두리안에서나마 알맞춤한 일자리를 택해주려 했으나 동국은 완강하게 반대했다. 제대군인이 설 자리는 제일 어렵고 힘든 곳이라는것이였다.

동국은 일을 시작한지 1년만에 관리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분조장으로 임명되였다. 이때부터 그는 더욱더 열성을 내어 일했다. 분조를 단합시키고 이신작적으로 모든 일을 혁신적으로 내밀어 2~3년어간에 분조를 작업반적인 기동분조로, 계획을 팡팡 해내는 분조로 만들었다. 그런 4분조로 하여 형국은 것처럼 꿈꾸던 1등작업반의 영예를 지니고 지금껏 고수하고있는것이였다. 무거운 추를 매단듯 한 동국의 목소리가 계속 울렸다.

《그때는 분조 하나가 의존심이 컸다면 지금은 작업반이 그런것이 문제입니다.…》

《그거야 토대가 약하고 신설이다보니… 제힘이 약하면 어쩔수없이 남을 쳐다보게 되는거지.…》

《그러기에 제힘을 키워야지요. 제가 3반에서 분조장을 할 때 적으나마 성과를 거두었다면 그건 다름이 아니라 제힘을 키웠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큰아버지, 저두 애아버지의 말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 힘을 키우라고 관리위원회에서 애아버지를 여기 반장으로 보냈다고 전 믿습니다.》

뜻밖에도 제수쪽에서 올려오는 말이였다.

형국의 속이 우물 놀랐다. 죄다 듣고있었구나. 하긴 제수도 늘 동생과 한마음한뜻이었지.

그래서 동생이 한분조에서 일하던 그를 일생의 배우자로 택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분조와 작업반은 엄연히 다르다. 이제는 작업반장의 안해라는 립장에서 보다 넓고 현실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남편을 도와야 하지 않을가.… 형국은 제수에게 한마디 하려다가 그만두고 좀 지나서 동국에게 일렀다.

《어쨌든 농사를 잘 짓는것이 첫째인것만큼 필요하면 도움을 받을줄 아는것두 현명한 처사가 아닐가. 이런 면에서 난 네가 관리위원장과의 사업을 잘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지 않아도 관리위원장동지가 저를 많이 도와주고있으니 너무 걱정마십시오.》

(뭐라구? 늘 봐야 욕설뿐이고 로력 한명조차 동원시켜주지 않는 관리위원장이 많이 도와준다구?…)

이때 삼파 팽이 같은것을 든 작업반원들이 사방에서 우르르 모여드는 바람에 형국은 얼른 그 자리를 피하고말았다.

다음날 형국은 작업반의 트랙포르 한대와 네마리의 소를 이끌고 11반으로 향했다. 밤새 속을 굴리고 또 굴려본즉 농사란 제철을 놓치면 망치기가 일쑤라는 생각이 이런 용단을 내리게 했던것이다. 11반에 도착하기 바쁘게 그는 자기가 직접 트랙포르운전대를 쥐고 우릉우릉 밭을 갈아엎었다.

하루종일 지원포를 짜주고나니 미진되였던 밭갈이면적이 쑥 줄어들었다. 11반사람들은 파시 형이 다르다고 혀를 끝끝 차며 형국을 칭찬했다. 그러나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동국이가 제일 그랬다. 그는 트랙포르에서 내리는 형에게로 다가와 나직이 말했다.

《형님, 오늘 일은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당장 씨를 뿌려야겠기에 이번만은 도움을 받았으

니 다시는 이러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구두 뭐 이 형과 경쟁을 하겠다구? 어쨌든 앞으로 11반 농사에 이 형이 무관심할수 없지....)

형국은 한시름 놓인듯 코등에 묻은 기름을 팔소매로 문대며 느슨한 미소를 지었다.

날이 감에 따라 더 바쁘고 힘든 영농공정들이 앞에 나섰다. 그러나 동국의 사업과 생활에서는 이렇다할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날도 당면한 강냉이영양단지모 옮겨심기가 늦어진다고 현장에서 진행된 작업반장들의 모임끝에 동국이가 또 관리위원장에서서 호된 추궁을 받게 되었다.

점심시간에 집에 돌아오니 탁아소에 다니는 형국의 안해가 시동생네 작업반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바가지로 박박 긁어댔다. 젠장, 형국은 다시금 용단을 내리고 작업반비육조원들을 몇명 뚝 떼어 11반으로 보냈다.

작업반의 모판들과 강냉이포전들을 돌아보던 형국은 갑자기 두눈을 휘둥그레 떴다.

11반에 보냈던 비육조원들이 줄레줄레 돌아오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 벌써 끝냈소?》

그들을 마주 향해가며 형국이 큰소리로 물었다. 나이지숙한 한 녀인이 맞받아 통명스레 대꾸했다.

《원, 이렇게 맹랑한 두벌걸음을 걷게 하더니, 그 반장이 자기네 힘으로 다 한다며 우릴 막 쫓다싶이 합디다. 하긴 뭐 우리두 뺏뺏한데 언제 남을 도와줄 형편이 안됐지요.》

형국은 맹랑한듯 허구튼 웃음을 지었다.

여하튼 11반은 그럭저럭 제힘으로 한해농사를 지었다. 그러나 역시 가을에 가서 계획을 미달하고 동국은 말을 듣게 되었다.

형국에게는 관리위원회에서 동국을 해임시키지 않겠는가 하는 위구심이 부쩍 갈마들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씨원하련만 진작 그렇게 돼도 야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동생뿐 아니라 형국이자신의 수치로, 망신으로 되기때문이었다.

형국의 속은 조마조마해났다.

3

새해에 잡혀 며칠이 지난 저녁녘이었다.

장대한 몸집을 자전거에 무겁게 실은 기문이가 3작업반 선전실로 들이닥쳤다.

《3반장동지, 이거야 어디 손발이 맞아야 일을 해먹을게 아닙니까. 솔직히 말합시다. 작년 한해는 좀 두고보자는 식으로 전 별루 반장일에 빠

치지 않았습시다. 하지만 동국동무가 하는 일이 점점...》

기문은 자전거에서 내리자마자 불이 잔뜩 부어 투덜거렸다. 분명 동생에 대한 불만이 력력히 비낀 태도였다.

《그러지 말구 차근차근 얘기해보라구.》

형국은 그의 기분을 능쳐주려 너그럽게 입을 열었다. 말두 말라는듯 쓴입을 다시고난 기문은 오 후에 있는 일을 열이 올라 터놓았다.

...오후 첫시간에 11반에서는 초급일꾼들이 모여 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전망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잇달아 한해 영농계획토의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인차 매듭을 짓지 못했다.

그것은 동국반장이 아주 획기적인 안을 내놓았기때문이었다. 한마디로 지금 있는 강냉이밭면적가운데서 40프로를 논으로 만들자는 것이었다.

원래 11반은 40프로가 논으로 되어있고 나머지 60프로는 강냉이밭면적으로 되어있었다. 이 강냉이밭면적가운데서 40프로를 논으로 만들면 11반은 기본적인 논작업반으로 전환되게 된다.

《제가 1년간 반장사업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료해해본데 의하면 여기 땅들은 대개가 붉은질메흙땅으로서 논적지입니다. 논적지엔 벼를 심어야 소출이 올라간다는거야 너무도 뻔한 리치가 아닙니까.

우리 11반이 해마다 미달하고있는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11반사람들이 흰쌀밥을 먹기 위해서도 그렇고 난 어떻게 하나 논면적을 늘여야 한다구 생각합니다.》

이것이 한명의 분조장과 더우기는 기술원의 반대에 부딪혔다. 논적지는 옳다, 하지만 11반에는 물원천이 적다, 설사 어디서 물을 끌어온다고 하자, 그 큰 공사를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한단 말인가? 토지정리를 하재도 술한 로력과 시간이 필요할텐데 농사는 짓지 않고 그런 일만 벌여놓는단 말인가? 한마디로 우리 11반의 힘은 아직 약하다, 이불깃 보고 밭 퍼했다고 지금은 시기상조이니 앞으로 봐가면서 하는것이 상책이다.

부문당비서와 두명의 분조장의 지지속에 동국이가 다시 말했다. 그런 식으로 대하다가는 언젠가 도 해내지 못한다, 시작이 절반이라고 일이란 시작해놓고봐야 한다, 11반의 힘이 약하다고 하는데 그건 자기 작업반사람들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난 그들을 믿는다, 우리 초급일꾼들이 앞장에서서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을 잘 조직동원하기만 하면 산도 허물고 바다도 메울수 있으며 그보다 더한 일도 해낼수 있다....

모임은 상반되는 두 의견의 대립으로 하여 종시

끝을 맺지 못했다....

척 듣기에도 형국은 동생의 처사가 마음짜지 않았다. 괜히 욕망만 앞세우면서 물덤벌술덤벌하다간 11반의 올해농사가 지난해보다 더 엉망진창이 될것 같은 우려가 번쩍 머리를 때렸다.

정신을 펴쩍 차린 그는 동생을 만나 단단히 놀러와야겠다고 속을 버르면서 11반으로 부리나케 자전거를 몰아갔다.

그가 동생의 집에 들어서니 동국은 앓은뱅이책상을 마주하고앉아 보풀인 책 한권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형국을 보자 얼른 덮으며 일어서는 그 책투쟁에는 《토양학》이란 세글자가 씌여져있었다.

제수가 《아이, 오셨습니까!》하고 반겨맞자 여섯살난 조카 남준이가 덩달아 《야! 큰아버지.》하며 형국의 아래도리에 덥석 매달렸다.

동국이가 《그러지 않아도 형님을 찾아가려던 참인데...》하고는 얼른 눈짓으로 제 색시를 부엌으로 떠밀어보낸다. 따뜻하면서도 단란한 가정적분위기가 형국의 온몸에 혹 끼쳐들었다.

그러자 올 때의 그 굴뚝같이 솟구치던 감정은 서리맞은 호박잎처럼 시들하게 주저앉고 이들의 생활에 관심이 쏠리는것이였다. 형국은 귀엽게 생긴 조카애를 무릎우에 올려놓고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가정생활형편에 대해 물었다.

그런데 동국은 똥판지같이 작업반의 토양과 그에 따르는 벼품종에 대해 이것저것 말하고나서 방구석에 세워놓았던 종이말이를 당겨다 펼쳐보이는 것이였다.

《마침 오셨던김에 이걸 좀 봐주십시오. 작업반 논배치도를 새로 그려본건데 사실...》

《음, 다 알구왔다. 강녕이발면적가운데서 40프로를 논으로 만들려고 한다면서?》

《예, 우리 작업반은 죽으나사나 그렇게 해야 일어섭니다.》

《그렇게 하면야 좋지. 그런데 지금 11반 실정에선 시기상조가 아닐가? 주판에 빠져 주먹치기를 해서는 아무 일도 성사시킬수 없는 법이다.》

《형님, 이걸 결코 주판도 아니구 주먹치기도 아닙니다. 관리위원회와도 이미 토론이 있었고 마을의 로인들과 당원들이랑 토의하고 내린 결심이란 말입니다. 관리위원장동진 토지정리에 한대의 불도젤을 동원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은 우리자체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불도젤소리에 형국의 귀가 다소 열렸다.

《음, 불도젤이 뛰어들면야 사정이 다르지. 현대 물문제가 또 걸릴텐데...》

《형님이 그저 한가지만 도와주면 됩니다.》

형국은 대뜸 얼굴에 화색을 머금고 어서 부탁하라는듯 동생을 쳐다보았다.

《거 있잖아요. 3반을 홀려 소재지의 복산강과 합쳐지는 개울 말입니다. 그 웃쪽을 가로막아 물주머니를 만들자는겁니다. 그러면 그 물을 두개 작업반이 나누어먹어도 남을겁니다. 물주머니를 만든 다음 등성이를 에돌아 우리 11반으로 물길을 짜자는거예요.》

너무도 대담하고 사리정연한 계획이어서 형국은 인차 대답을 못하고 불편만 실룩거렸다.

그건 그거고 물주머니뚝을 쌓고 물길을 쟁다는게 어디 떡먹듯 쉬운 일인가. 해토가 되어서야 그 일을 시작할텐데 그때부턴 점점 농사일도 바빠진다. 여러가지 농사일을 하면서 그런 공사를 11반의 힘으로 꽤 해내겠는지 도무지 가늠이 가지 않았다.

《차 형님두, 뭘 그렇게 오물조물하십니까. 어서 속 시원히 대답을 주십시오. 아무렴 제가 3반에 해를 끼치겠습니까.》

형국은 11반을 도와줄셈치고 예라 모르겠다 하고 반송낙을 하고말았다. 이때 제수가 언제 벌써 날새게 준비했는지 저녁상을 차려들고 소르르 들어왔다.

형국은 황황히 일어섰으나 조카가 《큰아버지, 밥 잡숫고 가시라요.》하면서 바지가랭이를 깡깡 잡아끄는 바람에 도로 주저앉고말았다.

동국이가 술병을 찾아들고 한잔 부었다.

《오늘 우리 작업반을 위해 큰일을 하셨는데 한잔 드셔야지요.》

형국은 그만 허허 웃고말았지만 속에는 큰 시름덩어리가 매달리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해토가 시작되자 동국은 정식 공사를 벌려놓았다. 분조별로 물길공사구간을 맡겨주고 토지정리 역시 분조단위로 진행하도록 했다.

물론 이 모든것은 당면한 봄철영농작업들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함께 밀고나가야 하는 일이어서 11반은 무거운 배낭우에 또 하나의 큰 배낭을 덧걸머진셈이나 같았다. 들려오는 소리에 의하면 11반에서는 남녀로소가 똥땅 펼쳐나 밤낮없이 부글부글 끓는다는것이였다. 그 기세가 참 하늘을 찌를듯이 높고 바다도 메울듯이 무섭다는것이였다.

그러던 어느날 저기압이 된 기문이가 형국을 찾아와 심사뒤틀린 소리를 했다.

《난 3반장동지가 이렇게까지 숙맥인줄은 몰랐어요.》

《뭘 숙맥? 난생 처음 듣는 소리다.》

《우리 11반이 이 지경이 되도록 아무 역할도 못하시니 말이예요. 난 동국동무가 도대체 농사를

짓자는것인지 말자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휴— 공사때문에 그러는것 같은데 이제는 총구멍을 떠난 총알이야. 멈춰세울수 없다 그 말일세.》

《예? 그럼 반장동진...》

《할수 없지, 형으로서 힘껏 지원포를 쏘주는 수밖에... 문제는 그다음의 일일세.》

얼리다실이 기문을 돌려보내고난 형국은 그길로 분조장들을 모여놓고 해설사업을 들이댔다.

그러고나서 형국은 지원로력을 이끌고 물길공사장으로 떠났다.

때는 저녁녘이었는데 공사장가까이에 이르니 한 구석에 놓여진 록음기에서 힘찬 노래선물이 울려나왔다.

제힘을 믿고 펼쳐나서면
천리도 눈앞에 지척
남의 힘 믿고 바라다보면
지척도 아득한 만리
...

마침 부문당비서와 동국이가 자기 작업반사람들과 함께 삼으로 흙을 파제끼고있는 모습이 안겨왔다. 첫눈에도 동국은 눈확이며 불이 폭 꺼져들고 몸가짐이 몹시 힘들고 지쳐보였다.

하긴 바쁜 반장사업을 하면서 또 저렇게 온 육체를 불태우며 앞장에서 공사까지 내밀자니 왜 그렇지 않으랴. 형국은 불쑥 편민의 정이 솟구쳐오르고 눈시울마져 시큰해나는것을 느꼈다. 형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것같아 속까지 쓰러들었다.

헌데 동국은 형이 찾아온 목적을 대뜸 넘겨짚은 모양 황황히 앞을 막아서는것이 아닌가.

《형님, 이러면 안됩니다. 어서 돌아가십시오.》

의외여서 어리둥절해졌던 형국은 자기의 진정을 몰라주는 동생이 패씹해나 버럭 어성을 높였다.

《자기 사람들을 아낄줄 모르는 네가 반장이 옳긴 옳으냐? 이렇게 혹사시켜서 도대체 뭘 얻자는 거냐?》

순간 동생의 낯빛이 굳어졌다.

《형님, 전 무턱대고 혹사시키는게 아닙니다. 힘들어도 우리 사람들에게 자존의 정신력을 키워 주자는겁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 11반은 어느때 가도 일어서지 못합니다.》

《옳습니다, 3반장동지. 어떻게 하나 우리 힘으로 해낼테니 너무 걱정마십시오.》

부문당비서가 이렇게 결들자 여기저기서 삼과 곡괭이를 내흔들며 한마디씩 껴끼다.

《맞수다. 우리도 하루빨리 토대를 닦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러므로요. 우리 11반이 뭐가 모자라서 해마다 계획도 미달하고 못산다는 소리까지 들겠습니까.》

《우리 반장이 11반을 잘사는 반으로 만들겠다고 그토록 애쓰는데 잠을 좀 못 자고 휴식을 좀 못 한들 뭐랍니까. 앞으론 꼭 보람이 클거우다.》

《형님, 3반에도 할일이 많을텐데 어서 돌아가십시오.》

그 돌아가라는 소리에 형국의 부아통이 터지고 말았다.

《그럼 네 맘대로 해봐라. 내 다시는 11반에 발길질을 안한다. 11반 일에 빠치지 않겠단 말이다.》

형국은 씩씩거리며 그 자리를 뗐다. 흙덩이에 걸쳐여 비틀거리면서 얼마쯤 왔는데 옆구리에 무슨 잡지 같은것을 낀 관리위원장이 마주 나타났다.

《아니, 3반장동문 어데 갔다오는 길ियो?》

《11반 물길공사를 도와주러 왔었습니다. 헌데...》

《도와주러 왔으면 도와주고 가야지 왜 그냥 달아나는거요?》

《제힘으로들 한다는겁니다. 고집이 얼마나 센지, 에—에— 두손 바짝 들었습니다. 다시는... 될대로 되라지요.》

《허, 언젠가는 11반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이 관리위원장을 몰아대더니만 어찌된거요? 하긴 도와주지 않는것이 도와주는것으로 되는 경우도 있지.》

《예?!... 헌데 관리위원장동진 어데 가십니까?》

《나두 동국동무를 도와주러 떠난 길ियो.》

《아니, 그렇게 혼자서 맨손으로 말입니까?》

《동국동무가 혼자 와도 된다고 하더구만. 좌우간 돌아가서 3반일이나 튀지 않게 잘 조처하오. 난 동국동무를 믿소.》

이렇게 말하고난 관리위원장은 갈길이 바쁜듯 공사장쪽으로 빠른 걸음을 놓았다.

어쨌든 박동국은 계획대로 완강하게 일을 내밀면서 버찌뿌리기철이 되자 팽상모판들에 새 품종의 버찌를 뿌리도록 했다.

이 문제때문에 기술원과 또다시 마찰이 있었으나 이번에도 기문은 동국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어느덧 11반은 토지정리와 물길공사를 끝내고 농장적으로 제일 마지막이기는 하지만 새로 품 모든 논들에 새 품종의 벼모내기까지 하게 되었다. 그

려나 가을에 가서 수확은 시원하게 나지 않았다. 생땅이다싶이 한 논이다나니 소출이 올라갈리 만 무한노릇이었던것이다.

한해농사총화모임에서 동국은 또다시 말을 들었다. 그를 바라보는 형국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속은 빠질빠질 타들었다.

4

새해에 잡힌 어느날 온 농장을 놀래우는 한가지 일이 생겼다. 리안식이라고 하는 11반 농장원이 관리위원회에 박동국반장의 사업작품에 대해 제기한 것이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세대거름반출로 분조에 실어냈던 리안식농장원네 집 거름을 반장의 지시로 도로 그 집 퇴적장에 실어들었다. 리유는 집집승에 밟혀내지 않은 질낮은 거름이기때문이라는것이였다. 이제라도 집집승에 밟혀내지 않으면 실적으로 잡아주지 않겠다니 세상에 이런 억지도 있는가. 동국반장은 관료주의에 빠져도 단단히 빠졌다...

농장이 생겨서 처음 있을사한 일이어서 너도나도 뒤숭숭 이 말을 듣고다니며 각이하게 평가들을 했다. 다시는 11반에 밭길질을 안하겠다고 선언한 형국이였지만 이튿날 점심이 가까와올무렵 찬바람을 맞받아 그곳으로 자전거를 몰아갔다.

작업반선전실에 이르니 동국은 없었다. 한쪽에서 여러 농장원들이 언땅을 까내며 법석 끓고있었다. 그속에도 동국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대신 곡괭이를 힘차게 휘두르고있던 부문당비서가 형국을 맞아주었다.

그는 방금 동국이가 자기 집에서 기르던 돼지를 몰고 리안식의 집으로 갔다고 알려주었나서 입가에 의미있는 웃음을 띄우며 덧붙였다.

《리안식농장원이 관리위원회에 우리 반장동무에 대해 제기한 문제때문에 찾아오신것 같은데 너무 걱정마십시오. 전 동국동무가 옳게 행동했다구 봅시다.》

형국은 뜻밖이어서 멀뚱히 상대방을 쳐다보았다.

부문당비서는 어지간히 의분이 서린 목소리를 추슬러 계속 이었다.

《반장동지도 아실테지만 지난해 우리는 모내기 끝나자 생땅과 같은 논이 많아진 우리 작업반의 앞날을 생각하여 집집승기르기를 대대적으로 벌리자고 호소했습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집집승기르기를 잘해야 유기질거름을 많이 생산해서 농사도 잘 지을수 있고 생활수준도 끌어올릴수 있기때문이였습니다.

그래서 반장동무는 작업반 비육조장으로 안해를 임명하고 자신부터가 앞장에서 돼지와 염소, 닭, 토끼, 계사니들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반장사업으로 늘 바쁜 속에서도 안해와 함께 이악하게 질 좋은 거름을 받아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작업반에서 생산되는 모든 거름을 더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해 유기질복합비료생산기지도 꾸리고있습니다.

헌데 리안식농장원은 힘들고 구점스럽다고 하여 지난 시기 키우던 부림소도 남한테 넘겨주고 돼지나 염소는커녕 닭, 토끼도 한마리 기르지 않았습시다. 그러다나니 자연히 거름생산량도 작아지고 그 질도 떨어질수밖에 없었지요. 이런 건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구두 반장동무의 사업작품을 걸고들다니...

이건 그저 스쳐지나갈 문제가 아니기때문에 오늘 아침 작업반모임을 열고 되게 비판을 주었습니다.》

형국에게는 저도 모르게 지난해의 일들이 얼핏 얼핏 떠올랐다. 관리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반장들의 모임을 끝내고 돌아갈 때마다 우정 걸어가면서 길옆의 풀을 한줌두줌 뜯곤 하던 동국이가, 늘 풀바구니를 메고다니던 제수...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11반에서 농사를 제대로 지을수 있겠는가?

그에게는 언젠가 기문에게 했던 그다음의 일이 문제라던 말이 다시금 떠올랐다. 기술원의 생각은 어떤지? 참, 그가 왜 보이지 않을까?

작업반마당을 나서는데 마침 저쪽에서 고깔모자를 푹 내려쓴 기문이 불어오는 찬바람을 뚫느라 잔뜩 허리를 꼬부린채 휘억휘억 자전거를 몰아왔다.

《어딜 그렇게 분주히 다니나?》

《예, 아침일찍 염천군에 갔다가 지금 오는 길입니다.》

《이 추운 날씨에 거긴 왜?》

자전거에서 내린 기문은 왜서인지 인차 대답을 못하고 헉헉 흰김만 내뿜었다. 그의 퍼렇게 얼어든 얼굴에는 어딘가 모르게 맹랑한 빛이 떠돌고 있었다.

《글쎄... 반장의 지시로 갔겠지요. 우렁이양식법을 배워오라는겁니다.》

《뭐, 우렁이양식법?...》

결코 생소한 말은 아니였다. 요 몇해사이에 이웃군인 염천군의 여러 농장들에서는 우렁이를 논판에서 길러 김도 잡고 그 배설물로 땅의 지력도 높이는 새로운 유기농법을 시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풍문에는 썰렁하고 알먹고 등지털어 불때는 격으로 좋다고들 하지만 역시 새로운 농사법이어서 반신반의하고들 있었다. 북산리에서도 관리위원장을 비롯하여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아직 어느 작업반에서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있었다.

헌데 11반이 먼저 기치를 들겠다고 움지락거리고 있는셈이었다.

《헛참, 해토가 되면 작업반에 양식장을 꾸리고 시험적으로 우렁이를 길러 논판에 낸다는겁니다. 부문당비서까지 결들어 너무 우기길래 가서 종자 우렁이도 구경하고 양식법도 대충 알아보고 오는 길이기도 합니다만 난 도무지...》

결국 기문은 맞가지 않다는 소리였다.

《그래 자넨 올해에도 비료가 긴장한 조건에서 어떻게 할셈인가?》

《글쎄... 그렇다고 우렁이파위에 의존하여 농사를 짓겠다는건 말도 되지 않지요, 터밭농사라면 몰라도. 결정적으루...》

《비료가 많아야 한다는 소리인데...》

《그래서 풀이 아프단 말입니다. 차라리 반장동무가 그 한가지 문제를 푸는데 집중하면 무슨 뚱뚱한 수라도 생길지 모를텐데 이 일, 저 일 자꾸 벌려놓기만 하니 내참...》

《음, 하여간 내 남준이 애비를 한번 만나볼테니 너무 골썩이지는 말게.》

며칠후 형국은 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반장들의 모임뒤끝에 일부러 동생을 찾아 만났다.

우렁이소리를 꺼내자마자 동국은 제껴 말을 받았다.

《차침 저두 형님한테 그걸 권고하려던 참이었습니다. 토대도 좋고 능력도 있는 3반에서 왜 아직 그 좋은 유기농법을 받아들이지 않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반 걱정은 말아라. 그러루한 방법으로 생땅이 많아진 11반 논에서 웅근소출을 낼수 있겠는지 의심돼서 그런다. 내 생각엔 비료가 더 있어야 할것 같은데...》

《바루 그래서 그러는게 아닙니까. 그렇다고 손털고 나왔을수야 없지요. 어떻게 하나 유기질복합비료도 더 많이 생산하고 우렁이도 기르는 등 제힘으로 농사를 짓되 본래있게 지어야 한다구 봅니다.》

보매 동생의 결심은 확고부동한것 같았다.

그것이 되려 형국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밀물처럼 갈마드는 근심속에 형국은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궁싯거렸다. 여러날동안 아무리 생각해야 11반에는 비료가 더 있어야지 다른 수가 없

다는 결론에 도달한 형국은 어느 휴식날 조용히 읊으로 향했다.

언젠가 동생네 작업반일에 다시는 빠치지 않겠노라고 씩 베고 나앉은 그였지만 어떻게 형으로서 그럴수야 있겠는가. 그때는 화집에 그랬다치고 동생네 작업반농사가 어지간히라도 되여야 이 형의 체면도 설게 아닌가. 이런 생각속에 읊거리에 들어선 그는 읊유축의 소총살림집에서 살고있는 농촌자재공급소 소장의 집에 들어서니 소장은 없고 그의 안해가 맞아주었다.

남편은 불일이 있다며 아침일찍 염천군으로 떠났다는것이였다. 형국은 꼭 소장을 만나고갈 심산으로 구들바닥에 찰떡같이 영치를 붙이고있었다.

그가 소장을 알게 된것은 대학시절 그와 함께 통근열차를 타고 대학에 다니면서였다.

그때 깊어진 우정으로 하여 형국은 농장에 온후 읊에 나가기만 하면 꼭꼭 그를 만나보는것을 잊지 않았다. 그런데 몇해전 경영위원회에서 부원을 하던 그가 자재공급소 소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따로 비료와 농약을 더 타간 일때문에 둘 다 되게 비판을 받은 후로는 별로 발길질을 하지 않았었다.

안타깝게 기다리던 소장은 오후가 되어서야 돌아왔는데 어성버성하게 형국을 대해주었다.

그는 찾아온 용무를 듣고서는 즉시에 질집하여 랑손을 내흔들었다.

《나를 또 구렁텅이에 몰아넣자고 그러나? 정신 차리라구. 자네야 이제 한다하는 농촌초급일꾼인데 하늘이 무너져두 제힘으로 농사지을 생각을 해야지 그게 뭐가, 원칙이 없이.》

《차 이런, 내가 쓸게 아니란데...》

《글쎄 누가 쓰든 상관없네. 원칙은 한가지야. 지금 어딜 가나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강성국가건설대전을 힘차게 벌리고있는데 자넨 뭐가? 헛내기반장보담두 못해!》

《뭐라구?...》

《난 지금 염천군 통덕리에서 오는 길일세. 그 농장에서 우렁이기르기를 잘하여 비료를 적게 쓰면서도 논농사를 잘 짓는다는 신문기사를 읽고 갔댔지. 왜냐면 우리 자재공급소에서도 그걸 길러온 군에 퍼치자구 말일세. 오죽했으면 내가 이런 생각까지 다 했겠나.》

그런데 거기 가니 자네네 북산농장 11반에서 왔다는 젊은 반장이 종자우렁이를 해결하겠다고 먼저 와있더군. 난 인츰 돌아섰네만 그 반장은 더 해결받겠다고 사방을 뛰어다니더라구. 그와 대

비해보면 얼굴이 뜨겁지 않나?...》

형국은 정녕 얼굴이 화독처럼 달아올라 그 자리에 더 앉아있지 못하고 밖으로 나오고말았다...

그해 가을이었다. 눈부신 황금빛으로 물든 북한농장은 한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어디 가나 탐스런 벼이삭들이 무겁게 고개를 숙인채 서늘하게 불어오는 바람에 흐느적흐느적 설레이고있었다. 예상수확고판정이 시작되었다. 11반의 예상수확고를 전부 판정하고난 관리위원장이 3반쪽으로 넘어오다가 박형국을 만났다.

《여보 3반장, 아무래두 올해엔 3반이 1등의 자리를 내놔야 할것 같소.》

《예?》

박형국은 가슴이 철렁하여 관리위원장을 마주보았다.

《이걸 좀 보오. 집계된 3반의 총알곡수확고는 100.5프로이지만 11반은 100.8프로이거던. 0.1프로만 앞서도 대단하다는거야 동무두 알겠지?》

《예-에...》

형국의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내 오늘 동무한테 할 말이 있소. 지금껏 이 관리위원장이 동생네 작업반에 관심이 적었다고 날 많이 욕했으리라고 보오. 하지만 이젠 동국동무의 절절한 부탁이었소.》

《...》

《반장이 된 후에 그는 나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소. 앞으로 11반의 농사는 11반이 책임지고 어떻게 하나 제힘으로, 제 손으로 해나가겠으니 관리위원장은 오직 그 자존의 정신력에 채찍질만 해달라, 도와주겠으면 단 한가지 선진영농방법과 기술을 남보다 빨리 받아들일수 있도록 제때에 가르쳐주는것이다, 그 길이 진정으로 11반을 도와주는 길이다... 그래서 난 솔직히 동국동무한테 농업과학기술책들과 잡지들을 가져다준것밖에 없소.

그런데도 동국동무는 그걸 고맙게 생각하면서 날더러 지원로력 백, 천명을 혼자서 대신한다고 하더군. 좀 과장된 소리같지만 어쨌든 동국동무야말로 오늘 우리 시대 일꾼들이 조국과 혁명앞에 어떻게 살며 일해야 하는가를 산 모범으로 보여주고있다고 난 생각하오.》

형국은 아무런 대꾸도 못한채 뿌리박힌듯 서있었다. 무엇에 한대 되게 얻어맞은것처럼 머리가 뻗어나기도 했다. 얼마나 많은것을 생각해 하는 관리위원장의 말인가. 그는 비로소 동생의 진짜 모습을 모두 보는듯싶어 눈을 습벅거렸다.

이어 회오의 소용돌이가 가슴가득 일어났다.

한갓 형제의 정으로써만 그를 도와주려 했던 자

신이 얼마나 어리석었으며 진정으로 동생을 도와주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새롭게 깨닫게 되는것이였다. 그는 크나큰 의미를 띠고있는 3반의 포전들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그 자리에서 움직일줄 몰랐다.

석달후 한해농사를 총화하는 모임에서는 예상한바 그대로 동국이네 11작업반이 1등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결국 동국은 형파의 경쟁에서 이긴셈이였다. 총화모임에서는 깍기문이기도 높은 표창을 받았다. 그날 저녁 형국은 안해와 함께 동생네 집으로 떠났다.

안해가 시동생을 축하해주자며 별식을 꾸려가지고 손을 잡아끌었던것이다. 학교손품금수인 아들 남호도 오락회를 열자며 풍썰썰 손품금을 메고 따라섰다. 어느덧 동국의 집에 이르러 한창 상을 차리고있는데 밖에서 문득 깍기문의 우렁한 목소리가 울려왔다.

《물러까라 치여까라, 우리네 영웅반장 행차이시다...》

밖을 내다보던 형국이하와 안해 그리고 제수, 남호와 남준이도 모두 하나같이 눈을 크게 떴다.

앞가슴에 훈장을 단 기문이가 동국을 잔등에 업은채 춤을 추듯 마당에 들어서고있는것이 아닌가. 그뒤를 부문당비서와 본조장들, 리안식(그는 현재 작업반 유기질복합비료생산기지 및 우렁이양식장책임자로 일하고있었다.)을 비롯한 여러 농장원들이 따르고있었다. 그들도 동국을 축하해주려 오는것이 분명했다. 기문은 재차 웨쳤는데 어딘가 모르게 시큰둥 걸린 소리였다.

《어릴 땐 동국이가 나를 업었지만 오늘은 내가 동국을 업어야겠수다!》

모두 폭소를 터뜨렸으나 형국이만은 웃을수가 없었다. 누가 자고로 형보다 나은 아우는 없다고 했는가? 아니, 있다. 그것을 가르치는 기준은 자존의 정신력이다. 형으로서 진정으로 동생의 참된 형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자존의 정신력이 강해야 한다. 그게 약하면 나이는 형이여도 동생이 된다.

이렇게 속으로 부르짖고난 형국은 별떡 몸을 숙구고 마당가로 달려나갔다. 기문의 등에서 와락 동생을 앗아낸 다음 번쩍 목마를 태우고 마당을 한바퀴 빙그르 돌아간다. 사람들이 와하하 즐겁게 웃으며 박수갈채를 보낸다.

한여름이라면 들꽃이라도 한아름 꺾어 그들의 머리우에 꽃보라처럼 뿌려주련만...

참으로 좋고 또 좋은 저녁이였다.

한 의학자의 모습에서

리 룡 운

사람이란 누구나가 자기 한생의 성공을 바란다. 나에게 있어서도 그것은 마찬가지이다. 하면서도 그 성공이란 의미에 대해서는 나 자신도 딱히 모른다. 한것은 성공의 높이에 대한 견해가 사람마다 나뉘기때문이다.

얼마전 나는 의과학연구소의 한 박사를 그의 서재에서 만났다. 그때 나의 가방에는 최근에 출판되어온 박사자신의 장편수기가 들어있었다. 내용도 감동적이며와 간결한 문장과 어휘구사는 또한 나의 직업적호기심을 몹시 자극하였다.

만나보니 좁고 갸웃한 얼굴, 빠른 하판에 비해 넓고 반듯한 이마, 그밑에서 일렁이는 사색속에 은근히 잠긴 두눈, 약간 꺼져든 볼편이며 운동 부족기가 다분히 느껴지는 알팍한 두어깨마저도 박사가 지닌 지성의 품위를 한층 부각시키는듯 한 세련되고 지성적인 모습이였다.

박사의 전공은 고려의학립상학이다. 고려의학이라면 여러가지 천연약재의 리용과 함께 첫 표상으로 떠오르는것이 침과 뜬이다. 치료효과는 좋으나 피부를 찌르고 살을 태우는 아픔을 동반하는 침구학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것만은 사실이다. 여북했으면 우리 철부지 그 시절 애태우는 자식들을 두고 어머니들이 《정 말을 안 들으면 의사선생더러 침을 놓아달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으랴. 그러던것이 우리 의학자들의 피타는 연구의 결과로 침구학에 대한 의미가 달라졌다.

《고려전자치료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학계에 구획지어놓고 전통적인 침, 뜬, 약물치료원리에 현대전자 및 컴퓨터기술을 재치있게 결합시켜놓은것이다.

초단파에 의한 전자침과 전자뜸, 먼적외선에 의한 찜질, 여기에 여러가지 전자물리학기술을 도입한 다양한 형태의 부항, 안마 및 수기료법의 도입, 게다가 음악률동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인체생리학적요구에 맞추어 침구치료가 말그대로 음악감상까지 겸한 하나의 정서생활계기로 되었다. 이 모든 학문이나 발명품들은 치료효과나 그 지속성 측면에서도 이전 방식을 훨씬 능가하였다. 이것은 수천년력사를 헤아리는 고전의학에 현대적기술을 배합한 한마디로 고려의학분야에서의 일대 전환의 계기로 되었다.

여러가지 과학기술서적들로 꽉 들어찬 서재를 빙 둘러보던 나는 문득 책상우의 벽면에서 시선을 멈추었다. 원고무지가 쌓인 책상의 윗벽면에는 각종 창의고안증서들과 발명권, 특허권, 저작권증서들과 함께 박사증서가 정성들어 꾸민 액자에 싸여

주련이 걸려있었다.

《히야!》

나는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지르며 벽에 다가서 액자속의 증서들을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벌써 대학시절에 받은 발명권만도 여러개였다. 이미 수기를 통해 알았지만 갓마흔에 박사의 학위를 수여받고 지금은 50대 초엽, 뚜렷한 목표를 향해 완강한 의지로 탐구의 한길을 달려온 지난 행로를 이 모든것이 말없이 보여주고있었다.

《선생님, 선생님은 성공하셨습니다.》

나의 입에서 이런 말이 저절로 흘러나왔다.

《성공이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박사의 반문은 오히려 나를 의아하게 하였다.

무릇 사람들은 한생에 무엇이든 한가지만 남겨놓아도 성공한 생이라고 한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능력에 한계가 있기때문이다. 그런데?!...

나를 이윽히 바라보던 박사가 신중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의학적견지에서 볼 때는 크든작든 자기가 해놓은 일에 대해 자부와 만족을 느끼는것이 인체에 매우 유익한 역할을 한다더군요. 의학자인 나로서도 그 견해에 동감입니다. 이를테면 자아만족에 의한 심신로화방치료법의 일종이니까요. 하지만...》

박사는 잠시 말을 끊고 무슨 생각인지 골똘하였다.

《박사선생님, 어쨌든 이만한 연구성과라면 선생님이 조국앞에 자기 의무를 다했다고 할수 있지 않을까요?》

나의 이 말에 박사는 고개를 번쩍 쳐들었다. 그리고는 잠시 뭔가 주저하는듯 하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이 모든것은... 내가 거둔 성과를 남에게 보이자고 걸어놓은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들고 지칠때마다 저 증서들을 보느라... 자신에 대한 요구성이 더 높아지지요.》

조용히 담담하게 울리던 박사의 목소리가 차츰 흥분의 열기를 띠었다.

...물론 저 하나하나의 결과물들이 과학적으로 일정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뒤에는 또다시 개척해야 할 미지수가 반드시 남아있다.

때문에 하나의 과학적성과를 두고 성공이라고는 할수 없다. 오히려 자기자신에게 더 크고도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는것으로 된다...

이렇게 말하는 박사의 두눈은 비상한 광채를 뽐

었다.

《방금 의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국앞에 뭔가 해놓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비로소 의무행의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끝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박사의 마지막말은 왜서인지 조용히 찾아들었다. 그렇지만 나는 그 말에서 공명되어나오는 보다 심오하고 거대한 의미를 읽는다. 바로 의무와 량심, 량심과 의무라는...

새롭게 듣는 말도 아닌데 그 의미가 새삼스레 가슴을 파고드는것은... 같은 말도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람에게서 듣는가에 따라 그 의미가 새로와진다고 한다.

조국앞에 지닌 사명을 그 어떤 의무이기 전에 량심으로 간직한 사람들, 이 세상 끝에 홀로 있대도 스스로 지켜지는 그러한 량심을 의무의 기초로 한 사람들, 피타는 노력으로 방대한 저서를 집필하여 내놓고도 쏟아부은 정열의 부족함을 스스로 자책하고 하루를 성실한 근로의 땀으로 적시며 석탄산의 키를 자래우고도 자기 수고의 모자람을 탓하는 탄부들, 풍요한 만가을의 들머리에 앉아서도 지나온 한해를 두고 모대기는 농민들... 그 어떤 명예나 보수, 리익에 대한 사심보다도 오직 조국의 부강과 번영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경주하는

사람들, 새 일감이 차례지기를 기다리는것이 아니라 새 일감을 찾아할줄 아는, 그래서 일이 덧쌓여 드바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공이란 말의 의미는 어떻게 들릴것인가. 여기에 나는 단언하고싶다.

조국이 그대를 알고 인민이 그대를 아는 바로 그것이 그대들의 성공이라고... 밤하늘은 무엇으로 아름다운가. 하나하나의 별들이 모여 신비하고 장관스런 세계를 이룬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공도 그 별들중의 하나이다. 그런 별들이 모이고모여 조국은 새 세기 산업혁명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함남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황황 일쿠며 머지않아 세계의 앞장에서 달려나가리라.

...

그날 저녁 집으로 향하면서 나는 방금 헤어진 박사의 모습에 자신을 비추어보았다. 귀가에는 박사가 제일 사랑한다는 노래의 가사가 쟁쟁히 울려온다.

생이란 무엇인가 누가 물으면
우리는 대답하리라
마지막순간에 뒤돌아볼 때
웃으며 추억할 지난날이라고

수 필

죽음을 피할수 없다

리 수 정

항간에서 리명박이 황천객이 되었다는 소문이 짜-하니 돌았던적이 있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있거늘 그 민심을 반영한 우리 생활의 한토막이었다 할가.

그날 나는 대학으로 가는 길에서 앞서걸는 두 남학생의 말을 귀동냥하게 되었다.

《박동무, 들었어? 쥐명박 그 개새끼가 똤졌다누만.》

《응, 나도 들었어. 그 말을 들으니 십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것처럼 어찌도 시원하던지...》

나는 당장에 그들을 따라잡고 초면이었지만 물었다.

《그게 정말이에요?》

두 남학생은 당장에 얼퍼름해졌다.

《무슨 말인지?》

《야 정말, 이자 그 말, 명박이 똤졌다는 얘기말이에요.》

그제서야 그들은 낯선 녀학생이 초면의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자기들을 붙잡은 리유를 깨달았는지 머리를 끄덕였다.

《예, 나도 우리 할아버지한테서 들은 얘긴데 아마

사실일겁니다. 소문이 짜하던데요. 아마 우리 인민의 똤어번지는 증오와 규탄에 심장마비가 왔을겁니다.》

그때 나는 흥분으로 격앙되는 마음을 누르지 못하고 온 하루를 보냈었다.

쥐명박, 온 겨레, 온 민족이 죽음을 선고한 대역죄인이기에 마땅히 그런 소문이 날만도 하다.

동족대결에 미쳐날뛰며 호전적인 망발을 늘어놓다못해 감히 우리의 최고존엄을 중상모독하고 성스러운 체제를 혈튼은 만고역적 쥐명박에게 민심은 이미 사형선고를 내렸다.

리명박이 살아숨쉬는것을 누가 용납할수 있다더냐. 한생을 쥐굴에 박혀 해빛을 두려워하는 더러운 쥐새끼는 바깥구경을 할수도 없거늘.

그때 나는 그 생각과 더불어 현실체험지로 찾았던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현장에서 받았던 강렬한 느낌을 떠올렸다.

산더미처럼 쌓여지는 비료무지!

그 비료산앞에서 한 청년로동자가 주먹을 틀어쥐며 하던 말...

《그 쥐명박새끼를 저 비료무지로 깔아뭉갠다면 시원하겠습니다. 저 높다란 비료산에서 우리 공업

의 위력을 본다는거야 누구나의 심정이 아닙니까. 그 위력을 감히 저울질하려드는 그 서푼짜리도 안되는 쥐새끼를 우리 비료생산자들은 저 비료산밑에 깔아 죽탕쳐버리고픈 심정입니다.》

위대한 생애의 나날들에 남흥의 로동계급을 찾고찾으시던 어버이장군님과 땀해야 땀수 없는 정을, 인연을 맺고 살아온 비료생산자들이기에 감히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한 리명박쥐새끼무리를 용서할수가 없는것이다.

가슴에 깊이 새긴 어버이장군님의 미소가 그렇듯 그리워 잠을 못 자고 끼니를 번쳐도 하루계획만은 놓을수 없었던 남흥의 로동계급이었다.

그런 그들이여서 세계가 비분에 잠겨 오염을 더뜨리던 민족대국상의 나날 승이 난 미친개마냥 더더욱 전쟁열을 올리며 감히 우리의 최고존엄을 중상모독하는 특대형도발행위를 감행한 리명박쥐새끼를 때려잡지 못해 분노의 치를 떨고있다.

리명박쥐새끼무리가 감히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새겨진 백두산위인들의 영상을 흐리려들고 백두산혈통을 끊으려 하고 우리 민족의 영원한 생명선을 허물려하다니.

생각속에 바라보는 비료무지는 높이높이 쌓여진다.

마치 그 산더미같은 비료무지에 깔려 헤어나오겠다고 버둥질하는 쥐명박의 가공한 몰골이 눈에 보이는것만 같다,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칠수록 더더욱 깊이 무덤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리명박쥐새끼의 몰골이.

그렇다, 이미 쥐명박역도는 제 무덤을 파놓은놈이다.

우리 겨레 하나의 피줄기를 대결정책의 칼날로란도질하다못해 우리의 최고존엄을 감히 허물어보려 함으로써 쥐명박은 이미 동족으로서의 초보적인 도덕과 료리를 잃었으며 살아있다는 형체마저도 잃었다.

쥐명박은 인간의 피가 뛰지 않는 산 송장이다.

제놈의 정권을 유지해보려고, 제놈의 목숨을 부

지해보려고 별의별 오그랑수를 다 쓰고있지만 리명박은 문자 그대로 명이 박한 놈이다.

북과 남사이에 호전적인 대결의 철조망을 미친듯이 늘이고 길으로는 남조선의 《빈부격차해소》를 떠들면서도 실지로는 빈부의 차이를 더욱 늘여나가는 늘이기명수 리명박이 그 《줄기찬》늘이기속에서 제 명 줄어드는줄은 모르고 헤덤비니 과연 얼마나 기막히는 희비극인가.

명박이를 놓고본다면 정치에서는 삼척동자도 조소할 어리석은 사기협잡군이요, 경제에서는 민중을 굶기고 재벌을 배불리는 반인민적 《경제대가》요, 군사에서는 제 주인을 물어뜯는 미친개 한가지로 동족을 덮치려는 호전광이요, 문화에서는 미국식양복에 개사슬을 목에 두른 해괴한 《신사》라 누가 인정치도 않는 《대통령》자리에 올라앉아 송장내를 풍기는 유명한 인간오작품이다.

바위에도 삼질을 해댄다는 식의 미친 발광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리명박쥐새끼가 최근에는 분통하게도 민족의 위대성의 상징인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하였으니 어찌 명이 박하지 않고 더이상 이 땅에 살아숨쉬수 있겠는가.

리명박은 거세찬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속에서 시시각각 날카롭게 버려지는 복수의 총창을 보아야 하며 위대한 진군의 우렁찬 동음속에서 분노한 심장들이 광광 뛰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우리의 존엄, 우리의 영예, 우리의 삶을 어찌보려는 쥐새끼무리의 악몽은 죽음에 직면한 가련한자의 악몽에 지나지 않는다.

온 민족의 저주와 규탄을 받다못해 세계 진보적 인류의 조소와 멸시를 받고있는 그 쥐새끼의 권력가로서의 생은 물론 그 서푼어치의 값도 안되는 더러운 목숨도 끝장난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 리명박쥐새끼는 세계의 면전에서 뒤흔다.

민심은 필연을 가져다준다는 말이 있다.

리명박쥐새끼는 더러운 쥐굴에서 뒤흔다.

인류가 매장했다.

레오노브의 생애와 창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생활과 투쟁을 혁명적발전속에서, 력사적구체성속에서 진실하게 그리는것을 기본요구로 하는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은 과학적이고 정당한 창작방법이다.》

이전 소련의 레오노브(1899—1994)는 60여년의 오랜 창작활동을 하면서 자기의 의무를 다한 작가이다.

그는 모스크바의 시인의 가정에서 출생하여 작가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였고 짜리의

창취미에서 억압받는 인민들의 생활을 직접 목격하였다.

이 과정에 진보적인 세계관을 키워나갔고 일찌기 시문학창작의 길에 들어서면서 자기의 창작경험을 쌓아나갔다.

레오노브는 위대한 사회주의10월혁명 이후 붉은군대에 입대하여 손에 총을 잡고 사회주의전취물을 보위하여 용감히 싸웠으며 이 시기를 전후로 창작된 그의 작품들은 혁명적기백과 쏘베트조국에 대한 긍지와 락관주의적인 사랑으로 일관되어있다.

그러나 초기작품들에서는 구성과 문체, 언어는 다양했으나 현실생활과 동떨어져 추상적인 개념속에서 이른바 시적인것을 추구하는 결함을 나타냈다.

레오노브는 이러한 퇴폐주의적이며 비현실주의적인 경향에서 벗어나 혁명의 거대한 힘이 낳은 가부장적인 농촌과 도시의 소시민층, 부르주아인테리들의 생활에 어떻게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중편소설 《뻬투신스끼의 파괴》(1922), 《비열한 인간의 종말》(1922), 《꼬바킨의 기록》(1923)과 같은 작품들에서 보여주었다.

레오노브는 초기창작에서 이야기형식을 많이 썼는데 주로 1인칭으로 묘사하면서 사람들의 감정을 잘 형상화하였다.

1922년부터 작가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레오노브는 농촌에서의 예리한 계급투쟁을 반영한 장편소설 《오소리》(1927), 사회주의공업화를 위한 투쟁을 반영한 장편소설 《쏘치》(1930)를 창작하였다.

특히 장편소설 《쏘치》는 그의 창작에서 커다란 발전을 이룩한 작품으로서 다른 작가들과 달리 주제와 갈등의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시대를 깊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전개하였다.

여기서 작가는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을 낡은것과 새것의 극적인 묘사를 통해 보여주었다.

이 작품을 통해 로동을 주제로 하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창작방법을 보여준 레오노브는 또한 인민들의 사회적 및 로력적창조활동을 광대한 화폭으로 보여주는 장편소설 《대양에로의 길》을 창작하였고 1954년에는 자기의 대표작으로 되는 장편소설 《로씨야의 숲》을 창작하였다.

장편소설 《로씨야의 숲》은 산림을 잘 가꾸어 나라의 재부를 증대시키며 조국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애쓰는 쏘베트과학자들의 애국적인 투쟁을 생동하게 보여준 작품이다.

작품은 문제전반에 대한 깊은 견해와 그 폭, 작가의 높은 기교, 민족력사에 대한 깊은 리해, 쏘베트인테리들의 성격과 지적탐구의 견지에서 훌륭히 형상된 소설로 평가되고있다.

이 작품에는 그의 오랜 경험이 집대성되어있으며 작가로서의 꾸준한 기질과 강한 정열이 비껴있다.

작품은 애국주의와 조국의 자연과의 결합, 인간의 결백성과 헌신성,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기쁨이 비인간성과 사리사욕, 탐욕과의 대조를 이루며 풍부하게 형상하였다.

이 소설에서 레오노브는 20세기 로씨야의 반세기에 걸치는 생활의 기본문제를 류리학적견지에서 고찰하여 탐구하였다.

레오노브는 또한 중편소설 《웰리꼬쉴스크의 점령》(1944), 《예브게니아 이와노브나》(1963), 영화문학 《미스터 마크키리의 도주》(1961), 희곡 《래습》(1942), 《황금마차》(1946) 등을 포함하여 수많은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희곡 《래습》역시 등장인물들의 헌신성과 고결성을 통하여 그들의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높은 애국심을 보여준 작품이다.

레오노브는 생의 말년에 3편으로 된 환상장편소설 《뻬라미다》를 창작하였는데 이것은 작가자신의 한생을 총화하고 로씨야문학과 자기의 창작적지향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리론적으로 표현하였다.

레오노브는 시와 소설, 극문학창작과 평론, 정론을 비롯한 자기의 글들에 있는 재능과 정열을 남김없이 발휘한 이름있는 작가였다.

그의 매 작품에는 고상하면서도 철학적인 사상이 있고 역사적깊이와 언어의 정확성이 있다.

이처럼 수십년간의 창작활동을 통하여 문학발전에 큰 기여를 한 작가 레오노브는 오늘도 로씨야문학사에 재능있는 작가로 남아있다.

리 순 욱

조선문학 주체101(2012)년 제6호 (루게 제776호)

편집위원회

낸 곳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 쇄 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01(2012)년 6월 1일

발 행 주체101(2012)년 6월 5일

7-26261

© Korea Literature & Art Publishing House 2012

D P R Korea

ISSN 1727-9437